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 공사 전세계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수집한 74개국의 경제정보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KOTRA는 현재 발간하고 있는 74개국의 경제정보를 국가별로
지정된 주기(분기/반기/연1회)에 따라 UP-DATING하는 한편 발간대상국을
확대하여 귀사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레바논

kotra

<http://www.kotra.or.kr>

차 례

1.	국가개요	1
2.	경제동향 및 전망	6
3.	한국과의 무역관계	9
4.	한국과의 투자관계	11
5.	수입규제 사례	12
6.	현지 히트상품	12
7.	진출 성공/실패사례/진출 성공, 실패 사례	14
8.	주요이슈/레바논 전후 복구공사	16
9.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19
10.	환전	20
11.	기후	21
12.	공휴일/레바논 공휴일	22
13.	시차/근무시간/시차, 근무시간	23
14.	호텔	24
15.	식당	25
16.	교통/통신/교통,통신	27
17.	유용한 연락처	30

18.	여행시 유의 사항	34
19.	관광 명소	37
20.	유용한 현지어 표현	46
21.	국토	48
22.	국민	50
23.	역사	52
24.	국가조직	57
25.	정치제도	59
26.	정치사회 동향	61
27.	국가원수	62
28.	주요인사	63
29.	행정구역	66
30.	대외관계	67
31.	국가경쟁력	69
32.	도량형	70
33.	관공서 관행	71
34.	국제공항 및 항구	71
35.	매스미디어	72
36.	주한 주재국기관	74

37.	현지 화제 유머 속담 / 현지 화제, 유머 속담	75
38.	물가 정보	76
39.	경제 발전사	77
40.	경제 정책	80
41.	금융 통화 제도	83
42.	주요 산업 동향 / 전체 산업 동향	84
43.	주요 산업 동향 / 교통, 관광업	90
44.	주요 산업 동향 / 금융업	91
45.	주요 산업 동향 / 농림수산업	93
46.	지적 재산권	94
47.	소비자 보호	97
48.	수입 관리 제도	98
49.	관세 제도	98
50.	통관 절차	99
51.	유통 구조	101
52.	국제 입찰 제도	102
53.	외환 관리 제도	105
54.	시장 특성 / 시장 규모 및 특성	105
55.	상거래 시유의 사항 / 상거래 체크포인트	107

56.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환경	109
57.	투자유치정책	112
58.	외국인투자제한	112
59.	투자진출절차	113
60.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지사개설	116
61.	공장설립	123
62.	산업단지/산업단지 현황	124
63.	자유무역지대	126
64.	조세제도	126
65.	사회간접자본	132
66.	노동여건	137
67.	사회보장제도	142
68.	현지 생활여건	144
69.	이주정착가이드/이주.정착가이드	149
70.	자녀 교육여건	154
71.	진출기업	155
72.	주요경제지표	156
73.	대외거래 지표	157
74.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	157

75.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	158
76.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한-레바논 교역통계	160
77.	대외투자 진출 통계	162
78.	외국인 투자유치통계	162
79.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 통계	162
80.	물가금융 지표	163
81.	노동 통계	163

1. 국가개요



일반사항

국명	레바논(Republic of Lebanon), 잠후리에 립내니에 (아랍어)
위치	- 북위 33°34.40도, 동경 33°36도에 위치 - 서쪽은 지중해, 북동쪽은 시리아, 남쪽은 이스라엘과 접경
면적	10,452km²(경기도 면적과 비슷)
기후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 (여름은 건조, 겨울은 우기)
연강수량	78일
수도	베이루트
인구	410만명 (`97 추정치)- 약 7.6%의 거주 외국인 포함 - 인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권력배분 등과 연관되는)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인구 센서스도 수행되고 있지 않음
인구밀도	429명/km²
인구성장률	2.0%
해외교포	60여개국에 11,050,000명 추정 - 북미 : 2,500천명 - 중미 : 400천명 - 남미 : 6,500천명 - 아시아 : 400천명 - 유럽 : 500천명 - 아프리카 : 400천명 - 호주 : 350천명
주요도시	Beirut (150만명), Tripoli (67만명), Sidon (28만명)
도시인구비	90%
민족(인종)	아랍족(또는 페니시안)(93%), 아르메니안(6%), 기타 혼혈인 족

언어	- 아랍어가 공용어이나 불어나 영어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비즈니스에 종사하거나 30세 미만의 젊은이들은 대체로 영어 구사 가능
종교	- 기독교, 이슬람교(순니, 시아, 드루즈무슬림) 등 총 18개 종파 - 기독교와 이슬람교간 인구비례는 38:62정도로 이슬람교도 인구가 많은 편 - 이슬람 종파중에는 시아 무슬림이 34%, 수니 무슬림이 21.3%를 차지하며 기독교 종파중에는 마로나이트가 17.6%, 그리스정교 9%, 그리스 카톨릭 6%, 아르메니아 정교 5%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한편, 드루즈파 인구는 약 7.1%를 차지하고 있음
독립기념일	1943.11.22
정부형태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 Emile Lahoud (대통령, 기독교 마로나이트) - 타이프협약(1989년)에 따라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이 권력을 분점
정당	Hizbullah (이슬람교 시아파), Amal (이슬람교 시아파), National Liberal Party (기독교), National Bloc (기독교), Kataeb Party (기독교), Progressive Socialist Party (이슬람교 드루즈파)
국회의장	나비 베리(이슬람 시아파)
정부성향	비동맹 중립노선

경제지표

G D P	US\$ 195억 (2004년 추정치)
1인당 GDP	US\$ 4,675 (2004년 추정치)
실질경제 성장률	4.0% (2004년 추정치)

빈곤계층	● 전체 인구의 28% (1999년 추정치)
물가상승률	● 1.5% (2004년 추정치)
노동인구	● 150만명 + 약 10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
실업률	● 12 % (2002년)
회계년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화폐단위	● Lebanese Pound (LL, LBP)
환율	● US\$ 1 = LL 1,507.5 (2004년기준 평균환율)
예산(04)	● 세입- LL 7조 5140억 ● 지출- LL 10조 5,400억
공공부채 (% of GDP)	● US\$ 359억, GDP대비 177.9% (2004년)
외환보유고	● US\$ 115억 (2004년말 추정치)
경제원조	● US\$ 35억 (1997 - 2001) ● US\$ 42억 (2002년 11월 Paris II 원조공여국 회담)
산업	● Banking, food processing, jewelry, cement, textiles, mineral and chemical products, wood and furniture products, oil refining, metal fabricating, 와인
산업구조	● 서비스 66.1% , 공업 22.0% (제조업 10.3%), 농업 11.9%
주요 농축산물	● citrus, grapes, tomatoes, apples, vegetables, potatoes, olives, tobacco, sheep, goats
주요 수출품목	● Pearls, precious metals,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Machinery, mechanical appliances, Base metals and articles of base metal
주요 수출대상국	● 이라크 14.6%, 스위스 10.7%, 시리아 8.3%, UAE 7.7%, 터키 7%, 사우디아라비아 7%, 쿠웨이트 4%, 요르단 3%, 미국 3%

주요 수입품목	● petroleum products, cars, medicinal products, clothing, meat and live animals, consumer goods, paper, textile fabrics, tobacco
주요 수입대상국	● 이탈리아 9.9%, 프랑스 7.8%, 독일 7.7%, 중국 7.6%, 미국 6%, 러시아 6%, 스위스 4%, 영국 4%

레바논의 수출입 규모

[표] 수출입 규모

(단위: US\$ 천,%)

년도	수출액	증감율	수입액	증감율	무역수지
2001	889,299	24.5	7,291,075	17.1	-6,401,776
2002	1,045,495	17.6	6,444,775	-11.6	-5,399,280
2003	1,523,935	45.8	7,168,198	18.2	-5,644,263
2004	1,747,020	14.6	9,396,953	31.1	-7,649,933
2005.1-4월	569,901	-5.9	2,981,006	9.5	-2,411,105

*자료원: 레바논 관세청

한-레바논 관계

- 체결협정: 2005년 1월 무역·경제협력 협정 체결 (국회 비준후 효력발생 예정)
- 투자교류('05년 기준): 없음
- 교민: 40여명

한국과 레바논의 수출입 규모

[표] 수출입 규모

(단위: US\$ 천,%)

년도	한국의 수출액	증감율	한국의 수입액	증감율	무역수지
2001	105,846	16.1	4,602	-18.4	101,244
2002	64,664	-38.9	7,555	64.2	57,109
2003	71,378	10.4	5,506	-27.1	65,872
2004	88,855	24.5	10,234	85.9	78,621
2005.1-4월	26,413	-7.8	4,343	25.7	22,070

*자료원: 대한민국 무역협회

- 주요교역품: 한국의 수출품- 수송기계, 가정용 전자제품, 직물,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수입품- 동 스크랩, 알루미늄 스크랩 등

2. 경제동향 및 전망

< 최근 경제동향 >

2004년도 국내총생산(GDP)은 173억불 가량되며 실질 경제성장률은 4.0%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EIU 자료) 분야별 국내총생산을 보면 농업이 11.9%, 공업이 22.0% (제조업 10.3%), 서비스업이 66.1%로 나타났다.

레바논 경기는 1993년에 레바논 정부가 US\$ 200억을 들여 추진한 재건 프로젝트인 “Horizon 2000”의 착수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1994년 경제성장률은 8%, 1995년에는 7%, 1996년과 1997년에는 4%를 각각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8년부터 성장률이 둔화되어 1998년에는 1.2%, 1999년에는 -1.6%, 2000년에는 -0.6%, 2001년에는 0.8%, 2002년에는 1.5%를 기록함으로써 '98년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었다. 그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맡아오던 건설분야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서고 내수시장이 침체되면서 수입규모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9·11테러이후 Gulf국가로부터 유입된 자금이 국제수지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구미지역으로 몰리던 중동 관광객의 목적지인 중동내 유수의 휴양지인 베이루트로 목적지를 바꾸는 추세에 따라, 경제 여건이 향상되어 2003년에는 6%의 관광객 증가 및 수출 증대(2002년대비 45.9% 증가)로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였으며 2004년에는 많게는 5.0%까지 경제성장률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S & P사가 2003년 4월 24일 발표한 레바논 신용등급에 의하면 국가 경제 전망은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로 개선되었으며, 장기 신용등급은 B-, 단기 신용등급은 C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레바논의 경제성장이 둔화된 원인으로는 첫째는 정부 재정적자가 2004년말 현재 미화 약359억불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긴축재정 편성에 따른 공공 프로젝트 지출이 격감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민간부분 채무 불이행으로 건설업체, 민간병원들도 도산 또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공공부문의 대·내외 부채규모가 GDP의 177.9%선까지 도달하였고 총수요의 24%에 불과한 공공부문이 채권발행을 통해 시중은행 대출자금을 큰 폭으로 흡수함으로써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재원이 갈수록 고갈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구조 조정, 특히 공기업 민영화와 재정적자 축소부문에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민간소비에 의해 민간 및 공공투자 감소분이 어느 정도는 상쇄된 한편으로 투자위축이 경기부진을 재촉하였다.

정부는 경기 부양 정책보다는 정부 공공부문 구조 개혁, 긴축정책, 부패 척결로 대표되는 일련의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였다. 그러나 각종 정파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의사결정이 계속 지연됨으로서 통신·전력 부문 등 핵심 민영화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임 정부가 지불기로 약속한 각종 공사 및 자재 납품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면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직전 상태로 몰리고 있으며 공사발주를 대폭 줄임으로서 건설업체들이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 대외거래동향 >

2004년 12월을 기준으로 연간 총수입이 약 93억 9,695만불로 2003년 동기간 대비 약 31.1%가 증가하였으며, 총수출은 17억 4,702만불로 2003년 동기간 대비 14.6%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무역적자는 76억 4,993만불을 기록하였다.

< 대외거래지표 참조 >

2004년 1년동안 레바논의 총수출 17억 4,702만불로 주로 이라크 (15%), 스위스 (11%), 시리아 (8%), UAE (8%), 터키 (7%), 사우디아라비아 (7%), 쿠웨이트 (4%), 요르단 (3%), 미국 (3%)로 수출되었으며, 총수입은 93억 9,695만불로, 주로 이탈리아 (10%), 프랑스 (8%), 중국 (8%), 독일 (8%), 미국 (6%), 러시아 (6%), 스위스 (4%), 영국 (4%) 등에서 수입되었다.

주요 수출품목은 진주·귀금속·반귀석(30.4%)을 위시한 기계류(11.7%), 가공식품(9.8%)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무기물(16.6%), 기계류(12.2%), 화학제품(10.0%), 운송기계(9.7%) 등이다.

< 경제전망 >

지속되어온 경기침체로 2001년 0.8%, 2002년 1.5% 수준의 저성장을 지속해왔으나 2003년에는 수출증가 및 관광객 유입 증대에 힘입어 3.0%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하였으며 2004년에도 5.0%의 경제성장율을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초 발발한 이라크전의 영향으로 상반기에는 매우 저조한 경제활동 및 수입을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전후 복구를 위한 필수 자재의 수입과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국가로 농산물 등의 수출이 재개되었다.

또 중동 비즈니스맨을 중심으로한 관광객의 레바논 유입 증가로 경기가 일부 회복세를 보여, 2003년의 실질경제성장율이 3%에 달하였고, 2004년에는 5.0%를 기록하여 경제 회복세가 2005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 1년간 수출이 2003년 동기간대비 약 14.6%가 증가한 것을 비롯 수출 증대가 지속될 경우 향후 수출부문이 레바논 경제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바논 정부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 재정 적자 완화를 최대 목표로 2002년 2월 부가 가치세제를 도입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2002년 11월 Paris II 원조 공여국 회의 결과 44억 달러의 원조자금이 순조롭게 유입되는 등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거시경제측면에서 보면, 레바논 경제는 아직도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높은 실업률과 대학 졸업생 등 신규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인력들에 대한 낮은 취업 가능성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공공재정측면에서 볼 때, 공공부채가 레바논의 주요 경제위기 요인이 되고 있는데 GDP의 177.9%에 달하는 공공부채의 증가는 레바논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안 사안이다.

통화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개방적이고 달러화 집행비율이 높은 경제체제에서 특히 중장기적인 외부 경제의 압력으로부터 레바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사항인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확보함으로써 경제적 자신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 이러한 경제적 자신감의 확보가 이자율 하락뿐만 아니라 자본 유입의 증대 및 국제수지 흑자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재정적자의 해소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조치들로서 Paris II회담에서 시행을 약속한 민영화등 경제개혁을 위한 추진사항들이 적시에 추진되지 않음으로써 중기적으로 레바논 경제는 높은 이자 부담등 값 비싼 댓가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레바논 경제발전에 있어 주요 저해 요인인 공공부채의 감소를 위해 IMF측은 공공비용의 감소, 특히 수송분야와 공공행정에서의 낭비 요소 제거 및 보건과 사회보장제도 부문의 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공공수입측면을 보면, 레바논 정부는 VAT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세금 징수액 증대 및 행정적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공공부채의 감소를 위해 현재 레바논 정부가 추진중인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민영화 진행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개혁,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해 온 이동통신, 발전 설비, 공항, 통신 시설 등에 대한 민영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데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리리전총리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정책 결정의 신속성,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있어 2005년도 및 이후 경제는 다소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종파간의 권력 안배 문제 등이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현 대통령의 3년 임기 연장과 하리리전총리 암살에 따른 정치적인 변화에 대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 신용기관 등의 평가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 해 경제성장이 다른 부문에서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 관광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경제발전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게 하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EIU등 국제 경제연구기관에서는 2005년도 레바논의 경제성장률을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인 4.5% 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가 하리리 전총리 암살사건이후 정치적 혼란과 경제 침체로 2.0%로 하향 조정하였다.

3. 한국과의 무역관계

1. 한-레바논 무역관계

우리나라는 1970년 초 주레바논 통상대표부를 설치한 후 11년째 되던 지난 1981년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84년 내전 악화로 철수한 바 있으며, 1995년 9월 주레바논 대사관을 재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레바논은 대외적으로는 남북한 중립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對중동 진출을 높이 평가하는 등 경제적으로는 매우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1995년 국산 자동차 진출을 계기로 우리나라 상품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1997년5월 하리리 당시 총리가 방한하는 등 경제교류 협력에 대한 의지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레바논의 경제 여건이 침체를 지속하고 있어 양국간 교역 및 투자협력은 양국 경제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2. 교역규모

농산물 이외에는 이렇다할 수출 상품을 갖지 못한 레바논은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있어서도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는 US\$ 8,885만불을 수출하고, US\$ 1,023만불을 수입하였는데 우리나라 상품이 레바논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하다. 전통적으로 유럽산을 선호하는 레바논은 이태리,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4개국으로부터 약 30%를 수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액은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일본에 이어 3위에 랭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레바논에 대한 수출은 승용차 수출이 본격화된 '95년도에 US\$ 1억3,100만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레바논의 경기부진과 두바이, 암만 등을 통한 우회수출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 11월 레바논 정부가 IMF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세율을 인하하고 대신에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자 새로운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기 전까지 사전 재고 확보를 목적으로 2001년중에는 수입이 크게 확대되었다. 반면 2002년 2월에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되면서 레바논의 총 수입이 2002년도에는 11.6%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수입 감소를 보였으나 2003년부터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레바논 교역은 2002년에는 수출 US\$ 6,400만, 수입 US\$ 700만, 무역수지는 US\$ 5,700만의 흑자를 보였으며, 2003년에는 수출 US\$ 7,100만, 수입 US\$ 550만으로 무역수지는 US\$ 6,550만의 흑자를 보였다. 2004년에는 수출 US\$ 8,885만, 수입 US\$ 1,023만으로 무역수지는 US\$ 7,862만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3. 교역품목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영상기기, 합성수지, 냉장고, 가정용 회전기기, 철강판 등이며, 레바논으로부터의 수입품목은 동 및 알루미늄 스크랩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2001년도에는 자동차 배터리 등의 수출이 일시적으로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는 이라크 등 인근국 재수출 증가에 기인하였다. 직물도 관세 인하이후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이전시점까지 재고 확보를 위한 목적의 사전 수입이 이루어져 큰 폭의 증가를 보인 바 있다.

자동차등 수송기계는 2002년까지 수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3년 이후 수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2003년 동기 대비 139.2%가 증가하였다. 특히 중고자동차는 그간 중고 승합차 및 중고 트럭의 수입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2002년 중 3차례에 걸쳐 단행된 Diesel Ban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운행 금지조치)으로 수입이 거의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가정용 전자제품은 월드컵 특수품목인 컬러 TV, VCR 및 에어컨이 호조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간판 상품의 레바논내 시장 점유율은 컬러 TV가 15%, 에어컨 10%, 주방용품 7%, 냉장고 7% 등으로 가전분야에서 약간 높은 편이며, 승용차 13%, 승합차 2%, 자동차부품 7%, 타이어 9%, 직물류 8%, 핸드폰이 10%대를 보이고 있다.

4. 현안사항

레바논에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지상사가 전무하며 시공중인 건설회사도 없다. 레바논 내전 발발(1975년)이전에는 상사, 은행, 항공사 지점 등이 대거 진출했었으나 내전이 격화되면서 속속 철수한 후 아직까지 사무실을 재개설한 기업들은 없으며(LG전자 지점 개설추진중), 대부분 인근 UAE나 요르단 주재 아국 지·상사가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보호협정 체결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무역협력협정 체결 등이 현안사항으로 검토중이다. 이의 일환으로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2005년 1월 27일에 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을 체결하였다. 이는 양국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경제협정으로서 국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이 되면 양국간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바논 입장에서는 무역적자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서도 무역적자에 놓여있으므로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상공회의소등 유관기관에서는 이 문제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농산품 이외에는 경쟁력을 지닌 적절한 수출 상품이 없는 실정이다.

5. 국제입찰 응찰제한 해소

우리나라 제품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관세·비관세 장벽이 없는 편이다. 일부 우리나라 업체가 레바논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시 응찰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입찰 시 “유럽, 미국 및 일본산 제품”으로 응찰 자격을 한정시킴으로서 한국 업체의 참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발주처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한국 업체의 응찰을 제한했다기보다는 입찰프로젝트의 재원을 외부원조자금에 의존할 경우 자금원측의 요구에 의해 응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입찰 서류를 작성하는 컨설턴트나 엔지니어들이 과거의 관행에 따라 입찰서를 작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사관 및 KOTRA무역관에서 협력하여 주재국 정부등 공식채널을 통해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업체들이 무역관등과의 협력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응찰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건설공사의 경우 한국 업체라는 이유로 응찰 자격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다.

4. 한국과의 투자관계

<한국과의 투자관계>

2005년 4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대 레바논 투자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중인 투자 프로젝트도 없다.

[표] 투자 통계 : 해당사항 없음

레바논 내전기간중 아국업체의 철수 이후 韓 - 레바논간 기업 진출 및 투자 협력 관계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2005년 1월 27일에 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을 체결하였다. 이는 양국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경제협정으로서 국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이 되면 양국간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협약으로 레바논 정부는 한국측의 앞선 기술을 토대로 노하우의 전수와 더불어 전문 트레이닝코스를 구성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국 기업으로서 레바논의 유망 분야를 선정, 이라크, 시리아 등 인근 시장을 포함한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투자를 검토해 볼 만하다. 다만 주변 시리아 등에 비해 인건비가 높고, 발전용량과 전력공급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전력 인프라스트럭처가 미비되어 있으며, 인터넷 환경도 아직은 전화 다이얼업에 의한 송수신 속도에 머무는 등 경제 활동상의 인프라스트럭처 면에서의 유/불리점을 면밀히 고려한 보다 장기간을 두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망된다.

또한, 레바논 시장이 인구가 400만 정도로 크지 않고 국토 면적도 약 1만km²에 불과하다는 등 시장의 협소라는 제약이 있으며 전반적인 경기침체 현상에 따라 염가의 중국산 등이 범람하고 있는 시장여건을 감안할 때, 현지 투자는 일반적인 제조업분야에서의 투자보다는 기술 집약적인 소비재 분야에서의 투자가 보다 유망하다.

레바논 투자청(IDAL)은 투자법을 개정하고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노력중이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력공급 사정, 인건비 등 제조인프라가 인근국에 비해 열악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레바논 투자청은 one-stop service를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는 www.idal.com.lb 이다.

5. 수입규제 사례

<수입 규제 사례>

현재 규정상 수입 규제 및 차별적 제한 조치는 없다.

레바논 내무부 및 국방부에서는 과거 공공구매 입찰시 참가 가능 국가를 ‘ 미국, 일본 및 유럽 ’에만 제한하여 입찰에 응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규정상 제한은 없으며, 다만 공공구매 입찰 등의 경우 통상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나 혹은 관련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프로젝트 자체의 설계나 관련 소요 물품의 스펙을 정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 경우 관련 담당자가 특정 기업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여 담합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한편, 한국산의 경우 과거 한국산 불량 군복 납품으로 인한 나쁜 이미지때문에 한국산에 대한 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다.

6. 현지 히트상품

< 레바논 시장 유망 품목 >

- 전자통신장비 : ADSL 및 인터넷 관련장비, 통신용 각종 케이블, 위성수신기, 핸드폰
- 발전설비/송·배전설비 및 관련제품 : 변압기, 계량기, 전압계 및 전류계, 케이블 등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벨트, 필터, 브레이크, 자동차용 배터리 및 부품, 중장비 및 자동차 정비기기
- 유압브레이커, 굴착기 등 건설장비 및 부품
- 전자제품 : 핸드폰, 에어컨, TV, DVD 및 기타 소비재 가전제품, LCD 모니터, 게임기 및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 (MP3, USB)

- 산업용 원자재 : 철강제품 (Galvanized Steel Sheet, Pipe 등), P.E. / P.P. Resin 등 플라스틱 원료
- 의료용품 : 의료기기, 치과재료, Disposable Syringe 등 일회용 의료용품
- 기타 중소기업형 수출유망상품 : 정수기, 광학기기, 안경테 및 선글라스, 보안장비, 섬유직물(담요, 폴리에스터 직물), 전화기, 전기제품, 난방기기, 전기담요, 주방용구, 계측기기, 문구류(필기구, 사무용 소모품 등), 냉동설비, 식품가공기계 및 호텔관련 용품, 가정용 소비재, 공조기기, 운반하역기기, 재생 직물, 여성용 의류, 아동용 의류, 스포츠 레저용품, 금/신변장신구 등.

< 현지 히트 상품 >

1. 휴대폰 및 휴대폰 액세서리

레바논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품중의 하나는 휴대폰과 자동차이다. 휴대폰은 최근 몇 년간 수요가 가장 급성장한 품목중의 하나로 각광 받는 품목이다.

우선 레바논은 유선전화의 급격한 낙후되어 있어, 무선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간 공중전화의 전무한 상태였으나 '1998 plan'의 일환으로 레바논 정통부는 2004년내에 총 4,000대의 공중전화를 전국에 설치 계획이었으나 2004년말 2,713개만을 설치 완료하였다. 그러나 공중전화의 설치가 무선 휴대폰의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96년 UNDP 통계에 의하면 레바논은 인구 1,000 명당 149명이 휴대폰을 소지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매년 수요가 급신장하여 레바논 총 인구 중 산업생산인구의 상당수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곳에서 잘 팔리는 휴대폰은 ERICSON, NOKIA사의 제품 등이 있다. 한국은 삼성 GSM- 600, GSM-800에 이어 카메라폰 Free SGF-V200C모델이 시장에 출시되어 접는 소형 휴대폰에 고급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다. 아직 시장점유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레바논은 높은 소비 성향을 반영하듯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레바논은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무선전화 송신기술인 CDMA방식과는 달리 GSM방식을 사용, 유럽형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향후 아국의 휴대폰 및 휴대폰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통신시스템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의 시장진출이 요망된다.

2. 자동차 부품

레바논에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이 없고 일반 버스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며 도로의 대부분이 일방통행이고, 횡단보도가 많지 않아 보행자의 도로 이용이 용이치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자가용 없이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움으로 자동차 및 부품 수요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내전으로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자동차는 빈부를 막론하고 생활의 필수품인 관계로 자동차 소모품인 각종 부품류의 수요도 많으며 열악한 도로 사정도 자동차 소모품 수요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산 자동차는 품질과 가격면에서 비교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시장점유율이 회복 추세에 있으며 수입산중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는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 레바논에서는 자동차의 기계적 성능검사가 강제조항으로 적용되지 않았으나, 2004년 1월 2일부터 자동차 강제 정기검사 제도가 채택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 자동차 검사는 주로 주요 기계적인 문제나 일반적 도로 주행 능력, 환경 유해물질 배출(배기가스 중 일산화탄소는 4.5% 이하 여야함), 휠, 브레이크, 연료누출, 반사경, 전조등 등을 검사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간 레바논내에서는 자동차 성능에 대한 강제 조치가 없어 차량의 전후 조명등이 없거나 자동차 범퍼가 없는 차량이 운행됨으로써 차량은 움직이는 흉기로서 작용해왔다. 레바논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150만대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성능의 낙후로 매연등 공해의 주범이 되어왔으며 잦은 고장은 교통체증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레바논 정부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강제함에 따라 많은 중고자동차가 성능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마모된 부품의 교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당분간 자동차부품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경기위축에 따라 중고부품이 선호되고 있다. 또 정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 성능검사 기계 등의 도입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04년에 자동차부품수입은 2003년보다 31.5%가 증가하였다.

7. 진출 성공/실패사례/진출 성공, 실패 사례

< 에이전트쉽 설정에 각별히 유의해야 >

중동시장의 상관행상 초기 거래시 독점 에이전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바이어 입장에서 초기 유망 품목을 특정 업체로부터 수입한 후 여타 바이어가 경쟁적으로 수입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지만 수출하는 국내업체 입장에서 바이어의 마케팅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에이전트쉽을 줄 경우 자칫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품목에 따라 최소한 6개월이상 테스트한 후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A/S가 필요하거나 홍보가 필요한 품목, 정부 입찰 참가의 경우 등은 에이전트를 지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레바논 법원은 에이전트쉽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제소된 크리스찬 디오르 제품에 대한 가압류 및 판매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947년이래 독점 에이전트쉽을 보유한 Amatoury사는 크리스찬 디오르사가 에이전트쉽을 무시하고 다른 레바논 업체인 Sonodis 사를 통해 향수 및 화장품을 판매토록 했으며 500만 달러의 손해 배상 청구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사건으로서 레바논에서는 일단 독점 에이전트쉽을 부여했을 경우 계약기간내 타 업체를 통해 제품 판매를 시도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바이어의 마케팅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성급한 에이전트쉽 제공으로 국내업체 중에도 애로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바이어가 현지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비고의로 관련 시장에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95년 H 건설이 현지 공사 수주시 부적절한 에이전트 및 하청업체 선정으로 공사지연 및 소송발생 사례도 있다.

2002년초 레바논 정부는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독점 에이전트법안의 폐지를 골자로하는 법안을 국회로 이관하였으며, 국회 법사위는 독점 에이전트법을 2004년 1월부로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한 상태로 계류중에 있다. 동 법안이 통과, 발효될 경우 레바논 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독점 에이전트를 선정해야 할 필요는 없어졌으나, 일단 에이전트를 선정하면 그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종전과 동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인근 아랍국가 중개무역의 이점을 활용>

레바논 비즈니스맨들은 넓은 인맥을 활용해서 인근 중동 국가 및 아프리카지역에서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수행한다. 따라서 레바논 시장만 보고 협소하다하여 진출을 꺼릴 이유는 없다. 또 쉽사리 구매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가격에도 까다로와 거래대상으로 기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레바논 비즈니스맨과의 우호적인 거래 상담이 인근 다른 국가까지 수출기회를 제공하는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국내 모 렌즈업체가 현지에 출장하여 수입업체와 상담을 했는데 당시에는 계약이 되지 않았으나 국내업체가 샘플을 꾸준히 보내주니 한 달쯤 지나서 수입업체가 그동안 품질을 테스트해본 결과 만족한다면서 자기가 잘 아는 업체가 시리아와 요르단, 두바이에도 있다면서 이들 업체들의 주문 물량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기대이상의 물량을 주문한 적이 있다.

< 통관 절차가 까다롭다 >

의약품이나 의료용 소모품 수출시 제조일자, 유효기간을 표기치 않거나 자동차 부품 수출시 제품 겉면에 원산지 표기를 하지않아 통관이 거부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바 통관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클레임을 제기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소량 다품종에 적극 대응해야 >

레바논 시장은 인구 400만명으로 비교적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시에 대량 구매가 용이치 않다. 바이어들은 소량 다품종 구매를 선호하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한 만큼 대량 재고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국내 업체는 일시에 큰 물량이 주문되지 않았다고 기피할 것이 아니라 소량 물량에도 성실하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할 경우 좋은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8. 주요이슈/레바논 전후 복구공사

1. 전후복구사업

CDR(The Council for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은 '75 - '76년도 레바논 내전이 끝날 무렵 전후 복구공사를 총괄하기위해 1977년1월말 창설되었으나 그 동안 산발적인 내전 지속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1992년부터 당시 Hariri 총리에 의해 명실상부한 공공 공사 발주 전문기관으로 재탄생하였다. CDR은 각 정부 부처의 위임을 받아 공사 발주, 자원 확보, 집행 및 사후 감독까지 총괄하는 막강한 기구로서 원조 차관등 외국 자본의 도입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므로 전후 복구 공사기관의 대명사로 불린다.

CDR이 추진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Horizon 2000' 이라는 13년짜리 장기 프로그램 (1995-2007)의 핵심이었다. 'Horizon 2000' 은 전쟁으로 파괴된 모든 인프라 시설과 경제·사회 각 부문을 재건하기위해 '91년 말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다가 '94년 초 수정되어 13년짜리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91년1월 CDR 이사회가 구성, 컨설턴트그룹 (Bechtel Int'l과 Dar Al Handasah 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도움으로 장기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동 추진계획은 다음 3단계로 구성되었다.

- 5개년 복구계획: '93 ~ '97, 전쟁 전의 경제·사회·제도적 기본 골격 복구
- 5개년 전후회복계획: '96 ~ 2000. 내전으로 파괴된 인프라 재건
- 장기경제개발계획: ~ 2010. 희망적인 국가발전을 이룰 균형 성장의 기본 골격 제공 및 레바논을 중동 및 세계적 상업 중심지로 변모 추진

공사 발주를 위해 확보한 총외자는 US\$ 42억 5700만으로서 제공기관 및 국가별로는 IBRD 17%, AFESD 12%, EIB 12%, 이태리 10%, 프랑스 6% 및 SFD 6%, KFAED 6% 등이다.

외자 사용처별로는 전력 부문이 30%로 가장 많고, 이어서 수자원 공급 11%, 하수 처리 9%, 도로 개·보수 7% 순서다.

2000년이래 하리리 정부는 재정 적자 누적으로 공공 공사 발주규모 축소가 불가피하였고 따라서 신규 공사발주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의 자금지원(파이낸싱)이거나 B-0-T, B-0-0-T공사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정부가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공사는 대부분 보류된 상태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대건설과 극동건설이 변전소 공사와 상수도 공사에 각각 참가하여 시공을 끝내고 '97년 철수한 상태이며 현재 공사에 참여중인 국내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2. 공공부채 감소

공공부채는 2004년 12월 현재 359억불로 총 GDP의 185%에 육박하고 있어 정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민영화를 통한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2002년 11월 파리클럽을 통해 긴급자금 지원을 받아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 인력 감축도 종파별 안배 전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자 공기업의 민영화와 재정적자 감축이 최대 이슈이다.

3. Lahoud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총선으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정치 상황

레바논 국회는 2004년 9월 4일(토) 오후 6시에 개최된 임시국회에서 재적의원 128명 중 96명의 찬성과 3명의 기권 그리고 29명의 반대라는 압도적 표차이로 헌법 제 49조를 수정함으로써 2004년 11월 24일 만료 예정이던 에밀 라후드 현대통령의 임기를 2007년 11월 24일까지 3년을 연장하였다.

레바논 헌법 제 49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확정짓고 현임 대통령의 연임이나 임기의 연장을 금지한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 본인은 개헌 1주일전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정가의 최대관심은 라후드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 여부와 유지시 그 방법이 예외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재임을 허용하느냐 혹은 임기의 연장을 추진하느냐에 집중되어 왔다.

그간 경제 및 언론의 각종 보도와 루머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라후드대통령은 2004년 8월중순 비로써 국가와 상황이 필요로 한다면 자신은 책임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간 오리무중이었던 정국은 이후 급속한 움직임을 보여 8월 28일(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임기연장안이 급거 상정 통과되었으며 엿새만인 9월 3일(금) 국회에서 헌법이 개정되었다.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언론은 지속적으로 레바논 대통령 및 정치상황은 시리아 최고 권력층의 의지가 반영된다고 보도하였다. 미국 등은 시리아로 하여금 레바논의 자주독립주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왔다. 마침내는 미국 및 프랑스 등은 공동발의로 유엔결의안 제 1559호를 2004년 9월 2일 통과시킨 바 있으나 동 결의안이 통과된 하루만에 레바논 국회는 현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였다.

에밀 라후드 대통령의 임기연장이 확정된 후, 드루즈파의 실질적인 리더인 줌블라트 계열의 3인을 포함한 총 4인의 장관이 사임을 함으로써 정치상황이 매우 유동적으로 변화했다. 여기에 국외에서는 미국 및 프랑스 주도의 유엔 결의안 1559호가 채택되고 이후 서방의 대 레바논 압력이 고조됨으로써 총리의 사퇴를 통한 전면적인 개각이 대통령 임기 만료일인 11월 25일을 전후해서는 단행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2004년 10월 21일에 단행된 개각에서는 일반 예상을 벗어나 하리리 총리가 새로운 내각의 총리로서 다시 지명되지 않고 보다 친 시리아 성향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는 Karami가 후임 총리로 지명되었고 신규 내각명단이 난산끝에 10월 26일 발표됐었다.

이 내각 구성을 위해 라후드 대통령, 베리 국회의장 및 카라미 총리지명자 3인은 총 5일간에 걸친 기나긴 협의를 통해 어렵게 이를 완성해 발표했으나,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이를 시리아의 부적절한 영향력이 개입되고 있다고 혹평했고, 국내에서도 정파별 안배와 지역별 대표성에 적절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 해 하반기부터 많은 정치인들이 총선에 몰두하고 있어 국가의 경제현안이 장기적 비전을 지니거나 체계적으로 처리되지 못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하리리전총리의 암살 사건이 발생하였다.

4. 하리리전총리 암살

2005년 2월 14일 오후 현지시각 12시 55분경(한국시각 19 : 55) 현재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시 Beirut Central District 인터컨티넨탈 호텔 인근에서 약350kg의 폭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을 지나가던 Raffic Hariri 전 총리가 사망하였다.

하리리사후 정확한 진상 규명과 현 정권의 전원 퇴진, 시리아군 철수를 내세우며 매일 반정부 반시리아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앞서 언급한 카라미내각은 통사퇴를 하였으며 아직 차기 내각이 구성되지 않았다.

한편, 하리리 전 총리의 암살로 외교 및 경제적인 면에서의 레바논의 국가적 손실을 우려하는 견해도 많다. 하리리 전 총리는 국제적으로 매우 폭 넓은 친분관계를 활용해 레바논의 어려운 경제 및 정치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헌해 왔다.

이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 사우디 왕가,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등과 개인적으로도 매우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그의 상실이 국가에 미치는 손실을 우려하는 견해도 높다.

더구나, 하리리 총리는 전후 레바논경제의 회복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의 추진과 특히 Beirut Central District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급격한 유입을 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레바논 정부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조성될 경우 관광객의 유입감소 및 경제의 침체기 재진입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번 폭탄사고가 레바논의 4월말 혹은 5월초로 예정된 총선, 미국의 시리아 등 외국의 영향력 행사증지 압력, 팔-이스라엘간 평화회담 추진에 대한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내 반발 등 여러 가지 국제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어떻게 레바논 정세가 변화될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9.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비자>

2004년 8월 31일 발표에 따라 2004년 9월 1일부로 레바논 입국시 사전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레바논 공항 및 기타 국경에서 입국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이 가능하다. 단, 단기관광비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취업목적의 방문시는 사전 비자가 필요하다.

48시간 내 출국시에는 비자수수료가 면제되는 트랜짓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2003년 11월 1일 이후 비자발급시 72시간부터 1개월미만 체류 시 2만5천 파운드(17달러), 1개월부터 3개월미만 체류 시는 5만 파운드(34달러),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복수비자를 발급 받을 경우 10만 파운드(68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한편, 1회 입국시 3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며 그 이상 체류시에는 거주허가를 얻어야 한다. 비자연장 신청은 the National Museum (al mat-haf) 근처에 있는 the General Security Office(the amn al aam)에서 신청하면 된다. (Tel: 01-425610)

<출입국 절차>

한국 국적에 대해서는 출입국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동남아 국가들은 저임근로자 대량유입으로 출입국이 까다롭고 연간 취업비자 갱신비용도 1,000불 정도 소요된다.

신고물품이 있을 경우에만 세관 검사대를 거치며, 그 외에는 대부분 세관 검사 없이 통관을 한다. 세관 검사가 느슨한 편이므로 샘플을 지참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세관 검사대를 거칠 필요는 없다. 단, 세관원이 임의로 선택하여 과세물품을 적발시에는 관세를 납부하던가, 카르네를 제시하면 검수 절차를 거쳐 반출 가능하다.

레바논 입국 시 면세 허용은 술 2 병과 담배 500g (담배 400 개피 또는 시가 20 개)이다. 개인 소지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으며 외국환이나 자국 화폐를 가져오고 나가는 데에는 제약이 없다.

<출입국 유의사항>

소지하고 있는 여권에 이스라엘 출입국 스탬프가 찍혀있을 경우에는 아랍보이콧 적용으로 입국이 불가능하다.

<관세>

레바논 입국시 면세 허용은 술 2병과 담배 500g (담배 400개피 또는 시가 20개)이다. 개인 소지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으며 외국환이나 자국 화폐를 가져오고 나가는 데에는 제약이 없다.

10. 환전

- 화폐단위

화폐단위는 레바니즈 파운드(Lebanese Pound)로서 'LBP'로 표기하며 약칭은 파운드로 불린다. 통상 'LBP' 대신 레바니즈 리라(Lebanese Lira)의 약자인 'LL'를 사용한다. 파운드 이하의 화폐단위는 없다.

지폐로는 10만, 5만, 2만, 1만, 5천, 1천 등 6종류가, 동전으로는 500, 250, 100, 50파운드 4종류가 있으나 500 파운드 이하의 동전은 거의 통용되지 않고 있다. 500파운드 미만은 은행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절사하거나 절상하여 계산한다.

미 달러화 사용율이 70%를 육박하고 있어 어디서나 달러화의 통용이 가능하다.

지불 방법은 현금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수표와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하며, 현금 자동 지급기도 널리 보급되어 있다.

- 환율

기본적으로 자유 변동 환율제도를 표방하고 있으나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환율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현지화가 고평가되어 있으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현지화(LL) 對 달러화 평균환율 (LL:\$)

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5월
년평균환율	1,507.5	1,507.5	1,507.5	1,507.5	1,507.5

자료원: Economic Intelligence Unit

현금이나 T/C나 환율 차이는 거의 없다.

- 환전

환전은 공항, 호텔, 은행 또는 거리의 환전소에서 할 수 있으나 환전소 환율이나 시중에서 통용되는 환율에 차이가 미미하여 환전에 따른 실익이 없는데다 심지어 시골 영세가게에서도 달러貨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으므로 굳이 환전할 필요성이 없다.

레바논의 총 금융자산에서 달러貨가 차지하는 비율(Dollarization)이 77%를 상회할 정도로 미 달러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환전시 여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쓰고 남은 현지화는 공항에서 재환전 할 수도 있다.

- 신용카드 및 여행자수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마스터 카드, 다이너스 클럽 인터내셔널, 비자카드 등이 사용가능하며 여행자 수표도 이용할 수 있다.

11. 기후

<기후 특성>

레바논의 기후는 온대기후의 일종인 지중해성기후(온대하계건조기후)로서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건기는 4월초에 시작하여 10월말까지 지속되며 우기는 10월말에 시작되어 4월초까지 계속되며 년중 약 300일 가량의 맑은 날을 기대할 수 있다.

베이루트의 일조시간은 연평균 3,000시간에 달하며, 지중해변 저위도의 여름평균 기온은 26.7℃ 이고 겨울 평균기온은 10℃이다. 그리고 베이루트의 연평균 기온은 20.7℃이고, 베카계곡의 연평균기온은 14.7℃이다. 한편, 베이루트근교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29~32℃, 겨울철은 16~19℃이나, 해발 1,000m이상의 고지대의 경우에는 겨울철에 0℃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빈번하여 눈이 많이 내린다.

[표] 베이루트의 월 평균기온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온 (℃)	13.4	14.0	15.7	18.5	21.8	24.9	27.1	27.8	26.4	23.8	19.5	15.6

자료원: Ministry of Tourism, Lebanon

연평균 강수량은 지중해 연안지역이 700~1,000mm, 베카계곡 지역은 635mm, 그리고 Mount Lebanon지역은 1,400mm이다.

매년 2월부터 4월사이에는 한국의 황사와 같은 모래폭풍이 불어온다.

<출장시 추천복장>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산악 고지대(해발 1,000m 이상)를 제외하고는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없으며 10-15℃ 정도이고 여름철에는 고온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므로 하복 차림이 적당하다. 겨울철은 우기에 해당되므로 우산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사계절 모두 햇살이 강해 선그라스가 필요하다.

12. 공휴일/레바논 공휴일

<레바논의 휴일 지정방식>

레바논의 공휴일은 정부가 범국가차원의 기념일로서 지정한 국가공휴일(Official Holiday)와 종교와 관련한 종교휴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는 신년, 노동절, 순교자의 날, 남부레바논 해방기념일, 독립기념일 등 5일을 범국가차원의 공휴일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년 동일한 날자가 휴일이 된다. 반면, 종교 휴일은 크게는 기독교,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대략 18개 정파가 공존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종교별 휴일이 존재하며, 이중 중요한 종교휴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공식 휴일로 공포하게 된다.

종교 휴일은 통상 종교단체의 자체적인 날짜계산방식을 따르게 되므로 매년 다르게 나타나며, 사전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휴일 당일에 임박해서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종교 휴일도 정부가 공식 선포하는 공휴일로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주요 기관/단체가 휴무하며 민간기업도 관례적으로 다른 종교의 휴일도 공휴일로서 지킨다.

다만, 이는 종교적 믿음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민간기업이 반드시 휴일로 지켜야할 의무는 없으며, 일부 특히 영세 기업에서는 자기가 속하지 않는 다른 종교의 휴일에는 정상 근무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다양한 종교, 종파가 혼재하는 레바논에서는 어느 한 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휴일과 중복될 경우 휴일 날자수가 서로 균형을 잃어 해당 종교계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통상 그 다음 날을 휴일로 지정해서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2005년도 레바논 휴일]

- 국가공휴일(Official Holiday)

1월 1일	신년 (New Year's Day)
5월 1일	노동절 (Labor Day)
5월 6일	순교자의 날 (Martyr's Day)
5월 25일	남부레바논 해방의 날
11월 22일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

- 종교 휴일(Religious Holidays)

1월 6일	Epiphany Day (아르메니안 크리스마스)
1월 21~23일	희생절 (Eid El-Adha) *

2월 9일	마론기념일 (St.Maroun's Day)
2월 10일	헤지라 신년 (Moslem New Year) *
2월 19일	이슬람 순교자의 날 (Ashoura) *
3월 25일	Good Friday (카톨릭, 마로나이트) **
3월 28일	부활절 EASTER MONDAY (카톨릭, 마로나이트) **
4월 21일	마호메트 탄신일 (Mawlid Al-Nabi) *
4월 29일	Good Friday (Orthodox)**
5월 2일	부활절 EASTER MONDAY (Orthodox)**
8월 15일	성모승천일 (Assumption Day)
11월 1일	성인축일 (All Saints Day)
11월 3~5일	라마단 휴일 (Eid El Fitr, 3일간) *
12월 25일	성탄절 (Christmas Day)

※ 위의 종교휴일중 * , **표시일은 해마다 휴일이 변경된다.

<출장 지양기간>

라마단 기간 중에는 레바논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슬람교도가 금식하고 있고 근무시간도 짧은 편이어서 가급적 출장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2-5월중에는 각종 종교 휴일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출장에 앞서 휴일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3. 시차/근무시간/시차, 근무시간

<시차>

3월 마지막주 토요일 밤 24시 ~ 10월 마지막주 토요일 밤 24시: 한국시간-7
10월 마지막주 토요일 밤 24시 ~ 3월 마지막주 일요일 밤 24시: 한국시간-6

<근무시간>

학교를 제외한 관공서, 일반 직장은 대개 주 6일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여타 중동국가와 달리 토요일 오전 근무, 일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 관공서 근무시간

월-목: 오전8시~ 오후 2시
금요일: 오전 8시~ 오전 11시
토요일: 오전 8시~ 오후 1시

- 은행창구

월-금: 오전 8시 30분~ 오후 2시 (간혹 오후 3-4시까지 근무하는 곳도 있음)

토요일 : 오전8시 30분~ 정오12시

그러나 일반 직장의 경우 평일에는 오전 8시에 시작하여 오후 4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가 근무시간이나 직장에 따라 토요 근무제를 없애는 대신 평일 근무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연장하는데도 많은 편이다.

무슬림들은 금요일 오후에 예배를 위해 휴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타 중동국가에서 실시하는 오침시간은 없다.

14. 호텔

<비즈니스호텔>

레바논에는 300여개의 호텔이 있는데 이 가운데 60%이상이 베이루트와 Mount Lebanon에 있다. 6 - 7개의 국제 수준의 호텔과 4-star급 호텔이 있으나 중간 가격대의 호텔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베이루트와 그 주변 지역에는 Furnished Apartment가 있어 이용 가능하다.

KOTRA 베이루트무역관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세일즈 출장자들을 위해 희망하는 호텔 등급에 따라 40-50% 할인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다.

- 무역관 추천호텔

호 텔 명	위 치	전화번호	가 격 (\$)
Commodore Meridien	공항에서 15분거리	01-350400	조식포함
			\$78/싱글룸 *
Holiday Tower	Dbayeh 507 center, ABC백화점에서 쥬니에쪽 500m	04-542990/3	조식포함
			\$60/싱글룸 *
Marriot Hotel	공항에서 10분거리	01-840540	조식포함
			\$80/싱글룸

*는 무역관 할인 요금임

<주요 호텔>

전국적으로 약 20,00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약 4,000 개가 3-star급 이상의 중·고급 호텔이다. 요금은 지역과 등급에 따라 다양한 편인데 특급호텔은 평균 \$160 - \$200, 중급호텔은 \$80 - \$160 수준이다.

호텔명	위치	전화번호	가격(\$)
Inter-Continental Hotel	공항에서 20분거리 특급호텔	01-369280	\$180/싱글룸 (\$115*)
Bristol Hotel	공항에서 20분거리 5-star호텔	01-351400	\$100/싱글룸*
Summerland Hotel	공항에서 10분거리 특급호텔	01-858000	\$200/싱글룸
Carlton Hotel	공항에서 20분거리 4-star호텔	01-800240	\$120/싱글룸
White Tower Hotel	공항에서 30분거리 3-star호텔	01-878140	\$85/싱글룸

*는 무역관 할인 요금임

※ 보다 상세한 호텔정보는 무역관 홈페이지 호텔정보 참고 요망.

15. 식당

중동국가 중에서도 레바논 음식은 청결하고 맛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통상 10-15가지 반찬을 주문하며 풀코스를 거치는데 약 2시간이 소요된다. 식비는 매우 비싼 편이다. 프랑스, 이태리, 일식, 중국식 등 세계 각국의 식당이 있으나 한국식당은 없다.

<레바논 식당>

식당명	위치	전화번호	상세 정보
AL MIJANA	Achrafieh	01/328082	고급 전통식당 \$35선/1인
ARABI	Hazmieh	05/455260	고급 전통식당 \$25선/1인
BURJ EL HAMAM	Antelias	04/405325	고급 전통식당 \$35선/1인
MHANNA	Antelias	04/403636	베카스타일 전통식당 \$30선/1인
Istambouli	Hamra	01/354398	전통식당
SULTAN IBRAHIM	Antelias	04/402997	생선요리 전문, 일인당 \$40/1인

<일식당>

베이루트 및 근교에 걸쳐 약 10여개의 일식당이 영업 중이며 쓰시바, 니폰마루 등이 무난하다.

식당명	위 치	전화번호	상세 정보
SUSHI BAR	Achrafieh	01/337888	현지인 경영, 현지 요리사. \$35/1인
니폰마루	Jounieh	09/915393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하며 가격 무난한 편임
sushibento	Achrafieh	01/203402	www.shshibento.net
MICHIKO	Riviera Hotel	01/602273	일본인 요리사. \$40선/1인
shogun	Down Town	01/982900	\$15-80/1인
스쿠지	Down Town	01/984984	부페. \$25/1인. 이태리 음식도 가능

<중국식당>

베이루트 및 근교에만 7개 중국식당이 영업 중이며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한 중국식당은 매우 고급 식당으로 간주된다.

식당명	위 치	전화번호	상세 정보
Summer Place (메트로폴리탄호텔內)	Sin el Fil	01/496666	북경오리를 잘하며 중국식당 중 가장 양호. 중식 \$20, 석식 \$35정도/1인
CHINA GARDEN	Jal el Dib	04/721777	비교적 음식수준이 높음. \$35/1인
Little China	Achrafieh	01/215557	\$7-10/1인
Chopsticks	Sin el Fil	01-510955	\$5-10/1인

<기 타>

식당명	위 치	전화번호	상세 정보
AL DENTE	Achrafieh	01/202201	고급 이태리식당. \$35/1인
AU PREMIER ETAGE	Vendome Hotel	01/369280	고급프랑스식당. \$40/1인
LE CIGALON	La Cigale Hotel	04/418324	인터내셔널 식당. \$40/1인
EL MOLINO	Byblos	09/541555	멕시코 식당. \$20/1인
Sydney ' s	Vendome Hotel	01/369619	프랑스 식당. \$40/1인

16. 교통/통신/교통,통신

<한국과의 항공편>

서울-베이루트간 직항편은 없으므로 카이로, 두바이, 카타르 등 걸프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이나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파리, 이스탄불,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 경유 노선을 선택해야 한다.

KLM, 루프트한자 등 유럽 노선을 이용할 경우 10-11시간 트랜짓 대기시간이 있다. 대한항공은 카이로-두바이 경유 서울 노선 이용이 가능하다. 중동 노선을 경유할 경우 케세이퍼시픽, 걸프항공을 이용하여 두바이를 거치거나, 카타르항공을 이용 도하를 거쳐 베이루트에 도착할 수 있다. 트랜짓 및 대기시간을 제외한 순수 비행시간은 유럽노선의 경우 약 16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중동 노선은 19시간이 소요되며 중간에 두 번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레바논 국내 교통>

- 렌터카

Hertz car rental, Budget Rent-a-Car, Thrift Rent-a-Car 등 미국계 렌터카 회사가 진출해 있고 레바논 렌터카회사도 많다.

차종이나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일 US\$ 20 이상으로 렌트할 수 있다.

- 택시

베이루트 시내에만도 약 20,000대의 영업용 택시가 있으며 길거리 아무데서나 잡을 수 있다. 택시는 크게 공항택시, 콜택시, 일반택시 및 서비스택시로 나뉜다. 공항택시의 경우 거리시간 병산 미터제 요금을 채택하고 있으며 공항에서 시내까지 US\$ 25 - 40으로 비싼 편이다. 사전 예약으로 콜택시회사를 이용할 경우 50% 정도 저렴하다.

호텔 앞 대기 택시의 경우 투숙 호텔 프런트에서 부르면 되는데 시내 호텔에서 공항간 편도요금은 약 US\$ 25 정도이다. 택시미터기가 없으므로 탑승 전에 구간과 요금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24시간 영업하는 콜택시 회사로는 Lebanon Taxi (01-353152), Sultan Taxi (01-868432), Auto Tours (01-888222) 등이 있다.

일반 택시의 경우, 통상 택시라는 팻말이 붙어 있으나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빨간 번호판으로 택시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영업용은 택시, 버스 구분이 없이 모두 빨간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 택시 중에서 합승을 허용할 경우에는 서비스 택시로 불린다. 서비스 택시의 경우 일인당 짧은 거리가 US\$ 1(1,000LL) 정도로 저렴하나 좌석을 다 채울 때까지 합승을 시키므로 시간이 지체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 택시 탑승 전에 운전기사과 목적지를 정하고 합승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탑승하는 경우 요금은 시내 이동시 통상 US\$ 4(5,000LL) 선이다. 이렇게 개인용 택시를 이용하여 시내에서 공항까지 이동할 경우 통상 US\$ 15를 지불해야 한다.

- 시내 대중교통

일인당 자동차 보급율이 0.5대꼴로 개인용 차량 보급이 높는데 반해 대중 교통수단 보급율은 극히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중고 마이크로버스나 봉고버스가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며 정해진 구간만을 이동하며 손님이 있을 경우 아무데서나 내려주고 태워준다. 요금은 구간에 관계없이 500파운드이며, 국영버스의 경우 1일 자유이용권은 1,000파운드이다. 노선 번호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아랍어로만 표기되어 있고 버스 운전사와의 의사소통이 곤란하므로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전철이나 국철은 없다. 베이루트를 중심으로 전국 주요 도시를 운행하는 정기 시외버스 노선이 있으며 정해진 곳에서만 탑승 가능하다.

<국제전화>

국제 전화를 걸만한 공중전화 박스가 최근 주요 지역에 설치되어 이용가능하다. 대부분의 유선전화는 국제전화를 바로 걸 수 없으며, 다이얼 '100'을 이용, 교환수를 거쳐 한국과 통화할 수 있다. 교환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제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유선전화를 가입한 후 별도로 US\$ 500을 예치해야 서비스 연결이 가능하다.

현지에서 한국으로 걸 때 국제전화 요금은 유선전화 기준 분당 1,500 파운드(US\$ 1), 휴대폰 기준 분당 US\$ 4.2로 한국에 비해 비싼 편이다. 한편, 특급 호텔은 'IDD' 전화가 가능하나 요금은 분당 US\$ 8씩으로 매우 높으며 4-star급 이하 호텔은 대부분 교환수를 거쳐야 한다. 콜렉트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현지로 전화를 걸 때는 '국제전화 접속번호 + 961(레바논 국가번호) + 지역번호 + 전화번호(6자리숫자)' 순서로 다이얼을 누르면 된다.

지역번호는 03번이 휴대폰이며, 01번은 베이루트, 04, 05, 09번은 베이루트 근교 위성도시 지역번호이다.

한편, 현지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 때는 '00 + 82(한국 국가번호) + 지역번호 + 전화번호' 순으로 다이얼을 누르면 된다.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는 호텔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이용 가능하나 전송속도는 4 Kilobytes per second밖에 되지 않는다.

레바논의 인터넷 국가 코드는 ‘.lb’이다.

<휴대폰>

레바논은 GSM방식을 이용하므로 한국에서 사용중인 CDMA방식의 휴대폰은 이용할 수 없다.

<시차>

3월 마지막주 토요일 밤 24시 ~ 10월 마지막주 토요일 밤 24시: 한국시간-7

10월 마지막주 토요일 밤 24시 ~ 3월 마지막주 일요일 밤 24시: 한국시간-6

<국내전화>

공항이나 몇몇 백화점외에도 동전과 카드 모두 이용가능한 공중전화 부스가 설치되어 있다.

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대부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휴대전화 기준 분당 시내전화요금은 약 20센트이며, 일반 유선전화 사용 시에는 시내전화의 경우 최초 3분간은 분당 30파운드(약 2센트), 초과 1분당 20파운드이며 시외전화의 경우 각각 50파운드이다.

[표] 국내전화의 지역번호별 지역명

지역번호	지역명	지역번호	지역명	지역번호	지역명
01	Beirut 및 근교	04	Mount Lebanon (North)	07	South Lebanon
02	시리아	05	Mount Lebanon (South)	08	Bekaa
03	핸드폰	06	North Lebanon	09	Kerserwan/Jbeil

17. 유용한 연락처

<유용한 연락처 및 website>

- 전화번호안내: 국번없이 120
www.yellowpages.com.lb, www.pagesjaunes.com.lb

[표1] 비상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상세정보
전화국(0gero)	113	전화고장 신고
국제전화	100	
소방서	175	화재신고
적십자	140	환자발생 신고
앰불런스	01-865561	응급환자 수송
경찰	112, 160	
내무부	125	치안, 시큐리티
전력청	145	단전, 누전신고
일기예보	1718	
베이루트국제공항	01-628000	안내

[표2] 한국기관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대사관	5 Fl., Camalia Bldg., Said Freiha St., Hajmieh	05-953167~9
무역관	Starco Bldg. Block C, 8th Fl., Rm.820, Omar Daouk St., Mina El-Hosn, Beirut Central District	01-360215
한인회장	Takkouch Bldg., Bekaa Str., Verdun, Beirut	01-800025

[표3] 레바논 관공서 (government officials)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대통령궁	05-457111	www.presidency.gov.lb
국회	01-982045~9	www.lp.gov.lb
정부홈페이지		www.informs.gov.lb
경제통상부	01-747066-9	www.economy.gov.lb
교통 및 공공사업부	05-456482	www.public-works.gov.lb - 공공 인프라 공사 발주 현황
관광부	01-340940	www.destinationlebanon.com
내무부	01-754200	www.interior.gov.lb (아랍어)
농업부	01-849600	www.agriculture.gov.lb
법무부	01-422122	www.justice.gov.lb (아랍어)
산업부	01-427006	www.industry.gov.lb
외무부	01-333100	www.emigrants.gov.lb
정보통신부	01-979333	www.mpt.gov.lb
재무부	01-981001	www.finance.gov.lb
환경부	04-522222	www.moe.gov.lb

[표4] 경제단체

단 체 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상세 정보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of Lebanon (IDAL)	01-983306/9	www.idal.gov.lb	주요 공단 현황, 투자 인센티브 및 주요 투자 프로젝트 정보 입수가능
Council for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CDR)	01-981431~2	www.cdr.gov.lb	재건복구위원회. 정부공개입찰에 관련된 최신 정보 입수 가능

Lebanese Banks Association	01-231123	www.abl.org.lb	레바논은행협회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 Beirut	01-353390	www.ccib.org.lb	베이루트상공회의소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 Tripoli	06-425600	www.cciat.org.lb	트리폴리상공회의소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 Sidon (Saida)	07-720123	www.cciias.org.lb	시돈상공회의소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 Zahle	08-802602	www.cciiaz.org.lb	자흘레상공회의소
Association of Lebanese Industrialists	01-350280~2	www.ali.org.lb	제조인협회
Beirut Traders Assc.	01-340668		무역인협회
Beirut Merchants Assc.	01-345735		베이루트상인협회

[표5] 무역관련

기관명	대표 (혹은 담당자)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Trade Information Center		01-743929	01-746314	www.economy.gov.lb
Higher Council for Customs	Mr. Hussein Nehmeh	01-860657	01-866094	
관세청	Mr. Assad Ghanem	01-980065~6	01-643826	www.customs.gov.lb customs@inco.com.lb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관련 문의)

[표6] 기타 주요 웹사이트

기관명	홈페이지	상세정보
중앙은행	www.bdl.gov.lb	
Kompass Lebanon Sarl	www.masri.com.lb	바이어 신용조사, 관심 바이어 발굴등 유료 시장조사 대행
Banque Audi	www.audi.com.lb	아우디은행공식홈페이지로서 주간 및 분기별 경제동향 보고서가 비중있게 다루지고 있음.
Banque Du Liban et D'Outer Mer(BLOM)	www.blom.com.lb	레바논 수신고 1위 민간은행으로 산하 경제연구소가 발표하는 최신 경제뉴스, 보고서 등
Byblos Bank	www.byblosbank.com.lb	비블로스은행 홈페이지
Fransabank	www.fransabank.com.lb	레바논 수신고 1위 민간은행으로 산하 경제연구소가 발표하는 최신 경제뉴스, 보고서 등
Network SB	www.5index.com.lb	레바논 최대의 비즈니스 데이터 베이스
Digital Plus-Lebanon Ltd.	www.middleeastindex.com.lb	야후와 같은 검색엔진
Lebanon.Com Interactive	www.lebanon.com	검색엔진중의 하나로서 쇼핑, 문화, 예술 등 레바논 각 부문 현황 색인 및 업체 색인이 가능함
Data Management(DM)	www.dm.net.lb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홈페이지 뉴스 및 업체정보를 얻을 수 있음.
Cyberia	www.cyberia.net.lb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홈페이지
International Fairs & Promotion S.A.R.L	www.ifp.com.lb	레바논 최대의 전시회 주관기관 공식 홈페이지
Promofair S.A.L	www.promofair.com.lb	전시회 주관기관 공식 홈페이지
Hospitality Services	www.hospitalityservices.com.lb	전시회 주관기관 공식 홈페이지
주레바논 미국대사관	www.usembassy.com.lb	

18. 여행시 유의사항

<여행준비>

- 의복준비

한국보다는 여름이 약간 더 길지만 기온은 비슷한 수준이며, 베이루트 근교와 지중해변의 겨울철 기온은 평균 15도 정도로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나 겨울철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는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여름철에는 일교차가 다소 높은 편이어서 새벽에는 다소 쌀쌀하므로 감기에 주의해야 한다.

7-9월 한 여름철에는 29-35°C 정도로 한국과 비슷한 날씨이며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편이다. 여름옷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준비하면 무난하다. 중동국가이면서도 유럽의 영향권에 있고 세계적 유행에 민감한 편이며 매우 개방적인 문화습성을 갖고 있으므로 노출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 전기규격

50Hz, 220V가 표준 전력이므로 50/60Hz 겸용 전자제품을 준비해야 한다.

110volt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제품을 휴대할 경우에는 강압기를 별도로 구비해야 한다.

플러그도 유럽형 규격을 사용하므로 현지에서 어댑터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

전력공급이 원활치 않고 단전이 많아 전압 안정기가 필수이다.

<쇼핑>

- 물가

레바논의 물가는 매우 높은 편이다. 서울의 물가와 비교했을 때 채소, 과일류 등 생필품은 70%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나 여타 공산품은 서울의 1.5배 수준이며 햄버거 등도 미국에 비해 비싸다.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메뉴: 약 US \$5)

그러나 현지 서민들이 즐겨 먹는 샌드위치는 약 US\$ 1- 1.5면 구입할 수 있다.

- 쇼핑장소

고가의 제품을 쇼핑하고자 할 경우에는 downtown내 Aishiti 백화점 또는 downtown street과 Verdun의 Dunes Center와 그 주변, 아슈라피에 ABC를 찾거나 베이루트 북쪽에 위치한 Kaslik에도 유명 브랜드 전문점들이 있다.

중가의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ABC백화점, 콩코드쇼핑몰을 이용하면 되고 중저가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우라(Dora)지역의 부르즈함무드(Bourj Hammoud) 아르메니아 거리가 적당하다.

통상 2월과 7-8월이 세일기간이므로 거주자는 세일기간 중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세일폭은 통상 30-70%선으로 광범위하다.

식품류 등 생필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Spinneys슈퍼마켓 (안틸리아스, 아쉬라피에), 프랑스계 체인점인 Monoprix, Geant Casino가 적당하며 현지산 채소류 등 농산물은 각 구역별로 매점을 갖고 있는 협동조합(Co-op)이 저렴하다.

- 특산품

레바논은 이렇다할 특산품이 없는 편이다.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목공예품이나 聖物이 있기는 하나 모조품인 경우가 많고 값도 비싼 편이다. 굳이 특산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레바논산 스위트(Sweets)나 전통소주인 Arak, 와인이 적당하다.

한편, 레바논은 보석 가공 기술이 비교적 발달되어있고 가격도 합리적인 수준이므로 다이아몬드나 금가공품을 구입할 수 도 있으나 가짜상품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여행여건>

- 치안

남부 레바논 이스라엘 접경지역이나 헤즈볼라 게릴라 거점지역 및 팔레스타인 난민캠프 등 여행자제지역을 제외하면 치안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며 소매치기 등 경범죄 발생률도 낮은 편이다. 그러나 현지인을 동행하지않고 나이트클럽 등 유흥가를 출입할 경우 바가지를 쓰거나 소매치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현지인의 총기 소지율이 높은 편이므로 현지인과 시비 또는 언쟁을 피해야 한다.

최근 차량 도난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차시 잠금장치를 철저히 점검하고 눈에 띄는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도로마다 검문이 있으므로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 의료

약국에서 모든 종류의 의약품과 건강관련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베이루트나 교외지역의 민간 병원에서 현대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이 안되는 경우 현금으로 의료비US\$ 25- 50 정도를 지불해야한다.

- 응급

'140' 이나 '01-386675'을 다이얼하면 앰블런스가 민간병원 응급실로 이송한다. 응급실 이용 시에는 고가의 진료비, 입원비 등 관련비용을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지 의료비는 무척 비싼 편이며, 진찰시 US\$ 25- 50 정도를 지불해야하므로 거주자는 가급적 의료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한국과 같은 국민의료보험에는 외국인이 가입할 수 없으므로 거주자는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등급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연간 US\$ 1,500 정도가 든다.

- 팁 관행

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에는 요금 외에 별도의 팁을 줄 필요가 없으나, 공항택시를 제외하고는 미터기를 사용하는 택시가 없으므로 탑승 전에 미리 요금을 정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호텔 등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줄 경우, 가방 숫자에 관계없이 US\$ 1 정도의 팁을 지불하면 되고, 호텔 투숙 시 침실 머리맡 눈에 띄는 곳에 침대 1개당 US\$ 1 정도의 팁을 놓아 두는 것이 적당하다.

음식점에서는 서비스료로 16%를 음식요금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지만 통상 이 경우에도 US\$ 3-5 정도의 팁을 별도로 지불하는 것이 적당하다. 팁을 받지 않는다고 계산서에 명시된 식당의 경우에는 별도의 팁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식품

모든 종류의 식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레스토랑도 다양하여 여러 나라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아메리칸 패스트푸드점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 (McDonald's, TGI Friday's, Hard Rock Cafe, Chilis, Hardee's, Pizza Hut, Kentucky Fried Chicken, Popeye's, Dunkin' Donuts, Burger King 등)

- 식수

석회성분이 많고 상수도 설비가 노후되었으므로 수도물은 식수로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생수를 음료로 구입해야 한다. 현지 식당에서도 물은 무료로 제공되지 않으며, 별도로 주문해야 한다.

- 이발소

요금은 10불 정도이며 이발 전 머리를 감겨주는 것이 관행이며 이발 후에는 머리를 다시 감겨주지 않고, 향수를 뿌려준다.

- 구두담이

변화한 중심가를 제외한 시내 거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나 특급호텔 로비에는 구두담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요금은 현지화 2,000LL내외이다. (US\$ 1= 1,500LL)

19. 관광명소

레바논은 지중해 동부 연안에 위치한 나라이다. 지형상, 세 대륙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문명의 교차로 역할을 담당했던 레바논에는 그러한 여러 문명의 자취들이 아직까지도 곳곳에 남아 있다.

레바논의 해안선 길이는 약 225km(150마일)정도이고, 평균 넓이는 45km(30마일)이다. 국가 총면적은 10,452 km²(4500 평방마일)에 달한다. 해안선을 따라 다섯 개의 유명한 도시들- 트리폴리, 수도인 베이루트, 비블로스, 시돈과 티르가 위치해 있다. 좁은 해안면과 평형을 이루는 남북으로 뻗은 레바논산맥 및 안티레바논산맥이 있는 지형은 레바논의 아름다움에 빛을 더하는 요소이다. 내륙의 평야지대 베카를 흐르는 리타니강과 오론텐스강에 의해서 이 산맥들이 나누어지고, 농업용수를 공급받아 비옥한 토지가 만들어진다. 그 평야 위에 우뚝 솟아 있는 레바논산맥(Mount Lebanon) 북부의 쿠르넷 앓싸우다(Qournet Assaouda- 고도 3,083m)와 안티레바논 산맥 남부의 자발 알셰흐(Jabal al-Sheikh- 고도 2,814m)는 레바논내에서 고도가 가장 높은 봉우리들이다.

이러한 탁월한 자연 경관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에 의해서 한층 더 빛을 발한다. 레바논은 연중 약 300 일간 맑은 날씨를 보인다. 겨울에도 해안지역은 따뜻하고, 산간지역에만 눈이 내린다. 여름에는 해안지역은 덥고, 산간지역은 따뜻하다. 이러한 기후 조건 때문에, 레바논에서는 봄 동안에 같은 날 산에서는 스키를 타고, 해변에서는 해수욕을 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다.

<관광부 >

전화: +961-1-340940~4
Homepage: www.destinationlebanon.com
E-mail: not available

※ 참고사항: 안내 표지판이나 책자가 부실하여 현지 가이드의 안내가 없으면 관광하기 어렵다.

<관광객 전담 경찰관>

전화: 01-350901, 01-343286
Fax: 01-343504

<베이루트 시내 관광명소>

베이루트의 역사는 5 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스만제국, 맘루크, 십자군, 압바스, 우마야드, 비잔틴, 로마, 페르시아, 페니키아, 가나안 시대의 유물들이 베이루트 중심지에 남아 있다. 베이루트는 기원전 14 세기경의 설형문자에 그 이름이 처음으로 나타나 있다.

기원전 1 세기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이후 서기 551 년에는 지진, 해일, 화재 등의 세 가지 대재앙이 겹쳐 일어나 도시 전체가 참혹히 손상되었다. 이후, 베이루트는 서기 1110 년 십자군원정이 있기 전까지, 아랍 세력이 지배하였고 십자군 이후에는 맘루크와 터어키의 지배하에 있었다. 제 1 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프랑스의 식민 통치 하에 있었으며, 마침내 1943 년에 레바논이 독립을 차지하였다.

베이루트를 관광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천하는 것이 도보 여행이다. 휴식처로 좋은 장소는 라우쉬(Raouche) 지역인데, 이곳에는 베이루트에서 유명한 비둘기 바위(Pigeon Rocks)가 파도 치는 바다에 맞서 당당하게 우뚝 서있다. 이 지역의 식당들에서는 레바논 요리뿐 아니라, 각종 외국요리가 제공되고 절벽 쪽에 위치한 카페들에서는 다양하면서도 맛있는 스낵들이 제공된다.

- 국립박물관

베이루트 중심가에 위치. 페니키아, 로마, 중세시대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99년 10월부터 재개방하여 레바논 역사를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오전 10시-오후 5시 관람 가능. 입장료는 약 4달러선

- 舊 시내중심가 내전현장

`75 ~`90년간 기독교-무슬림-팔레스타인 문제가 레바논 내전으로 확산되어 폐허가 된 구 중심가도 지금은 복구가 진행중이다.

`60 ~`70년대 원형을 그대로 재복원하고 있으며 구 시내중심가에는 시장, 국회, 정부 건물들이 다수 있다.

<베이루트시외 관광명소>

- 개강, The Dog River (Nahr el-Kalb)

베이루트 북쪽 15km에 위치. 레바논을 지배했던 점령자들에 의해 새겨진 부조들이 있다. 기원전 13세기 이집트 람세스 2세가 새긴 부조에서부터 기원전 6세기 바빌론의 누부가네살왕, 이집트, 그리스, 로마, 맘룩,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것까지 다양한 부조를 볼 수 있다.

- 바알벡, Baalbeck

고도: 1,050m

베이루트에서의 거리: 동북동쪽 85 km에 위치

가는 방법: 레바논의 산들은 휘감고 있는 다마스쿠스 국제고속도로(Main International Damascus Highway)를 타고 가다 보면 알레이(Aley), 함둔(Bhamboun), 소화르(Sofar), 다르 엘바이다르(Dahr el-Baidar), 슈투라(Chtoura), 자흘레(Zahle), 리약(Riyak)과 같은 마을들을 지나 바알벡(Baalbek)에 이르게 된다.

바알은 토착 바알(Baal) 신앙의 중심지로서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정복되기 이전부터(기원전 2,000년) 번영했던 도시이다. 인구 25만 명의 로마제국 시대 최대 도시중의 하나로서 레바논 산맥과 안티레바논 산맥 사이의 평야 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로마제국시대에 Baal 신전을 파괴하고 건설한 Zeus 신전은 로마제국 최대의 신전으로서 기둥은 역사상 지어진 구조물들의 기둥들 중에서 높이가 가장 높고, 건축에 사용된 석재들 또한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크다.

바알벡 신전은 현재 남아있는 로마 건축물들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본래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건축물로 꼽힌다. 쥬피터(로마신화의 최고의 신으로 하늘의 지배자)와 비너스(미의 여신), 바커스(술의 신)에게 바쳐졌던 바알벡 신전의 사원들은 AD 2, 3 세기에 건설되었다.(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규모가 큼)

이 바알벡 신전은 그야말로 장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신전의 입구(의식장 입구)로 들어가면 그 안에 두 채의 사원과 각각의 안뜰이 있고, 거대한 건축용 블록이 있는데, 특히 그 중 세 개는 높이가 19-20m 에 달하고, 넓이는 4.5m, 깊이는 3.6m 에 달한다. 또한, 경계벽에는 아랍 건축양식의 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고, 6 개의 거대한 기둥들은 쥬피터 사원이 있었던 신성한 장소로부터 여전히 위쪽을 향해 치솟아 있다.

바알벡란 명칭은 바알-벡(Baal-Bek), 또는 바알(Baal - 옛 페니키아의 신)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까지도 이 지역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

여러 해 동안 바알벡의 신전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극단, 오케스트라, 발레단 및 기타 예술인들이 참가하는 저명한 국제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 베이티딘, Beiteddin

고도: 900m

베이루트에서의 거리; 44km

가는 방법: 사이다로(Saida Road)를 타고 나하르엘다무르(Nahr el-Damour)까지 가서, 맛있는 바나나로 유명한 다무르(Damour)를 관통하여 아름다운 올리브나무가 많은 크파림(Kfarhim)까지 계속 간 후에, 다시 16 세기부터 18 세기까지 레바논 통치자들의 거주지였고 에미르 화크레딘(Emir Fakhredine)의 역사를 간직한 고도(古都), 데이르엘카마르(Deir el-Qamar)에 도착하면 마침내 베이테딘(Beiteddine)을 만날 수 있다.

베이테딘(Beiteddine)은 “ 믿음의 집 ” 이라는 뜻이다. 베이테딘은 19 세기 초 Mount Lebanon 지역을 30 년이상 다스렸던 Emir Bechir Shehab 2 세(1788-1840))에 의해 가파른 낭떠러지 언덕 위에 우뚝 솟은 바위투성이의 절벽 위에 지어진 궁전이다.

그 시대 레바논 고전 건축양식의 완벽한 표본으로서, 천장의 장식과 다채로운 대리석 모자이크 바닥, 호화스러운 터키식 욕실과 규방 가구들, 아름답게 단장된 정원과 하렘, 옛 프랑스의 시인 “ 라마르틴 ” 이 한때 거주했었던 영빈관과 물꼭지, 주랑(柱廊)까지 갖추고 있다.

이 궁전은 에미르의 저택으로 남아 있다가 1840 년, 에미르가 강제로 추방되면서 오스만이 이것을 정부 관저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34 년, 역사적인 기념물로 지정되면서 복구작업이 시작되었고, 1943 년부터는 대통령의 여름 휴가용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궁전의 날개부분은 민속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고, 개축된 마굿간에는 폐허가 된 비잔틴 교회와 그 시대의 다른 건축물들에서 가져온 정교한 모자이크 작품들이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다.

- 베카계곡, Bekaa “ valley ”

레바논산맥과 안티레바논산맥사이에 있는 비옥한 지대로서 남북으로 120km, 동서로 14km로 평균 고도는 북쪽은 1,100m, 남쪽의 평균고도는 900m이며, 남으로는 리타니강이, 북으로는 오론텐스강이 흐르고 있다. 로마제국시대에는 ‘ 제국의 빵바구니 ’ 라 불리웠으며 현재에도 레바논의 가장 큰 농경지역으로서 경관이 아름답다.

- 브샤리, Bcharre

고도: 1850m

베이루트에서의 거리: 130km

가는 방법: 고속도로를 타고 트리폴리 남부의 체카(Chekka)까지 간 다음, 아미운(Amioun) 방향으로 돈다. 이곳에서부터는 도로가 카디샤 계곡(Kadisha Gorge) 언덕을 따라 쿠스바(Kousba), 투르자(Tourza), 하뎃(Hadet), 하스룬 (Hasroun), 바즈운(Bazaoun)과 브샤리(Bsharri)로 통한다. 베이루트에서 차로 두 시간 반쯤 가면 브샤리에 도착할 수 있다.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과 이집트 파라오의 미이라 관 및 선박 건조에 사용되었던 백향목(Cedar나무) 서식지는 레바논의 최고봉인 Kornet es-Sawda (3,088m) 아래 2,000m 고산지역에서 군락하고 있다.

브샤리는 스키장 등 동계 휴양지로서 1953년에 스키 리프트가 처음으로 백향목 보호구역 근처에 설치되었으며 겨울에는 2,000-3,000명(주말기준)이 찾는 곳으로 베이루트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므로 숙박시설도 많이 있다.

또, 브샤리는 레바논의 가장 유명한 시인·화가·소설가이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Gibran Khalil Gibran의 고향으로 그의 생가와 기념박물관이 있어 그림과 스케치들, 개인 소유물 및 생전에 쓰던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 비블로스, Byblos (Jbeil)

고도: 10m

베이루트에서의 거리: 38km

가는 방법: 베이루트에서 트리폴리 고속도로(Tripoli Highway)를 탄 후, 북쪽으로 지중해변을 끼고 가다가 도그강(Dog River) 터널과 주니에(Jounieh), 타바르자(Tabarja)를 지나면 마침내 비블로스에 도착하게 된다.

Sidon, Tyre와 함께 페니키아시대 3대 도시국가중 하나이며, 인류 최고 도시의 하나로 B.C. 4500년경부터 도시가 형성되었다.

비블로스(Byblos)란 이름은 성서- ‘비블리온(Biblion)’에서 유래되었다. 성서라는 단어- ‘bible’은 ‘서책’을 뜻하는 그리스어 ‘타브 빌라(ta b bila)’에서 파생되었다. 비블로스는 지구상에서 인간이 지속적으로 거주한 가장 오래된 도시이다. 페니키아인들의 전설에 따르면, 비블로스는 자신의 도시를 온통 성벽으로 둘러쌌던 엘(El)이란 신에 의하여 건설되었다. 초기 청동기 시대(기원전 2800 년경)의 육중한 이곳 도시 성벽들은 그 시대 초기의 종교 신앙을 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심지어는 고대 페니키아인들까지도 비블로스를 아주 오래된 도시로 여겼었다.

그런데, 사실 비블로스에는 그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었다. 약 7000 여년전, 소규모의 어부 집단이 이곳에 정착해 살았었는데, 석회암을 깨부쉈 바닥에 붙인, 몇몇의 단칸 오두막들을 아직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 훨씬 이전부터, 이미 이 고대 도시는 자신의 왕과 문화를 가진, 무역이 번성하였던, 강력한 독립 도시-국가였다. 비블로스의 왕들은 상형문자를 사용하면서도, 자신들의 이름과 직함에는 이집트식 카르투슈(고대 이집트의 기념비 따위에서 국왕의 이름을 둘러싼 원형의 장식 테두리)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렇게 해서 음표문자가 비블로스에서 개발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

현재 베이루트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비블로스 아히람(King Ahiiram- 1200-1000 B.C.)왕의 석관에 새겨져 있는 비문은 지금까지 발견된 페니키아 알파벳 가운데 가장 초기 유형이다.

도시 계획을 제일 처음 착상해낸 곳도 비블로스였다. 이 도시는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중앙부의 좁고 굽은 길을 따라, 2 차선이 샛길로 갈라져서 가옥들 사이사이로 불규칙하게 뻗어 있다. 기원전 2800 년, 이 도시의 여신인 ‘비블로스의 여인(Lady of Byblos)’ -발라트 게발(Baalat Gebal)을 위해 거대한 사원이 하나 지어졌고, 이어 기원전 2700 년에는 ‘Temple en L’ 이라 불리는 남신(男神)을 위한 사원이 세워졌다. 이 거대한 건축물은 발라트 게발 사원을 마주보고 서 있다.

로마 시대 동안, 큰 사원들과 공공 건물들이 지어졌으며, 거리에는 가로수들이 세워져 도시를 감싸게 되었다. 비잔틴과 아랍 제국시대의 흔적은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서기 1108 년, 비블로스는 십자군에 패배하였고, 십자군들은 로마 사원과 공공 건물의 건축에 쓰인 거대한 석재와 화강암 기둥을 가져와 그들의 성과 호(壕)를 짓는데 사용하였다.

지난 50 년간에 걸친 발굴 작업으로 비블로스는 7000 년의 역사를 가진, 지구상에서 유례없는 고고학적 유적지가 되었다.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아모리인 (가나안의 고대민) 시대, 이집트 시대, 페니키아 시대 및 로마 유적지, 비잔틴 시대, 아랍과 십자군원정 시대의 유적을 모두 관람할 수 있다.

이곳에 있는 성채는 12세기 십자군원정시대에 건립된 것이다. 로마시대의 유적으로는 원형극장과 열주가 있으며 페니시아시대의 Ahiiram왕의 석관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알파벳이 새겨져 있다.

비블로스에는 이 유적지이외에도 레바논의 역사를 보여주는 wax museum과 아름다운 Ottoman시대의 모스크가 있다.

- 시돈, Sidon

고도: 10m

베이루트에서의 거리: 43km

아랍어명으로 Saida로 불리며 기원전 3000년경 형성된 도시로 페니키아시대에 자주 색 염료 및 유리제품 교역으로 번성하였으며, 현재 남부레바논의 도청소재지로서 지역 경제의 중심지이다.

13세기에 세워진 십자군의 해상 요새 일부를 관람할 수 있다.

프랑스의 루이 9세가 예루살렘왕국(1250-54)을 지배하는 동안 머물렀던 Castle of St. Louis의 유적 일부가 페니시안이 자색 염료를 추출한 후 이름붙여진 the Hill of Murex 근처 고대항구 남쪽에 남아 있다. 이 성채의 지하에 페니키아시대의 도시가 최근 발굴되었다.

‘souk’ (재래시장), Fakhreddine II에 의해 세워진 ‘khan of Franj’ (大商을 위한 여인숙)도 볼만하다.

시돈은 Tyre와 함께 구약에 자주 언급되며 예수께서 방문했던 도시이기도 하다. 시돈 부근 막두세(Maghdoushe)동굴은 예수와 마리아가 방문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 안자 Anjar

고도: 930m

베이루트에서의 거리: 56km, 베카계곡에 위치

가는 방법:

베이루트에서 다마스커스로(Damascus Road)를 타고 가다 베카 계곡(Bekka Valley)에 이르면, 슈투라(Chtoura)를 지나 10km 쯤 되는 곳 왼쪽 편에 뜻말이 서 있다. 도로 위 차 안에서 유적들이 보인다. 안자르(Aanjar)는 레바논의 다른 역사 유적지들과 달리, 비교적 근대 문명의 영향을 받은 도시로, 다른 아닌, 기원 7 세기경 우마야드(Umayyads) 왕조시대에 세워진 도시이다. 우마야드는 이슬람(회교)을 이어받은 최초의 왕조이며 또한, 인더스 계곡으로부터 남부 프랑스에까지 뻗어 있었던 이슬람 제국을 건설한 아랍의 정복 왕조였다. 우마야드 제국은 100 여년간 번영을 이루었으나, 아바시드(Abbasids)가 우마야드 제국의 쇠퇴를 틈타 안자에서 2 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서 우마야드를 격파시킴으로써 멸망하였다.

- 에쉬문, Eshmoun

시돈(Sidon)으로부터 몇 분 안 되는 거리에 있다

이 역사 유적지의 기원을 더듬어 올라가 보면, 청년 사냥꾼 에쉬문의 신화를 만나게 된다. 아스타르테여신(페니키아인들이 숭배한 풍요와 생식의 여신)이 그에게 반해 사랑에 빠졌으나, 그는 여신의 접근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변신시키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 이후, 그는 다시 환생하여 신으로 태어났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를 치유의 신이라 부르며, 매우 중요한 신으로 여긴다. 에쉬무나자르 2 세(Eshmounazar II)가 집권시(時)에 에쉬문을 기념하는 사원을 건립하여 기원전 4 세기 중반까지 존속되었으나, 결국 파괴되었다. 지금은 비록 파편 조각들과 부스러기들로 어지럽혀졌지만, 서기 3 세기 말경까지는 명소로 꼽히는 지역이었다.

- 자흘레

고도: 1010m

베이루트에서의 거리 52Km

가는 방법: 베이루트에서 다마스커스로(Damascus Road))를 타고 함둔(Bhamdoun), 소화르(Sofar), 므데이레즈(Mdeirej), 슈투라(Chtoura)를 지나면 자흘리에 도착하게 되는데, 약 1 시간 30 분 정도가 소요된다.

베카(Beqaa)의 도청소재지인 자흘리(Zahle)는 “아루스 엘 베카(Arouss El-Beqaa)-베카의 신부”로 알려져 있으며, 온화한 날씨와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자흘리의 아름다운 옛 가옥들도 마을 주위를 한가롭게 거닐면서 감상할 수가 있다.

자흘리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는 사닌(Sannine)산으로부터 시작되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끝나는, 삼림이 우거진 골짜기를 흐르는 바르다우니강(the Bardaouni river)이다. 리타니강(the Litani river)의 지류인 이 강을 따라 한 집 건너 하나씩 노천 식당들이 줄지어 서 있다. 개천과 분수, 수영장은 더운 공기를 식혀 주고, 차양과 나뭇잎들은 이 식당들을 태양빛으로부터 막아준다.

자흘리는 메제(mezze: 야채샐러드 등 기본 식단)의 도시이다. 이곳에서는 30 여종이 넘는 메제를 만날 수가 있다. 또한, 아니스 열매로 만든 술, 아락(Arak)도 유명한데, 이렇듯 이곳에서는 전형적인 레바논의 여가를 즐길 수가 있다.

언덕에는 청동기, 철기시대의 무덤이 있으며 와디 엘 아레예쉬(Wadi El Arayesh)에는 비잔틴과 로마시대의 석관들이 있다.

- 제이타 종유동굴

베이루트 북쪽 20km에 위치. 상·하 두개의 동굴이 있으며 윗 동굴 길이는 약 1.5km로 중동에서 가장 유명하며 종유석의 모양이 아름답다.

아랫 동굴은 지하호수로 배를 타야 관광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우기로 수위가 높아 윗 동굴만 관람이 가능하다.

입장료는 약 12달러. (연락처 09-220840)

- 쥬니에, Jounieh

베이루트 북쪽 18km에 위치. Harissa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쥬니에만의 경치는 정말로 아름답다. 쥬니에는 나이트클럽, 레스토랑, 호텔, 쇼핑 등으로 유명하다.

- 카디샤, Qadisha

시리아어로 ‘성자의 계곡’이란 의미. 많은 동굴, 암자, 예배당, 수도원 등이 있다. 이 계곡은 ‘The Cradle of Lebanon’으로 불리우며 1000년이상된 백향목이 발견된 곳이다.

- 트리폴리, Tripoli

고도: 00m

베이루트에서의 거리: 북쪽 85km.

기원전 800 년경,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세워졌으나, 당시 그들이 사용했던 도시명은 밝혀지지 않았다. 무역항인 도시의 특성은 이후 도시 지배자들에 의해 꾸준히 계승되어 왔으며, 오늘날 트리폴리는 레바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주요한 항만 도시로서 북부레바논의 상공업 중심지이다.

레바논에는 전 지역에 많은 고대 유적들이 있지만 특히 트리폴리에는 십자군 시대부터 이슬람 시대에 이르는 역사적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십자군의 성(聖) 마리아 교회(Crusader Cathedral of St. Mary)였던 그레이트 모스크(the Great Mosque), 1336 년에 건립된 테일란 모스크(the Teylan Mosque), 그리고 항만지역인 알-미나(Al-Mina)에 있는 사자의 탑(the tower of Lions)과 맘루크 군사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보르즈 에스-스바(Borj Es-Sba) 등이 유명하다.

트리폴리에는 맘루크와 투르크에 의해 개조되고 확장된 십자군 성(聖) 자일즈 성(Crusader Castle of St. Gilles)이 도시 위에 우뚝 서있다. 이 성은 1100 년에 건립된 후, 수 세기동안 일어난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의 형태가 되었다.

트리폴리의 전통적인 수우크스(souks-시장)는 아직까지도 트리폴리 주민들에게 매일 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맘루크시대의 터키식 욕탕도 여전히 성업중이다

- 티르, Tyre

기원전 2750년경 도시가 형성되었으며 베이루트 남쪽 83km에 위치.

페니키아 시대에 가장 번영했던 도시로 세계 최초의 상업 제국을 세워 식민지 카르타고를 건설하였다.

티르의 아랍이름은 ‘ Sour ’ (요새:fortress wall)로서 누부가네살왕이 13년동안 포위하고 공격하였으나 정복하지 못한데서 연유한다.

알렉산더대왕은 7개월간 포위하고 있다가 티르를 정복하기 위하여 티르와 연결하는 독을 쌓았다. (기원전 3000년경에 세워진 고대도시 티르는 육지와 떨어진 섬이었으나 알렉산더가 반 마일의 독을 쌓아 육지와 연결시킴으로서 새로운 도시가 되었다.)

고대에 티르는 자줏빛 염료로 염색한 직물로 유명하였으며, 이를 각지로 수출하였다. 그 염료는 뮤렉스란 조개껍질로부터 추출되었는데, 이는 바다 달팽이의 일종으로 지금도 티르의 아름다운 해안을 따라 서식하고 있으며, 당시에는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었다.

이 지역에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끄는 유적지가 세 군데 있다. 첫째는 고대 성벽으로 둘러싸인 섬에 위치하고 있는 유적들로서, 고대 기둥들과 모자이크거리, 로마식 욕탕, 그리고 사각형의 경기장 등이다. 두 번째는 십자군 시대의 교회 유적이고, 세 번째가 가장 광범위한 유적으로서 로마와 비잔틴 시대의 공동묘지와 이제껏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로마 경기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기장은 독특하게 벽돌이 아닌 돌로 만들어졌으며, 당시에는 전차 경기가 열렸던 곳이다.

1980 년도에는 티르의 로마와 페니키아의 유적들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20. 유용한 현지어 표현

대다수 현지인들은 아랍어와 불어를 구사할 줄 알며 인사말은 아랍어, 불어, 영어가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비즈니스맨이나 젊은 층에서는 영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레바논 아랍어로 된 표현을 몇 가지 소개한다.

<인사말>

- 말 하바 : (첫인사)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 키파크 : 안녕?(남성에게) / 키픽 : 안녕?(여성에게)
- 사바할 케이르 : 아침인사 / 마사알 케이르 : 저녁인사
- 키이프 시하? : 건강이 어떠신지요
- 알라 마이 : 안녕히 가세요
- 웬 푼두끄 할러데이인? : 홀리데이인 호텔은 어디에 있지요?
- 키프 바두 루흐 라 드바이에센타? : 바이어센타는 어떻게 찾아갈 수 있지요?
- 앳드 에 쎄아? : 지금 몇 시입니까?
- 아이 쎄아 마우아드? : 약속시간이 몇 시지요?
- 안디 마우아드 앳 쎄아 아쉬라 : 나는 10시에 미팅약속이 되어있습니다.
- 웬 바디 슈파크 ? : 어디에서 만나면 되지요?
- 앳드 하 사으루? : 그건 얼마지요?

- 앓드 하 사으루 하이다? : 이건 얼마입니까?
- 슈크란 알라 무사-아다 :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 단어>

- MAKTAB : 사무실
- BINEYE : 빌딩
- SHBBEK : 창문
- BEB : 도어
- MAI : 물
- AHWE : 커피
- SUKKAR : 설탕
- HALIB : 우유
- WARAA : 종이
- KTEB : 책
- ALAM : 펜
- DAFTAR : 노트
- SEAA : 시계
- TYEB : 옷
- JOUWWA : 안쪽
- BARRA : 바깥쪽
- AALA : 위
- TAHT : 아래
- HADD : 옆
- SEIARA : 승용차
- NMRA : 숫자
- TARIK : 도로
- MAHAL : 장소

<숫자>

- WAHAD 1
- TNEYN 2
- TLETE 3
- ARBAAA 4
- KHAMSE 5
- STTE 6
- SABAAA 7
- TMENE 8
- TESAAA 9
- AASHRA 10
- ASHRIN 20

21. 국토

<위치>

레바논은 북위 33-34.40도, 동경 33-36도상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 225km는 지중해와 접하고 있고, 이웃 국가와 접하고 있는 국경선의 총길이는 454km이며 이 가운데 북·동쪽 374km는 시리아와 접하고 있으며, 남쪽 79km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면적>

국토면적은 10,452km²로서 한국의 경기도와 비슷한 크기이고 이 가운데 1.6%인 170km²가 물로 덮혀있다.

<수도>

레바논의 행정수도는 베이루트로 면적은 18km²이고 인구는 150만명으로 실질적으로 경제와 문화 거의 모든 면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1/3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지형>

동서폭은 34 100km, 남북 길이는 210km로서 고구마 형상을 갖추고 있다. Mount Lebanon 산맥과 Anti-Lebanon산맥이 마주보고 남북으로 길게 늘어서 있으며, 이 두개의 산맥 사이로 곡창지대인 베카계곡이 위치하고 있다. 베카계곡은 실제로는 평균 해발고도가 800m를 넘는 높은 지역에 속하나, 양쪽의 높은 산맥에 휩싸여 계곡 모양을 형성하고 있어서 Valley로 불리우고 있다. 로마제국시대에 베카계곡은 '제국의 빵 바구니 (bread basket of the Empire)'로 불리웠을 정도로 온갖 곡식 및 과실나무가 즐비하다.

레바논은 대부분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가장 높은 곳은 해발 3,088m의 Qornet es Souda이다.

<토지이용실태>

개간 가능한 토지는 전국토의 17.6%, 경작지는 전국토의 12.51%이고 기타가 70%이다. 관개시설이 갖추어진 토지면적은 1,200km²로 전국토의 11.5%이다.

<부존자원>

중동국가 중 보기 드물게 非산유국이며 석탄 등 경제성 있는 광물자원이 거의 전무하다. 부존자원으로는 석회석, 철광석, 소금 등이 있으며 중동국가 중 드물게 수자원이 풍부하며 개간 가능한 토지도 많다.

<자연재해>

모래 폭풍, 지진이 있다.

<자연경관>

레바논은 여타 중동국가와는 달리 푸른 나무와 숲이 많아 일찌기 ‘ 중동의 파리 ’ 로 불리울 정도로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실제로 레바논은 사막이 전무하고, 산악지형으로 산에는 숲이 우거져 있으며 우리나라 산에서 볼 수 있는 소나무와 유사한 종류의 나무들도 많다.

봄철에는 깎아지른 절벽사이로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수, 레바논에서만 자라는 백향목(Cedars) 군락, 기암괴석, 울창한 숲사이로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가 장관이다. 겨울철에는 고지대를 중심으로 백설이 뒤덮여 하얗게 보이므로 ‘ 레바논 ’ 의 이름이 아랍어 ‘ 하얗다 ’ 의 뜻에서 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중해와 접하고 있는 해안은 사철 온난한 날씨로 인해 거의 일년내내 수영이 가능하며, 여름철에는 백사장마다 휴가객들로 넘친다. 레바논은 당일에 수영과 스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북동쪽에 있는 리타니강은 레바논의 주요 하천중의 하나로 인접국가와 접하지 않고 있다. 레바논의 험준한 산악지형은 외부와 고립되어 생활하기에 적당하고,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하여 역사적으로 많은 그룹 특히 여러 종교집단이 피난처로 이용하였다.

<당면한 환경문제>

- 벌채 및 채석장문제
- 토양침식작용
- 사막화
- 교통량 증가와 산업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베이루트 지역의 대기오염
- 폐기물과 폐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환경관련 국제협약 가입 현황>

Biodiversity, Climate Change, 사막화, 유해물질, 해양법, 핵실험금지, 오존층 보호, 선박오염, 습지에 관련된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22. 국민

<인구>

1932년이래 한번도 인구 센서스를 하지 않다가 64년만인 1996년 10월 인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레바논 인구는 약 31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다. 1997년 6월 가구별 인구 표본조사에 의하면 총인구가 약 410만 명으로 추산되나 이중국적 소유 레바논인의 거주인구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인구수는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다. 2004년 7월 미 CIA추정치는 약 377만명이다.

가구당 인구는 평균 4.7명이나 베이루트는 4.1명으로 평균보다 적고, 베카지역과 같이 농촌지역은 5.0명으로 많은 편이다. 1975년 내전 발발 후 약 30만 명이 레바논을 떠나 미주, 유럽 및 아프리카지역으로 이주했으며 1991년부터는 역이민이 증가하고 있다. 전국민의 85%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두드러진 편이며 15세 미만의 인구가 전체의 26.9%를 차지하고 있다.

[표1] 연령별 인구 구성비

(단위: 명, %)

년 령	인구수	구성비	여성인구
0-14세	1,019,879	26.7	499,609
15-64세	2,540,769	66.4	1,324,031
65세 이상	265,370	6.9	145,194
합 계	3,826,018	100.0	1,968,834

* 자료원 : The World Fact Book 2005 (미CIA자료)

[표2] 보건지표

	전 체	남	여
인구성장률	1.26%		
평균기대수명	72.63세	70.17세	75.21세
중앙연령	26.9세	25.9세	27.9세
영아사망율(천명당)	25.42명	27.19명	21.71명
출생률	18.88명/천명		
사망률	6.24명/천명		
합계출산률	1.92명		
성 비	0.94		

* 자료원 : The World Fact Book 2005 (미CIA자료)

<종족>

대부분 아랍족 (95%), 아르메니안(4%), 기타(1%)

<언어>

아랍어가 공용어이며 정부 공식문서는 아랍어 외에 불어가 쓰이고 있다. 아랍어 외에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계층은 영어를 구사하고 있으며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언어 구사 비율은 아랍어(99%), 불어 (45%), 영어(40%), 아르메니아어(5%) 순서이다. 젊은 층 사이에는 영어붐이 일고 있어 영어 구사비율이 상승추세에 있다.

<종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순니, 시아 및 드루즈 무슬림 등을 포함하여 인구의 60%를 차지하며, 기독교는 정교, 카톨릭, 개신교를 포함하여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대교인은 전무하다. 기독교, 이슬람교 총괄해 총 18개 종파가 존재하며 기독교와 이슬람교도간 인구비례는 40:60정도로 이슬람교도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공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슬람교도 중 시아파가 총 인구의 약 34%로서 가장 많고, 순니 무슬림이 21.3%, 드루즈파가 7.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기독교계 중에는 마로나이트가 17.6%로 가장 많고, 그리스 정교 9%, 그리스 카톨릭 6%, 아르메니아 정교 5% 등의 순서를 차지하고 있다.

<문자해독율>

총인구: 87.4%, 남: 93.1%, 여: 82.2%

<국민성>

일찌기 수많은 국가의 지배를 받아왔었고 동·서양 문화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이질문화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이고 모방적인 국민성을 갖고 있다.

강자에게는 약한 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국민의 경우에도 경제적 약자에 대하여서는 소홀히 대하는 편이다. 경제적으로 그들보다 부유하지 못한 국가의 국민들이나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취업자)들을 다소 멸시하는 풍조가 있다.

민족주의 성향은 약한 편이며 상당수 지식층들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은연중에 종교간 대결의식이 강한 편이며 異宗教徒間 결혼이 극히 드물다.

정부부문에서는 인구구성비에 따라 종파간 안배가 있으나 성차별은 없는 편이다.

레바논 사람들은 다른 중동국가와 달리 서구식 복장과 화려한 장식을 즐기며, 저녁 회식이나 파티 초대하기를 매우 좋아한다. 내실보다는 외형과 겉모양,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의 가문이 고상하게 보이기를 좋아한다.

소득수준에 비해 훨씬 높은 문화수준을 누리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즐기는 풍조가 강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수시로 공연을 갖고 있으며 입장료가 상당히 비싼 편인데도 관람객들이 많은 편이다.

23. 역사

• 고 대

레바논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20만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원전 2500년경, 페니키아(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지방에 있던 고대왕국)인들이 이곳에 정착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아랍의 조상인 가나안(히브리어로 `자주색`이라는 의미)민족의 일파(一派)인 페니키아인들은 중동 지방의 해안 배후 지역과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오가며 국제 무역에 종사하였다.

페니키아인들은 또한, 화폐와 문자 및 그 밖의 새로운 문명들을 전하는 문화의 전달자 역할을 하였다. 페니키아인들은 더 큰 왕국을 건설하는 대신, 시돈 (Sidon, 현 Saida), 티르(Tyre), 구블라(Gubla, 나중에 Byblos로 불리워지다가 현재는 Jbeil로 불림), 베리투스(Berytus, 현재의 베이루트)와 같은 도시국가를 건설하여 주변의 강대국들과 타협하면서 평화와 자유무역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북아프리카 튀니지부근에 있던 고대도시국가. 기원전 146년 로마군에 의해 멸망되었다)와 유럽의 마르세이유에도 성대한 치외법권적 도시국가들을 건설하였다.

이집트 고왕국(B.C.2686-2181)시절에는 이집트 파라오왕조와 교역을 통해 백향목, 올리브, 와인을 수출하고, 금과 나일강 주변의 농수산물을 주로 수입하였다.

B.C. 20세기경 민족이동으로 혼란이 생겼고, 소도시 국가로 분리독립 될 때에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지배를 받았으며, 크레타문명의 영향도 받았다.

B.C. 14세기경 이집트 왕조가 약해진 틈을 타서 B.C. 12세기부터 약 300년간 독립적인 도시국가로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이때 알파벳의 원조로 알려진 페니키아 문자를 발명하였고, 지중해 무역, 유럽과 서아시아 교역로를 개척하였으며 B.C. 13 세기경 지중해 진출하여, 북아프리카 연안의 카르타고, 스페인의 기데스, 제노바, 시라쿠사, 크레타 등에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페니키아의 도시국가들은 아시리아 왕조(B.C.875-608)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하였으며 아시리아 왕조가 몰락한 후 바빌로니아 왕조(B.C.685-536), 페르시아 왕조(B.C. 559-330)에 의한 식민지 지배가 계속되었다.

B.C. 333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왕조를 굴복시킨 이듬해 레바논의 주요 도시도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이때부터 페니키안(그리스어로 ‘자주색’이라는 의미)으로 불리었다. 알렉산더 사후 알렉산더 뒤를 이은 셀레우시드(Seleucid) 왕조에 복속되었다.

- 로마제국-비잔틴(동로마제국) 통치시대

B.C. 64년 로마의 폼페이우스는 페니키아를 정복, 로마 영토로 편입, 시리아지방의 일부로서 다스렸다. 이 시기부터 중동지역의 주 사용언어인 아람어가 페니키아어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A.D. 4세기부터 로마제국의 기독교화에 따라 페니키아지역에도 기독교가 전파되었으나 그 후 태동된 동로마제국의 그리스정교에 더욱 가까워지면서 로마 카톨릭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 이슬람 통치시대

A.D. 630년,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족들이 대부분의 시리아 영토와 Mount Lebanon을 정복하였다. 정복자들은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였지만 세금이나 법적용면에서 차별을 두었다. 이에 759~760년에 걸쳐 마로나이트 교도들의 반란이 있었으나 곧 진압되었다. 페니키아지역에서 태동된 마로나이트 기독교를 믿는 신도들은 무슬림에 의한 박해를 피해서 Mount Lebanon으로 숨어 들기 시작했다.

무슬림 점령지역에서 통합 칼리파(Caliphate) 지배력이 줄어들고 개별 왕조가 태동하기 시작한 11세기 초 시아 무슬림의 일파인 드루즈(Druze)는 독자세력을 Mount Lebanon 남부에 형성하게 된다. 드루즈는 마로나이트와 때에 따라 협조와 경쟁관계를 지속하였다.

1099년 십자군 원정대가 레바논 지역을 점령, 13세기까지 주둔하게 된다. 이때까지 마로나이트 기독교도들은 아랍 지배자에 맞서 레바논의 이슬람화와 아랍화를 저지하는 외로운 투쟁을 지속하였다. 당시 십자군은 마로나이트와 연대를 맺어 아랍세력에 대항하였다.

- 오토만 통치시대(1516-1918)

1516년 오스만 터키는 동부 지중해 전지역을 정복하였다. 오토만 통치하에서 레바논은 두 개의 왕조를 잇따라 세웠다. Maans(1516-1697) 왕조와 Shihabs(1697-1842) 왕조가 그것이다. Maans 왕조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은 Fakr al-Din 2세(1572-1635)로서 드루즈 출신이면서도 마로나이트 기독교 용인정책을 펼쳤었다. Maan 왕조가 끝나면서 Shihab을 에미레(Prince)로 추대하였는데 1711년 이후 드루즈 일파의 분열로 마로나이트 기독교도가 힘의 우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때 상당수 Shihab가문이 마로나이트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며, 이 마로나이트 Shihab가문이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하였다.

Shihab의 후계자인 Bashir 2세((1767-1851)는 1788년부터 1840년까지 통치하는 동안 드루즈파를 탄압하였으며 레바논의 최고 통치자이자 동부 지중해 연안국중 최고 실력자가 되었다.

드루즈는 1842년까지 통치하였으며 오스만터키와 유럽열강의 지지를 얻은 반면 마로나이트 농부들의 불만을 샀다.

- 후기 오스만 통치시대

레바논에서의 마로나이트와 드루즈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오스만제국은 직접 통치를 하게 되나 갈등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마침내 1858년에는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긴장이 고조되어 드루즈와 마로나이트, 무슬림과 기독교도, 지주와 농노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내전이 발발하였으며, 1860년에 드루즈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유럽 열강들과 오스만 터키는 군대를 파견, 1861년에 새로운 지배체제를 구성하였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지속된 새로운 정부는 非레바논계 오스만 기독교인이 통치하는 정부였다. 한편,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기아와 파괴가 계속되자 마로나이트 기독교도들이 대거 미주대륙으로 이민을 떠났다.

- 프랑스의 위임통치시대 (1918-1943)

제 1 차 세계대전으로 오스만 터키가 소속된 주축국이 연합국측에 의해 패함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동맹국들과 비밀리에 현 레바논 지역을 통치키로 하고 프랑스 군대의 지휘자였던 구로 장군(General Gourau)의 포고(布告)에 의해 그랑 리방(Grand-Liban: Greater Lebanon, 대레바논)이라 불리는 국가가 설립되었다.

1926년 5월 23일에 의회제도를 갖춘 민주 공화국 헌법이 채택되었으나 프랑스 통치를 계속 받아왔다. 실제적인 정치적 독립은 1943년 11월 22일(독립 기념일)에 이루어졌다. 1945년에 레바논은 아랍국가연맹(League of Arab States)과 유엔(United Nations)의 창단에 참여하였고, 1946년 12월 31일에는 레바논에 주둔해 있던 외국 군대가 공화국 영토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 독립이후부터 내전발발까지 (1943-1975)

194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마로나이트와 무슬림은 함께 국민헌장을 제정, 권력을 분할하게 되었다.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직후 레바논은 수도 베이루트를 중심으로 유럽과 중동을 잇는 상업의 중심지로 부상되었으며, 금융 및 관광산업 번영으로 약 20년간 최고의 번성기를 구가하였다. 이루트는 이 당시에 '중동의 파리', '동양의 진주'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 레바논 내전: 1975-1990

그러나 1967년 6월 제3차 중동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요르단으로 피신했던 팔레스타인들이 1971년 9월 후세인왕의 탄압으로(검은 9월) 대거 레바논으로 몰려들었으며, 이를 계기로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간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하다가 1975년 4월 13일에 기독교 마로나이트 저격수들이 팔레스타인인을 가득 태운 버스가 베이루트 근교 Ain al-Rummaneh를 지나가고 있을 때 습격, 27명이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이 15년에 걸친 내전의 시작이 되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저격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국내 정치는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점차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던 집권 기독교 마로나이트 커뮤니티와 드루즈 커뮤니티간의 충돌이 잦았던 것이다. 드루즈파 리더 Kamal Jumblatt는 팔레스타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기독교 마로나이트 커뮤니티는 레바논 거주 PLO 게릴라들의 이스라엘 습격이야말로 레바논 내에 또 다른 팔레스타인 국가를 창설하려는 기도로 간주,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던 터였다. 중화기로 무장하고 야당계 무슬림과 연합전선을 구축한 팔레스타인은 마로나이트의 아성을 허물기 시작하였다.

PLO를 비롯한 이슬람교도와의 전투에서 기독교세력은 호텔 밀집지역인 상업 중심가를 PLO에게 넘겨주었으며, 베이루트 근교 산악지역에서도 드루즈와 팔레스타인 연합세력이 마로나이트 Kataeb세력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이때 시리아 소수세력으로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Alawi 무슬림 정권은 수단, 사우디 군대와 연합한 소위 아랍 전쟁억제군(Arab Deterrent Force)을 파견하여 중재에 나서 평화가 정착하는 듯 하였으나 집권 마로나이트 세력이 팔레스타인과의 권력 배분에 합의하지 않음으로서 중재가 수포로 돌아갔다.

1977년 3월 시리아 군대의 레바논 주둔을 극력 반대하던 레바논 국민운동 (Lebanese National Movement) 지도자 Kamal Jumblatt가 피살되었다. 이듬해인 1978년부터 1982년까지 마로나이트 세력과 시리아 주둔군간에 간헐적인 무력충돌이 계속 되었다.

한편, 1978년 이스라엘군은 PLO 게릴라들의 북부지역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레바논 침공에 나섰다. 북부 이스라엘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이스라엘군의 침공으로 수많은 팔레스타인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이스라엘군의 무조건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UN 결의안 425조」이다. 그 해 6월 이스라엘군은 점령지로부터 철군을 시작하면서 레바논 남부지역을 소위 안전지대(Security Zone)로 설정하였다. 이로 인해 PLO게릴라들의 대규모 습격은 저지할 수 있었지만 간헐적인 습격이 계속되자 1982년 이스라엘은 2차 침공에 나섰다.

한편, 시리아 주둔군과 기독교 세력간의 전투가 격화되면서 베카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Zahle까지 전장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Zahle 거주 마로나이트세력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무슬림 연합세력에게 밀리게 되자 당시 마로나이트 지도자 Bashir Gemayel은 산하의 민병대 (Lebanese Forces; LF)를 보내 지원에 나섰다지만 전략상 베카지역이 시리아의 뒷마당이라고 생각하는 시리아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개념에서 Gemayel은 이스라엘군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였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재차 침공하여 PLO를 무력화시키고 Gemayel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지역을 밀고 들어오자 Saida지역의 일부 시아파 무슬림들은 이스라엘군을 해방군이라며 환영하였다. 이는 지역 주도권을 쥔 팔레스타인들의 12년에 걸친 對이스라엘 습격과 이스라엘군의 반격으로 남부 레바논이 폐허가 되는데 따른 반감의 결과였다. 이스라엘군은 LF세력과 연합하여 시리아, PLO, 순니 및 시아파 무슬림들을 포위하기에 이르렀다. 여름 내내 이스라엘은 육·해·공군을 동원한 대규모 공격을 계속하였고 베이루트-다마스쿠스 間 보급로도 끊었다.

미국의 중재 노력에 따라 1982년 8월 중순 PLO 게릴라들은 베이루트를 떠나는데 합의하였으며 이때 상당수가 제3국으로 철수하였다. PLO게릴라들이 베이루트를 떠나기 시작한 그 해 8월말 레바논 의회는 기독교 민병대 지도자인 Bashir Gemayel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나 한 달 뒤인 9월 피살되었다. 즉시 Gemayel의 동생인 Amin Gemayel이 권력을 이어받았다. 그 직후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포위를 풀고 남부 레바논으로 철수하였으며 UN평화유지군이 대신 주둔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3년 10월 23일 친이란이슬람단체에 의한 테러공격으로 300명이 넘는 미국 및 프랑스 주둔군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UN평화유지군들도 1984년도에 레바논을 떠나게 되었다. 갑자기 권력의 진공상태가 시작되었다. 이틈을 타서 민병대 파벌 간 싸움이 재개되었으며 베이루트 거주 서방인들은 과격 시아 무슬림 일파의 납치대상이 되고 말았다. 남부 레바논 지역으로 철군한 이스라엘군은 남부지역의 PLO거점을 계속 공격하였으며 내전으로 인해 베이루트 상황이 악화되자 1987년 시리아 군대가 무슬림지역으로 진주하게 되었다.

1988년 9월 임기만료를 앞둔 Gemayel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으로 군사령관인 Michel Aoun 장군을 과도정부 수반으로 지명하였다. 당시 각 정파 지도자들이 신임 대통령 추대에 실패하게 되자 라이벌인 기독교와 무슬림 兩 진영은 각각 그들만의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1989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Taif에서 만난 레바논 각계 지도자들은 무슬림들에게 권력을 더욱 많이 양보한 새로운 헌법안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안은 Aoun에 의해 거부당하고 말았다. 그 해 11월 5일 국회의원들은 Taif에서 합의한 국민화해헌장을 비준하고 Rene Moawad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Mouawad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17일만에 피살됨에 따라 국회는 친시리아계 마로나이트인 Elias Hrawi를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

1990년 10월 시리아군대는 동 베이루트 지역을 장악하였고 연이어 Aoun에게 충성하는 게릴라들을 패퇴시켰다. 이때부터 시리아의 지원하에 레바논 정규군은 국토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었고 PLO 게릴라들을 남부 레바논 거점지역으로부터 몰아내는데 성공하였다.

- 내전이후

1991년에 들어서 그 동안 인질로 잡혀있던 대부분의 서방인들이 풀려났다.

1992년에 들어 약 20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가 치뤄져 이란의 지원을 받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정당인 헤즈볼라당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Rafiq Hariri가 새로운 수상으로 임명되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군인의 전투는 1993년까지 계속되어 ‘분노의 포도 작전’으로 최고점에 이르렀다 -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의 80여개 마을에 대해 일주일간 공중, 바다, 육지의 폭격을 계속했다. 이스라엘은 1996년 4월에 남부레바논과 베이루트를 다시 공습하였으며 2006년 현재까지도 이스라엘-레바논 양국 국경을 사이에 두고 총격이 가끔 일어나고 있다.

내전이후 국내적으로 레바논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서 고층건물도 늘어가고 있고 여러 기관들도 다시 문을 열며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며 레바논의 주요 정치적 이해관계의 갈등도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경제발전도 꾸준히 지속되었으며 관광객도 증가세에 있었다.

1998년 11월에 라후드 대통령이 시리아의 지지하에 6년 임기의 대통령에 선출되고 2004년 11월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며, 2004년 9월 4일(토) 레바논 국회는 임시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현 대통령의 임기를 3년 연장하기로 확정하였다.

2005년 2월 14일에 하리리 전총리가 암살되면서 친시리아 성격의 레바논 정부와 반시리아 세력간의 갈등이 증폭되었으며 시리아는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대를 4월 말까지 철수 시켰다.

24. 국가조직

- 국가조직

입헌공화국으로 대통령 중심제와 삼권분립을 기초로 한 의회 민주주의 체제이나 종파간 권력안배를 국가조직의 기본으로 하는 점이 특색이다.

대통령은 기독교 마로나이트, 수상은 이슬람 순니파,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 국방부장관은 이슬람 드루즈파, 군사령관은 마로나이트파 출신 중에서 선출되며 종파간 안배에 의해 부처 장관이 배분된다.

- 독립일: 1943년 11월 22일

- 헌 법

1926년 5월 23일 채택 이래 수 차례 개정.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선언은 1989년 10월의 「국민화해헌장 (타이프협약, Ta'if Accord)」이다.

- 선거권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주어지며, 여성은 초등교육을 받은 21세 이상에게 주어짐.

- 행정조직

- 1) chief of state:

대통령 Emile Lahoud (1998년 11월 24일 제 11대 대통령으로 취임)

1943년 11월 독립당시 체결된 NATIONAL PACT (불문율)에 따라 기독교 마로나이트파 인사 중에서 국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이다.

1990년 이전까지는 총리(이슬람교 순니파) 및 장관 임명권, 긴급사태하 국회 해산권 등 국가권력이 대통령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1990년 개헌으로 집행권은 내각에 이관되고 총리의 권한 강화(각료회의 주재, 대통령의 각료 해임권 제한) 및 국회의장의 권한 강화(임기 1년에서 4년 연장 및 총리 지명시 협의권)로 대통령의 권한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1998년 11월 Lahoud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통령의 권한이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

- 2) head of government:

총리 Omar Karami (2004년 10월 27일 취임)

부총리 Issam Fares (2000년 10월 23일 취임)

총리는 이슬람교 순니파 중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과 협의후 임명.

- 3) 각료: 대통령과 국회와의 협의하에 총리가 임명. 종파별 안배가 고려 (국회의원이 아닌 인사도 각료 임명 가능)된다. 각료는 총리의 사망 또는 사임, 각료 3분의 2의 사임이나 국회의 불신임투표 통과시 사임해야 한다.

- 4) 선거: 대통령은 6년마다 국회에서 선출한다. 마지막 선거는 1998년 10월 15일에 실시됨. (2004년 9월에 레바논 국회는 임시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현 대통령의 임기를 3년 연장하기로 확정함.)

총리와 부총리는 국회와의 협의하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관례대로, 대통령은 마로나이트 크리스찬, 총리는 순니 무슬림, 국회의장은 시아 무슬림중에서 선택한다.

- 입법기관

단원제 국회 (128석: 종파간 비례대표제로 국민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

→기독교와 무슬림 50:50 배분원칙(64명:64명)이 준수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21세 이상 유권자에 의해 보통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국회 구성은 레바논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국회 본연의 기능 외에 각 종파간의 조화 유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슬람교도 유권자수가 기독교도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등 배분함에 따라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지역에서 기독교도 의원을 선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 사법제도

3심제로서 골격은 프랑스 사법제도를 채택한 바, 56개 하급법원, 11개 공소원 및 4개 대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특별 종교법원이 있으며 대법원은 사법적 심사권을 갖지 않고 있다.

25. 정치제도

- 선거제도

선거법(1992년 7월 16일 개정)에 따라 이슬람교도와 기독교 동수의 국회의원 128명으로 구성된 단원제 국회로서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보통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정부수반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6년, 차기 대통령 선출은 2004년 11월에 예정되어있었으나 2004년 9월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 현 대통령의 임기를 3년 연장하여 에밀 라후드가 2007년 11월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불문률에 의해 대통령은 반드시 기독교 마로나이트 출신이어야 한다.

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며, 각 부처 장관은 대통령과 총리의 협의에 의해 임명된다. 총리는 반드시 이슬람교 순니파 출신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25년만에 처음으로 1998년 5월에 실시되었으며 2001년 9월에는 이스라엘 점령지였던 남부레바논지역에서도 실시하였다.

지난 2004년 5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다.

- 정당제도 및 현황

종교와 종파에 따라 Hizbullah(시아), Amal(시아) , National Liberal Party(기독교) 등 10여 개 정당으로 구성되어있다.

1) Amal당

리더: Nabih Berri(현 국회의장)

성격: 친시리아계, 이슬람교 시아파

시아는 레바논에서 가장 저소득계층을 이룸.

2) Hizbullah당

리더: Hassan Nasrallah

성격: 친이란계 과격 이슬람교 시아파그룹.

남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 축출을 목표로 함.

3) Katayeb Party

리더: Mounir Hajj

성격: 기독교 최대 정당.

내전이전에 비해서는 영향력 약화.

레바논의 완전 독립 추구

4) Progressive Socialist Party

리더: Walid Jumblat

성격: 무슬림 드루즈파

5) National Bloc

리더: Carlos edde

성격: 기독교 정당.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국가 레바논 지향

6) National Liberal Party

리더: Dory Chamoun

성격: 기독교 마로나이트계 중 야당세력과 제휴

7) Syrian Social Nationalist Party

리더: Gibran Arajji

성격: 친시리아계

8) Armenian Revolutionary Federation (Tashnag Party)

리더: 집단지도체제

성격: 아르메니아계

3개의 아르메니안정당중 가장 영향력이 큼

9) Armenian Democratic Party (Ramgavar Party)

리더: 집단지도체제

성격: 아르메니아계

아르메니안 자선단체들이 이 정당에 속해 있음.

10) Socialist Democratic Party

리더: 집단지도체제

성격: 가장 오래된 아르메니안 정당이나 가장 영향력이 적음.

- 2005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

2005년 5월 29일부터 시작해 4번의 일요일에 걸쳐 실시되어 6월 19일(일)에 종결되었다. 선거결과 전체 의석 128석 중 Rafic Hariri 전임 총리의 아들 Saad Hariri와 Druz의 리더인 Jumlat 등 반정부세력이 72석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개헌이 가능한 2/3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마로나이트계로서 내전 말기에 총리직을 역임한 Michael Aoun 지지파가 21석, 친시리아계 무슬림 헤즈볼라와 아말 연합이 35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 정치사회 동향

- 정치사회동향

1989년 타이프협약에 따라 종파간 권력안배를 통해 권력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에밀 라후드 대통령 (기독교 마로나이트), 미카티 총리 (이슬람 순니), 나비 베리 국회의장 (이슬람 시아)의 3두 정치체제로 대표되며 장관도 종파간 안배가 가장 우선시 된다.

Elias Hrawi를 이어받은 기독교 마로나이트파 군사령관 출신의 Emile Lahoud 대통령은 시리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시리아는 그 동안 레바논 국내정치에 간여하여 간섭을 계속해 왔는데, 기독교 마로나이트 대주교 및 드루즈파 지도자 Jumblat 등을 중심으로 한 반시리아 저항세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하리리전총리의 암살로 반시리아 세력의 저항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4월 말까지 내전이래 주둔해오던 시리아군이 전면 철수를 단행하였으며 카라미 총리내각이 사퇴하였다. 지난 4월 19일에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었으나 이는 5월로 예정된 총선을 일정대로 치루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었으며, 총선용 임시 내각인 만큼 총리를 포함하여 장관의 수를 기존의 30명에서 14명으로 대폭 줄였다.

지난 3월말과 4월초에 걸쳐 베이루트 근교 크리스찬지역에 폭탄이 3-4차례 터진 바 있으며 6월 2일에는 반시리아 언론인이 폭탄테러로 사망하였다.

국회의원 선거가 2005년 5월 29일부터 시작해 4번의 일요일에 걸쳐 실시되어 6월 19일(일)에 종결되었다. 선거결과 전체 의석 128석 중 Rafic Hariri 전임 총리의 아들 Saad Hariri와 Druz의 리더인 Jumblat 등 반정부세력이 72석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개헌이 가능한 2/3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마로나이트계로서 내전 말기에 총리직을 역임한 Michael Aoun 지지파가 21석, 친시리아계 무슬림 헤즈볼라와 아말 연합이 35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 국가원수

레바논은 명목상 대통령 중심제이나 1989년 결의된 Ta'if 협약에 의거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이 권력을 균점(내각책임제적 의원집정부제와 유사)하고 있으며, 레바논에는 대통령이 3명이라고들 한다

• 대통령

직 위: 대통령(President)
성 명: Emile Jamil Lahoud
취임일: 1998년 11월 24일
임 기: 6년

경 력

- 1936년 1월 12일 기독교지역인 Metn Baabdat 출생
- 종교 : Maronite 기독교
- 가족관계: 부인 Andrei Amadouni과 자녀 3명(아들 2, 딸 1)
- 학력 : 영국 군사 아카데미 졸업
- 1985년 1월 1일 해군제독 취임
- 1989년 11월 28일 군사령관 취임

- 총 리

직 위: 총리(the Prime Minister)

성 명: Omar Karami

취임일: 2004년 10월 27일

경 력:

- 1934년 트리폴리 출신
- 종교: 이슬람교 순니파
- 1990년~92년 레바논 총리 역임

- 국회의장

직 위: 국회의장(Parliamentary Speaker)

성 명: Nabih Berri

취임일: 1996년 8월

임 기: 4년

경 력:

- 1938년 시에라리온에서 출생
- 가족관계: 재혼, 자녀 4명 (첫 부인 소생 2명은 미국거주)
- 종교: 이슬람교 시아파 아말 지도자
- 1975년 Lebanese Univ. 졸업후 Amal Movement가담, 친 시리아
- 1980년 Amal Movement 지도자로 부상
- 1984년-89년 국민화합내각의 수력발전장관, 법무장관, 남부 레바논 문제 담당 장관 역임
- 1991년 6월 국회의원 당선
- 1992년 11월 국회의장에 피선
- 2000년 10월 국회의장 재 신임

28. 주요인사

- 정부각료: 2004년 10월 27일 개각 (11월 6일 국회 동의)

1) 총리 : Omar Karami

`90-`92년 수상 경력, 이슬람 순니파, 트리폴리 출신

2) 부총리 : Issam Fares

1937년 생, Tripoli 출신, 그리스정교회파

현 아카르 지역 국회의원, 금융분야 기업경영

- 3) 경제통상부 장관 : Adnan Qassar (이슬람 순니파, `30년생)
- 4) 공보부 장관 : Elie Ferzli (그리스정교, `49년생, Zahle 출신)
- 5) 관광부 장관 : Farid Khazen (마로나이트, `70년생)
- 6) 교육부 장관 : Ahmad Sami Minkara (이슬람 순니파, `43년생, 트리폴리 출신)
`92 관광부 장관 역임
- 7) 교통 및 공공사업부 장관 : Yassin Jaber
(이슬람 시아파, `51년생, 나바티에 출신)
`95-`96년 경제통상부 장관 역임
- 8) 국방부 장관 : Abdel-Rahim Mrad (이슬람 시아파, 전 무임소장관)
- 9) 난민/이주부 장관 : Talal Arslan (드루즈)
- 10) 내무부 장관 : Suleiman Franjeh (마로나이트)
- 11) 노동부 장관 : Assem Qanso (이슬람 시아파)
- 12) 농업부 장관 : Elias Skaff (그리스정교)
- 13) 문화부 장관 : Naji Boustany (마로나이트)
- 14) 법무부 장관 : Adnana Addoum (이슬람 순니파, `41년생)
- 15) 보건부 장관 : Mohammed Jawad Khalifeh (이슬람 시아파, `61년생)
- 16) 사회부 장관 : Ghazi Zeaiter (이슬람 시아파, `49년생)
`96-98년 국방부 장관 역임
- 17) 산업부 장관 : Leila Solh (이슬람 순니파, `46년생)
Al-Walid bin Talal Foundation의 부회장 역임
- 18) 에너지/수자원부 장관 : Maurice Sehnawi (그리스정교, `43년생)
- 19) 외무부 장관 : Mahmoud Hammoud (이슬람 시아파)
- 20) 재무부 장관 : Elias Saba (그리스정교, `32년생)
- 21) 정보통신부 장관 : Jean-Loui 's Qordahi (마로나이트, 62년생)
- 22) 체육청소년부 장관: Sebouh Hovnanian (아르메니안, 47년생)
- 23) 환경부 장관 : Wi ' am Wahhab (드루즈, `64년생)
- 24) 행정개혁부 장관 : Ibrahim Daher (마로나이트, `48년생)
- 25) 무임소 장관 :
Albert Mansour (그리스카톨릭, `32년생), `89 국방부 장관 역임
Mahmoud Abdel-Khaleq (드루즈, `38년생)
Karam Karam (그리스정교, 유임)
Youssef Elias Salameh (마로나이트, `54년생)
Wafaa Diqa Hamzeh (이슬람 시아파)
Alain Tabourian (아르메니안, `64년생)

□ 총선대비용 임시 내각 구성

2005년 2월 14일 발생한 하리리전총리의 암살로 카라미내각이 총사퇴하고 4월 19일에 Najib Mikati를 수장으로하는 내각이 구성되었다.

이 내각은 5월로 예정된 총선을 일정대로 치루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었으며, 총선용 임시 내각인 만큼 총리를 포함하여 장관의 수를 기존의 30명에서 14명으로 대폭 줄였다.

- 1) 총리: Najib Mikati
이슬람 순니. 사업가.
1998년~2004년 공공 및 수송부장관 역임
- 2) 부총리겸 국방부장관 : Elias Murr (그리스정교)
2000~2004년 내무부장관 역임
- 3) 외무부 장관: Mahmoud Hammoud (이슬람 시아)
유임. 이 장관의 유임은 하리리암살사건의 조사를 지체시킨 장관이라는 이유로 반정부파의 비난을 사고 있음
- 4) 내무부 장관: Hassan Akeif Sabaa (이슬람 순니)
The official Lebanese Hajj pilgrimage delegation의 장 역임
- 5) 문화부 및 교육부 장관: Chassan Salameh (그리스정교)
2000~2003년; 문화부 장관 역임
- 6) 법무부 장관: Khaled Qabbani (이슬람 순니)
- 7) 정보부 및 관광부 장관: Charls Rizk (마로나이트)
1998년이래 Francjphone Permanent Committee에서 현대통령의 개인 대변인직 수행
- 8) 재무부 및 경제부 장관: Domianos fares Kattar (마로나이트)
사업가
- 9) 공공사업, 교통부 장관 겸 이주부 장관: Adel fouad Hamieh (드루즈)
1982~1983년: 재무부 장관 역임
- 10) 체신, 전화, Telegram 장관 및 체육청소년부 장관: Alain Tabourian (아르메니안)
전 무임소장관 역임
- 11) 산업부 및 석유, 에너지, 수자원부 장관: Bassam Antonie Yamine (마로나이트)
전 내무부 장관 Suleiman Franjieh의 자문 역임
- 12) 보건부 및 사회부 장관: Mohammed Jawad Khalife (시아)
유임
- 13) 환경부 및 행정개혁부 장관: Tarek Elias Mitri (그리스정교)
- 14) 노동부 및 농업부 장관: Tarrad Kanj Hamadeh (시아)

29. 행정구역

1. 국가명:

- a) conventional long term: Republic of Lebanon
- b) conventional short term: Lebanon
- c) local short form: Luban
- d) local long form: Al-Jamhuriyah al-Lubnaniyah

2. 수도: 베이루트

3. 레바논은 6개 주(Mohafazat)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별 인구분포는 <표>와 같다.

<표> 각 주(Mohafazat)별 인구분포

(단위: %)

Mohafazat (중심도시)	인구 분포
베이루트 및 근교 (Beirut)	32.5
Mount Lebanon (Baabda)	15.1
South Lebanon (Sidon)	11.8
Nabatieh (Nabatieh)	6.9
Bekka (Zahle)	13.6
North Lebanon (Tripoli)	20.1
합 계	100.0

*자료원: Business and Travel Guide, LIBC 2000 (2005년 현재 최신자료임)

4. 내무부장관은 각료회의의 의결을 거쳐 6개 주의 주지사(Governor)를 임명하며, Governor는 각각 Mount Lebanon, North Lebanon, Nabatieh, South Lebanon & Bekka 등 해당 주정부 (Governorate)를 관장하고 있다.

주지사는 차관급의 공무원 신분으로 주에 대한 행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참고로 이러한 주지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 우리나라의 도지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5. 기초 단체인 시, 읍마다 시장(Mayor)과 읍장(Chief of Municipality)이 있는데, 이들은 주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시장은 목타르(Moktar)라 하여 결혼, 장례등과 같은 일종의 Family Affair를 주관하며, 읍장은 쓰레기 수거, 지방세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와 별도로 우리나라의 기초의회와 유사한 위원회(Council)가 구성되어 있다.

6. 주요도시

- a) 베이루트: 레바논의 수도이며 정치, 행정, 상업 등의 중심지
- b) 트리폴리: 레바논북부에 소재한 제2의 도시이며, 시리아 등 북부지역과의 교역에 있어서 중심도시임. 십자군시절의 중세유적과 이슬람의 모스크등 유적이 혼재하며, 북부지역의 주요 산물인 올리브유로 만든 비누 등 비누, 식용유(주로 올리브유), 철강, 타폴린, 목재가구, 합판, 설탕, 담배, 과일 등이 집적 출하되고 있음.
- c) 시돈: 베이루트 남부 48Km 지점에 위치한 남부 제일의 도시이며 레바논 제 3의 도시. 고대부터 무역이 발달하여 지중해의 교역을 지배했으며, 자주색 염료와 유리 수공업품이 유명했고, 이집트와 유럽의 문물의 중계교역지 역할을 수행.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많이 쇠퇴한 상태이나, 남부 무슬림의 거점 도시로서 무역 및 어업 항구.
- d) 자흘레: 베카계곡 서쪽 레바논 산맥에 위치한 해발고도 800m를 넘는 고산도시로서 레바논 제 4의 도시. 베카지역에서는 드물게 기독교계 인구구성이 높은 도시로서 내전시 기독교계의 주요 거점역할을 수행하였음. 여름 휴양지이며 전면에 비옥한 베카계곡의 넓은 경작지를 두고 있음. 베카계곡은 그 자체로서는 해발고도 800m를 넘는 고산지역이나, 레바논 산맥과 아티레바논산맥의 중간에 끼어 남북으로 긴 계곡모양을 형성하고 있으며, 선선한 기후와 풍부한 수자원, 넉넉한 일조량으로 포도 및 포도주의 주생산지이며 농산물의 산출이 풍부함.

30. 대외관계

레바논은 중동문제는 유엔안보리 제 결의(242, 338및 425호 등), 마드리드 평화회담에서 합의된 Land for Peace원칙 및 오슬로 회담 합의에 입각, 포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특히 남부 레바논 문제와 골란고원 문제의 분리타결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진행중인 평화협상에 대한 입장

현재 이·팔 협상 교착 상태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정부의 비타협적 강경 입장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동평화협상에서의 미국의 주도적 역할은 인정하나 미국의 對이스라엘 편향정책에 비판적이다.

레바논에는 약 400,000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무장 팔레스타인 단체는 자동적으로 레바논 전국에 산재해 있는 refugee camp에서 활동하고 있다.

- 이스라엘의 남부레바논 철군

2000년 5월 남부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철군을 단행하였으나 쉘바농장의 국경선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레바논과 시리아는 쉘바농장이 레바논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유엔과 이스라엘은 쉘바농장이 시리아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과 이스라엘은 쉘바농장 문제에 레바논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동 영토의 회복을 위해 반이스라엘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문제

이스라엘·레바논 평화협상은 이스라엘·시리아 Track과 병행, '96년 협상 중단된 지점에서 재개되어야 하며 팔레스타인난민문제, SLA (the South Lebanon Army)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남부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물 분쟁

남부레바논은 이미 언급했듯이 쉘바농장 문제로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대립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레바논이 2002년 10월에 양국 국경에서 수km 떨어진 Hasbani river에 Wazzani Springs 펌프스테이션을 설치하자 이스라엘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과 미국, 유엔이 중재에 나서서 Hasbani river의 근원지에 대한 기술적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water-sharing issue에 대한 어떤 해결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 대 시리아 관계

1991년 시리아와는 형제, 협력 및 조정 조약을 체결하여 시리아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대하며 레바논 국내 안정을 이유로 시리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레바논에 파견된 시리아군의 규모는 약 15,000명으로 주로 Bekaa Valley, 주요 도시 주변, 전략적 도로나 산마루에 주둔하고 있다. '92년 9월까지의 주둔기한이 지났으나 계속 주둔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간에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혈맹관계를 유지하였다.

기독교 마로나이트 세력과 이슬람 드루즈파 지도자 Jumblat는 시리아군의 주둔 및 영향력 행사를 지속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UN 결의안 제 1559호에서도 시리아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라후드 대통령은 2004년 10월에 개각을 단행하면서 계속 친시리아 인사를 대거 등용, 시리아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정서와 반하고 있으며 UN으로부터도 압력을 받고 있다.

2005년 2월 14일 하리리 전총리의 암살로 반시리아 세력의 요구에 따라 시리아군은 2005년 4월 말까지 모두 철수하였다.

- 대 EU관계

EU 및 회원국의 레바논 원조는 전후 레바논의 대외원조 총액의 38%를 차지하는 \$ 11억 8,000만에 상당하며 1997 - 2001년간 총 \$ 8억 1,300만의 원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EU는 레바논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오고 있다.

레바논은 미국의 對중동정책이 이스라엘에 편향적이라고 평가, EU측이 중동 평화 협상 진전을 위해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역할 강화를 바라고 있다.

레바논은 1998년 6월 EU-지중해 각료회의에서 중동평화협상에 진전이 없는 한 EU-지중해권 경제협력 추진도 對이스라엘 압력을 위해 유보되어야 한다는 아랍입장을 정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1996년 2월 레바논 내각 심의를 통과한 레바논-EU 동반자협정이 2002년 초 서명되어 유럽국가와의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31. 국가경쟁력

<국가경쟁력>

매년 세계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세계 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하는 GCR(Global Competitiveness Report)과 IMD에서 발표하는 WCY(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가 각국 언론과 정부기관 등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현재 상기 자료들을 포함한 여타 기관의 자료 중 레바논의 국가 경쟁력에 대해 발표된 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레바논의 국가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해 「CIA WORLD REPORT 2005」에 나와있는 주요 항목에 대한 레바논의 순위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표를 작성하였다.

[표] 주요지표별 레바논 순위표

지표(연간)	통계수치	레바논 순위/전체국가
GDP 규모	US\$ 178억 2천만	111/232
실질 GDP 성장률	3.0%	114/214
국민 1인당 GDP	US\$ 4,800	131/232
인플레이션rate (소비자물가)	2.5%	89/222

노동력	150 만명	117/210
실업율	18.00	139/192
Investment (gross fixed) (% of GDP)	24.8%	35/145
공공부채 (% of GDP)	185.1%	2/109
외환보유고	US\$ 163억 5천만	36/147
대외부채	US\$ 207억 9천만	45/200
교역량(수출)	US\$ 13억 5900만	119/226
교역량(수입)	US\$ 60억 7300만	79/226
전력생산량	67억 2800만kWh	97/213
원유생산량	0 배럴/일	-
천연가스 매장량	0 m ³	-
전화선(고정)	678,800 회선	85/234
전화선(휴대폰)	775,100 회선	92/229
인터넷 사용자	400,000	81/214
고속도로(km)	7,300km	143/229
군사비 지출	US\$ 5억 4100만	68/170
군사비 (% of GDP)	4.8%	20/166

* 자료원 : CIA WORLD FACT BOOK 2005

32. 도량형

- 도량형

거리에는 '미터법'을 사용하며 중량은 'kg'이 기준이다. 식품이나 야채를 구입할 경우 중량에 의거하여 'kg'을 사용하며, 자동차에 쓰이는 휘발유의 경우 요금 표시단위가 '20리터' 당으로 계산한다.

- 전기규격

단상 220V가 공급되고 있으나 전력 품질이 좋지않아 200V 250V까지 편차가 심한 편이다. 따라서 컴퓨터나 TV등 주요 통신·가전 제품의 경우 regulator와 정전에 대비 UPS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이클은 50Hz이므로 50/60Hz 겸용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33. 관공서 관행

- 민원 처리기간

관공서 일처리는 사안에 따라, 또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처리를 요청한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처리기간이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한국에 비해 매우 느린 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관청마다 Overstaffing 상태여서 결재라인이 복잡하고, 부서(처)간 협조도 잘 되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기관별 협조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인이 직접 찾아가거나 지원해 주어야 한다. 공관이나 외국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리가 빠른 편이다.

레바논 IDAL(투자청)은 투자자에게 one-stop service를 실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급행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으나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중요 인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 관공서 방문시 유의사항

공무원의 부패정도가 심각하며 commission이 관행화되어 있다.

외국인 육체 근로자들 특히 아시안에 대해서는 관공서 직원들이 고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반드시 정장차림으로 방문토록 한다.

사전 약속은 필수적이며, 건물 입구 경비원에게 면담자 성명과 부서를 분명히 말해야 면담이 허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간단한 선물을 지참해도 무방하며, 이는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눈에 띄는 정도로 화려하거나 고가품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달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34. 국제공항 및 항구

- 국제공항

베이루트 시내에서 16Km 가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레바논 유일의 국제공항인 베이루트 국제공항은 2002 년 6 월에 완공되었다. 연간 600 만명의 승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국내외 유수의 항공사가 이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취항하지 않고 있다.

- 항구

주요 항구는 베이루트(수도), 트리폴리(레바논 북부의 주요 항구), 쥘니에, 시돈(레바논 남부의 주요 항구), 티르에 있으며 내전 전에는 트랜짓의 중심이기도 하였다.

35. 매스미디어

<레바논 정보통신 · 매스미디어>

개방적인 문화,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매스미디어 분야는 중동 전역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발달되었다. 매스미디어 시장규모는 약 US\$ 1억 수준이다.

- 신문

12개의 전국 규모 일간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중 불어 및 영어 일간지가 각각 1개 씩이다. 아랍어 일간지인 ‘An-Nahar’가 구독율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유일의 영자지 ‘The Daily Star’는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지와 중동 13개국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동권에서 영자지로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문이 레바논에 관한 최근 소식을 게재한 website를 운영하고 있다.

영어뉴스는 www.dailystar.com.lb를 보면 되며, Yalla는 최신 정치·경제적 정보와 링크를 제공한다. (www.yalla.com.lb)

이외의 유용한 website로는 www.lebanonlinks.com이 있다.

매체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상세정보
An-Nahar (아랍어)	01-340960	www.annahar.com.lb	`33년 창간, 현지어 최대종합일간지
As-Safir (아랍어)	01-350080	www.assafir.com.lb	`74년 창간, 현지어 종합일간지
L'Orient-Le Jour (불어)	01-340561	www.lorient-lejour.com.lb	유일의 불어 일간지
The Daily Star (영어)	01-587277	www.dailystar.com.lb	`52년 창간, 유일 영자 종합일간지
Al-Mustaqbal (아랍어)	01-797779	www.almustaqbal.com	`99년 창간
Al-Anwar (아랍어)	05-450933	www.alanwar.com.lb	종합 일간지
Al-Hayat (아랍어)	01-742201	www.alhayat.com	정치 일간지

- 잡지

전국에 걸쳐 약 100여종의 정기간행물이 발간되고 있다.

매체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상세정보
Al-Bayan (아랍어)	01-396805	www.albayanmagazine.com	경제월간지
Al-Mal Wal A'Alam (아랍어)	01-745245	www.almal-walalam.com	경제월간지
Al-Handasah (아랍어)	05-459898	www.autool.com	건축전문월간지
Assouk (아랍어)	04-414061	www.assouk.com	홈쇼핑 · 통신판매 가이드 잡지
Al-Iktissad Wal-Amal (아랍어)	01-353577	www.iktissad.com	주요 경제월간지
Al-Mourakeb Al-Inmai (아랍어)	09-210929	www.al-morakeb.com.lb	주요 시사경제 월간지
Le Commerce Du Levant (불어)	01-561898	www.lecommercedulevant.com	주요 경제월간지
Executive (영어)	01-611696	www.executive-magazine.com	주요 경제월간지
Lebanon Opportunities (영어)	01-739777	www.opportunities.com.lb	주요 경제월간지

- TV방송

1959년도에 첫 상업방송을 시작했으며 내전이 한창이던 `70-`80년대에는 무려 40개 방송국이 있었다. 1995년 현재 15개의 방송국(5개의 repeaters 포함)이 있다. 그 중에서 Tele Liban 1개 방송국만 공영 방송이며 경영난으로 일시 폐쇄 후 재개하였다. 여타 방송국은 민영 방송국이다. Future 및 LBC는 아랍지역에 위성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매체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상세정보
LBC International TV	09-938938	www.lbci.com.lb	시청율 1위(53%) 민영방송
LBC SAT	09-937915	www.lbcsat.com.lb	
MTV	01-217000	www.mtv.com.lb	시청율 2위(46%), Murr 전부총리 소유
Future TV	01-355355	www.future.com.lb	시청율 3위(32%), Hariri 전총리 소유
NBN	01-841020	www.nbn.com.lb	시청율 4위(17%), Berri 국회의장 소유
Al-Manar TV	01-276000	www.almanar.com.lb	시청율 5위(9%), 헤즈볼라 소유
Tele Lumiere	01-255500	www.telelumiere.net	시청율 6위. 기독교 방송
Tele Liban	01-792000	www.tele.liban.com	시청율 7위(15%) 공영 TV
New TV	01-818551	www.newtvsat.com	2002년 신설

텔레비전 보급대수는 1997년 현재 118만대이다.

- 라디오

라디오방송은 내전 중에는 지역 시민군(밀리샤)의 홍보수단으로서 가장 인기가 있었으며 내전 후 상당수의 FM방송국에 대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아직도 약 20개의 AM방송국, 22개의 FM방송국, 4개의 단파방송국이 활동하고 있다.

매체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상세정보
Radio Voix Du Liban	01-323458	www.vdl.com.lb	아랍어, 청취율 1위(7.9%)
Radio Liban Libre	01-202501	www.rll.com.lb	아랍어, 청취율 2위(7.3%)
Radio Delta	04-972441	www.4com.net.lb	아랍어, 청취율 3위(6.9%)
Sawt El Ghad	01-398128	www.sawtelghad.com	아랍어, 청취율 4위(6.3%)
Radio One	04-872000	www.radio-one.com.lb	영어방송, 청취율 5위(5.8%)

라디오보급대수는 1997년 현재 285백만대이다.

- 전화

일반전화 가입자는 2004년 현재 750,000회선이다.

휴대전화 가입자는 2004년 현재 775,100회선이다.

- 인터넷

ISPs (Internet Service Providers)는 2005년 현재 Cyberia, Sodetel, IDM, Terranet 등 7개사가 운영되고 있다.

레바논의 인터넷 보급은 2002년 현재 인터넷 사용자수는 400,000으로 추정되고 있다.

36. 주한 주재국기관

- 주한 레바논 대사관

대 사 : Hussein Rammal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310-49번지

전 화 : 794 - 6482~4

팩 스 : 794 - 6485

37. 현지화제 유머속담/현지화제, 유머 속담

- 레바논 브로커 관련 유머

A국에서 인공위성 구입을 입찰하였다.

이에 미국 업체가 US\$ 100만, 프랑스 업체가 US\$ 200만, 레바논 업체가 US\$ 300만의 가격을 제시하였다.

(1) A국의 입찰담당자와 미국업체와의 대화

입찰담당자: ‘ 어떻게 US\$ 100만에 생산이 가능하가? ’

미국 업체: ‘ 우리회사는 인공위성을 많이 만들어 보아 기술이 뛰어나고 대량생산으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

(2) A국의 입찰담당자와 프랑스업체와의 대화

입찰담당자: ‘ 어떻게 프랑스는 미국의 응찰가격의 2배나 되는 US\$ 200만의 비싼 가격에 응찰을 하였나? ’

프랑스 업체: ‘ 우리는 인공위성을 정교하고 예술적으로 만들 수 있다. ’

(3) A국의 입찰담당자는 마지막으로 레바논 업체를 불렀다.

입찰담당자: ‘ 레바논은 무슨 기술이 있어서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느냐? ’

레바논 업체: ‘ 응찰가 US\$ 300만중에서 US\$ 100만으로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사들이고 나머지 US\$ 200만은 너랑 나랑 US\$ 100만씩 나눠 가지면 되지!?! ’

이렇듯 레바논에서 사업을 할 때 브로커가 끼면 소개비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생각한다.

- 시리아 다마스쿠스 북쪽에 위치한 ‘ 홈즈 ’ 사람들과 관련된 유머

(1) 홈즈사람들이 18명이상 극장에 가는 이유:

‘ Under 18 is not allowed ’ 라고 극장 입구에 써 있기 때문에

(2) 홈즈사람들을 하루종일 바쁘게 만드는 방법

- ① 종이 한장 앞뒷면에 Turn over이라고 써준다.
- ② 둥근 방에서 코너를 찾아 앉으라고 한다.

(3)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탈 때 2달러짜리 지폐를 포켓에 넣고 탄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사고로 떨어지면 서비스(현지 합승택시)타고 집에가야 하니까.

(4) 홈즈병사가 레바논에 왔다. 못보던 것들이 많아서 총을 팔아서라도 사주고 싶어 소대장과 상의를 했다.

“ 팔아서 사라. 대신 이스라엘 병사를 만나면 손으로 가리키면서 입으로 빠바방해라. 이스라엘애들은 시리아 병사를 무서워해서 그렇게만 해도 무서워서 달아난다! ”

이스라엘군과 전투가 시작됐다. 홈즈병사가 손으로 가리키면서 “ 빠바방... “ 하는데 뒤에서 소리가 났다.

“ 슈우우 광... ” 대포소리! 소대장은 대포도 팔아 먹었다.

- 2003년 이라크전으로 부시에 대한 유머가 한창 유행이었다. 중동에서는 이라크 전쟁이 근거없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일반인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다.

부시가 의사에게 뇌검사(brain examination)을 받으러 갔다.

뇌검사를 다 마친 후

부시: What ' s wrong with my brain?

의사: Your brain has 2 sides, right and left.

부시: Everyones ' brain is like that.

의사: That isn ' t the problem.

The problem is that your right brain has nothing left in it, your left brain has nothing right in it.

(문제는 너의 오른 쪽 뇌는 텅 비어 있고, 왼쪽 뇌에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38. 물가정보

<도시명 : 베이루트 >

항 목	기준품목	금액(US\$)	품목 내역
식 품 기호품	김치찌개	N/A	1인분
	햄버거	2.87	맥도날드 빅맥 1개
	수입담배	1.33	말보로라이트 1갑, 20개피
주 택 사무실 월임차료	중급아파트	2,083.33	150m ² /월, Semi-furnished
	중급단독주택	3,333.33	150m ² /월, Semi-furnished
	사무실	3,000.00	150m ² /월

교통차량	자동차 2000cc	17,500.00	현대 소나타
	시내버스 요금	0.50	1구간
	택시요금 (기본)	3.30	-
	택시요금 (추가)	N/A	km당
통신전기	공중전화요금	0.20	시내, 3분
	국제전화	4.60	현지-서울, 3분
	전기요금	\$19.4+0.03/kWh	가정용, 1kWh
	인터넷 사용료	40.00	1개월 기본료
교육	사립학교 수업료	2,000.00	초등 1년간
	외국인학교 수업료	8,141.00	초등 1년간, American School
레저·오락	골프장 그린피	50.00	비회원, 18홀 1라운드
	영화 관람료	5.00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의료	병원진료비	50.00	몸살감기, 내과초진
호텔	특급호텔 숙박료	280.50	할인, 싱글 1박
	중급호텔 숙박료	89.10	할인, 싱글 1박
임금 (월급여)	현지기업 비서	400.00	초임, 학력불문
	현지기업 직원	600.00	대졸, 초임

* 자료원: 무역관 자체 조사 (2004. 11월 말 현재)

39. 경제발전사

천연자원이 부족한 레바논의 큰 자산은 자국민들의 진취적인 정신과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는 레바논의 지리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키고 있으며, 소득세 징수는 최고 1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레바논은 다양한 기술·개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레바논의 경제는 무역, 은행, 금융업등의 서비스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자유통화시장(free currency market)정책을 실행하여 중동 지역에서 상업과 관광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발전사>

- 1943년 - 1975년

1943년까지 레바논의 경제체제는 프랑스 통치의 식민지 경제체제를 유지하였으며, 독립후에는 자유시장경제체제와 사유재산제를 기초로 운영되고 있다. 1975년 내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레바논은 중동지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된 나라 가운데 하나로서, 주종인 서비스업과 소규모의 농업, 그리고 성장세를 타고 있는 공업 분야가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베이루트는 은행과 금융업에 있어서 중동지역의 중심부 역할을 하였으며, 1973년 석유파동으로 인해 경제는 한층 더 성장하여, 아랍 자본의 유입이 증가하고, 걸프지역 산유국들에 나가있는 레바논 근로자들의 송금이 급격히 증가하여 레바논의 경제는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 1975년 - 1990년

내전으로 생산기반의 전반이 파괴되고 중동의 중심지 역할이 상실되는 시기이다. 일어난 내전과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레바논의 이러한 경제적인 전성기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1975년부터 1990년 사이의 레바논 경제는 내전과 1978년과 1982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인해 급속한 인플레이, 공장파괴, 관광산업 및 국가 기간 인프라가 마비된 시기이다.

이 기간 중 주된 경제 기반이었던 서비스 산업은 외국으로 자리를 넘겨주었고, 농업과 공업의 기간시설들은 황폐화되었다. 이렇듯, 내전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인해서, 경제 전반에 걸친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 1991년 - 현재

1975년 내전발발이전에는 국내총생산의 12%에밖에 미치지 못했던 공공부문 수익금이 내전종식후인 1991년에 이르러서는 국내총생산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 되었다. 1993년에는 Horizon 2002라는 180억불 규모의 국가재건계획이 하리리(Hariri)수상에 의해 출범하였고, 이어 1994년에는 국내총생산이 약 8%, 1995년에는 7% 성장하였다. 1996년에는 이스라엘의 일명 ‘분노의 포도’ 군사작전(Grapes of Wrath military operation)으로 경제활동이 방해를 받기도 하였으나, 1992년에서 1998년 사이 연간 물가상승률이 170%에서 6%로 떨어졌고, 외환 보유고도 14억불에서 60억불 가까이로 늘어났다.

금융부문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여, 1996년 1월에는 레바논의 주식시장이 다시 개장하였고 국제 은행들과 보험 회사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물리적인 기간 시설들의 재건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솔리데르(Solidere)라는 20 억불 자산의 레바논 부동산개발 회사가 현재, 시민 광장과 국회의사당의 건축에서부터 도로 및 공공 이용시설과 수중공사 등을 포함하는 현대적인 기간 시설 시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재건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솔리데르사는 베이루트내 다운타운 중앙상업지구의 재건축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재건 사업들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는 외환지급준비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부채증가로 1998 년 10 월, 정부는 1997 년 국내총생산의 18%에 달하는 적자를 1998 년까지 약 12%로 줄이기 위해 편성된 긴축예산안을 승인하였다. 1999 년 4 월 발표된 예산안에서 임금과 급료에 대한 지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소비재에 대한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긴축재정정책을 이어나갔다. 정부는 1997 년 수준인 51 억 6,000 만불 정도의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 중 약 40%는 국내 부채가 대부분인 부채 상환금으로 책정되었었다.

1990 년부터 레바논 정부는 이자율이 12.7%에서 16.7% 사이인 레바논 파운드화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적자재정을 메꾸어 왔다.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와 국제통화시장의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중앙은행은 레바논 파운드화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더욱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했다. 금을 제외하고 1998년 6월말에 74억불에 달했던 지급준비금은 같은 해 8월과 10월 사이에 17억불로 떨어졌으나, 1999년과 2000년에 다시 95억불 수준을 회복했다.

1998년말에는 투자의 증대와 건설업,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약 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레바논 재건계획 발표이후 국내외 투자가 활성화되고 '96년까지 건설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96년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었다가 2001년 9·11 테러이후 레바논 경제 여건은 다소 향상되었다.

2001년 9·11테러이후 Gulf국가로부터 유입된 자금이 국제수지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구미지역으로 몰리던 중동 관광객의 목적지가 중동내 유수의 휴양지인 베이루트로 바뀌는 추세에 따라 2003년에는 6%의 관광객 증가 및 수출 증대(2002년대비 45.9% 증가)로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재정적자율이 2003년 12월말 현재 누계로 총수입대비 재정적자가 37.2%로 중동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며, 2004년 12월말 현재 국내총생산액 195억 달러를 상회하는 공공부채 348억 달러를 이유로 들어 정부의 위기관리 실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S&P사가 2003년 4월 24일 발표한 레바논 신용등급에 의하면 국가 신용등급은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개선되었으며, 장기 신용등급은 B-, 단기 신용등급은 C를 그대로 유지되었다.

40. 경제 정책

<경제정책>

레바논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업에 있어서 강력한 자유방임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산업분야별로는 금융, 보험, 무역, 서비스 분야가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레바논경제의 최대 현안은 재정적자 완화, 민영화, 부가가치세 도입을 통한 안정적 세수 확보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인프라를 재건하는 것이다.

레바논 정부는 전후복구프로젝트를 골자로한 'Horizon 2000 Plan'을 수립 하였다.

정부는 `91년 민간부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재건개발위원회(CDR: Council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를 총리실 직속으로 신설하고, 동 위원회로 하여금 복구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토록 하였다. `91년 말 CDR은 사회인프라와 정부의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복구를 골자로 한 우선순위 프로그램(Priority Program)을 입안하였다.

Priority Program 은 `91년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정치적 불안정으로 진척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후CDR은 세계은행과의 협의를 거쳐서`92년 우선순위프로그램 규모를 29억 달러 정도로 확대하였으며 긴급복구프로그램(NERP: National Emergency Reconstruction Program)을 마련하였다.

`93-`94년 중 일련의 긴급복구공사 프로젝트가 발주되었으며 이 가운데는 현대건설의 변전소 복구공사와 극동건설의 상수도 공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 Horizon 2000 Plan

전후복구프로젝트는 `94년 하리리 정부가 'Horizon 2000 Plan'을 완성시킴으로써 절정에 달했으며, 1995-2007년까지 정부의 투자계획을 담고있다.

'Horizon 2000 Plan'은 '95 - 2007년까지 약 177억 달러가 소요되는 프로젝트이다. 'Horizon 2000 Plan'의 목표는 21세기 번영을 위한 토대를 정비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5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 ① 물리적 인프라 개선 (37%): 전력, 전기통신, 도로 및 고속도로
- ② 사회적 인프라 개선 (25%): 교육, 직업훈련, 기술교육, 문화, 보건, 주택
- ③ 공공서비스 개선 (22%): 상·하수도, 공공운송, 철도
- ④ 생산성 향상 (8%): 농업, 관개, 제조업, 석유, 공항, 항만, 자유무역지대, 관광, 민간서비스
- ⑤ 정부기능 정상화 (8%): 관공서, 보안경찰, 공공 인포메이션 등

‘ Horizon 2000 Plan ’ 에는 1995 - 2007년까지 민간 부문투자를 공공투자의 2배가 넘는 42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를 8%로 잡고 있다. 2006년에는 ‘ Horizon 2000 Plan ’ 지출을 합한 총재정지출이 재정수입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계획을 작성하였다.

CDR은 총 정부지출 177억 달러는 경상가격으로 따질 경우 222억 달러로 잡고 있으며 원리금 상환 및 초기 경상지출비용으로 88억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Horizon 2000 Plan'의 총규모는 3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Horizon 2000 Plan'은 의욕에 비해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 성공한 분야

핵심적인 불편사항을 내전 이전의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까지는 발전했으나 미래를 위한 시설확장의 단계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 ① 전기통신 시스템: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정도로 성공.
2개의 GSM휴대용 전화시스템이 BOT 베이스로 설치되어 중동 국가중 가장 성공적인 네트워크를 보유.
- ② 전기: 아직까지는 수시로 斷電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 전력 공급이 가능해 짐.
- ③ 도로: 여러 종류의 도로건설 프로젝트가 진행중임.
그러나 대규모 도로건설 프로젝트는 입찰이 연기되고 있음.

- 실패 내지 미흡한 분야

- ① 경제성장률이 당초 계획했던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개선될 전망도 높지않음.
- ② 재정에서 충당하려는 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오히려 재정적자가 심화.
- ③ 현재 추진중인 프로젝트 규모가 14억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프로젝트 추진, 탄력이 크게 감소.(2002년이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차원의 프로젝트 사실상 동결)

정부의 재건공사에 너무 많은 자금이 투입되면서 여타부문 경제활동에 주름이 가해지고 재정적자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세계은행보고서는 레바논정부가 복구공사 규모를 축소하고 민자유치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면서 통신, 전력, 항만, 철도, 상하수도 관리부문이 민간자본 참여대상 사업임을 예시하였다.

CDR은 컨설턴트그룹 (Bechtel Int'l과 Dar al Handasah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도움으로 장기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 추진계획은 다음 3단계로 구성된다.

- 5개년 복구 계획 : '93 ~ '97년, 전쟁 전의 경제, 사회, 제도적 기본골격 복구
- 5개년 전후 회복계획 : '96 ~ 2000년. 전쟁여파의 일소
- 장기경제개발계획 : 2010년.

희망적인 국가발전을 이룰 균형성장의 기본 골격 제공 및 장래 레바논을 중동 및 세계적 상업중심지로 변모

레바논 정부가 2000 년 11 월 이후 추진해온 경제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 관세인하(12% →6%)
-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새로운 관세법 제정
- Introduction of an open skies policy
- 부가가치세 도입
- 새로운 외국인 부동산 소유법 제정
-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기업체의 부담 감소 추진 (38.5% →23.5%)
-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협약 체결 등

또한 레바논은 회원국 가입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평가를 준비중이다.

레바논 정부는 민영화의 모든 과정과 재정적 지원이 공공부채 감소와 부채서비스 재정립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중앙은행내 특별계좌개설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레바논 정부는 이동통신분야의 민영화를 위한 법을 통과시켰으며, 2002 년 8 월 전력의 생산 및 분배 부문의 민영화를 위한 초안이 비준되었다.

레바논 정부는 민영화작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2001 년 5 월 Hariri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Higher Council for Privatization(HCP)을 설립한 바 있다.

2002 년이후 레바논 정부는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2002 년 외환위기를 맞아 파리 II 원조공여국 회의를 통해 긴급자금의 지원을 받아 이를 극복하였으나, 2000 이후 지속되는 경제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4 년들어서는 Emil Lahoud 대통령의 임기 만료(2004 년말)를 앞두고 대통령임기 연장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모든 관심을 집중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쟁의 여파로 경제 및 기타 정부의 정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2004 년 9 월에 대통령임기에 대한 헌법의 연임제한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현 대통령의 임기가 3 년 연장되자 정국은 극도의 혼란속으로 접어든 가운데, Rafic Hariri 총리가 사임하고 후임 Omar Karami 총리 내각이 들어섰다.

2004 년초 이래 레바논 정부는 기존의 내각 혹은 새로운 내각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늘 이들 내각의 임기가 불과 수개월에 그치는 단기간 내각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이들 내각은 어떠한 중장기적 정책결정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현상유지에 급급하였다.

급기야 2005년 2월 14일 전임 총리가 폭탄테러로 사망하고 이에 뒤이은 전국적인 시위와 서방의 압력속에 시리아가 철군하고 내각 사임에 따른 실질적인 정부의 부재현상이 지속되어오면서 기타 정부의 역할과 더불어 정부의 경제정책도 부재한 상태이다.

과도내각 성격이 짙은 현임 Najib Mikati 내각은 2005년 6월 현재 진행중인 선거가 종료되면 새롭게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과 민간부문의 대응도 이를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41. 금융통화제도

<금융통화제도>

(1) 중앙은행(Central Bank of Lebanon)

- '63년 칙령 13513호로 공포된 "The Code of Money and Credit"에 의해 '64년 설립되었으며 화폐 발행, 은행의 은행, 정부은행 등 일반적인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은 중앙위원회(the Central Council)에서 이루어지며 총재, 부총재, 재무부 국장, 경제성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중앙위원회는 중앙은행의 일반적인 역할에 대한 결정, 보상위원회(Compensation chambers)의 설치와 조직화에 대한 심의, 공공부문 자금 대부 요청에 대한 결정, 레바논 달러시장의 운영 및 조직화, 은행 보유액의 일정비율을 국가경제부문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시중은행

- 레바논에 있는 은행은 소유형태에 따라 ① 레바논 은행(limited co.), ② 아랍 및 비아랍권의 통제하에 있는 레바논 은행, ③ 아랍권 은행의 지사, ④ 비아랍권 은행의 지사로 구분된다.
- 은행제도는 비교적 발달되어 자본거래가 자유화되어 있으며 '56년에 제정된 은행비밀유지법 (Law of Bank Secrecy)에 따라 은행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고객의 비밀을 누설 할 수 없다.
- 은행계좌의 개설내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장 또는 계좌개설인의 대리인만이 알 수 있다. 예금주들 중 한 명이 서명함으로써 공동계좌(Joint account)개설이 가능하며 은행에 개설된 저축계좌 및 모든 당좌 계정은 부동산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 칙령 9976호 (`75.4.1)로 공포된 ‘자유금융지역(free banking area)’의 조항에 따라 비거주인 개인 또는 법인의 외화예금은 부동산, 의무적립금 및 예금담보대출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2005년 현재 53개의 일반 은행과 8개의 장기신용은행이 있으며 804개의 지점에 15,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총 자산은 약 US\$ 610억 가량된다.

(3) 특수은행

- 레바논에는 2종의 특수은행이 있으며 6개월간 예금을 예치하면 최소 2년간의 대출을 해주는 민영은행과 공동 출자은행이 있다.
- 민영은행(Private bank)은 칙령 50호(`83.7.15)에 의해 규제를 받으며 Bank Financing s.a.l.과 Infibank s.a.l. 두 종류가 있다. 중·장기 신용대출을 목적으로 하지만 법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활동은 저조하다.
- 공동출자은행은 주택은행(Bank of Housing s.a.l.)과 산업관광개발은행 (National Bank of Industrial and Touristic Development : NBITD s.a.l.) 등 두 종류가 있다. 이들 은행들은 물가가 안정되었을 때에는 큰 역할을 담당했으나 인플레이로 인해 현금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레바논 정부는 이들 은행들의 중요성을 인식, 주택은행을 시작으로 법개정 작업을 하는 등 부양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NBITD는 레바논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산업, 관광부문 프로젝트에 대한 재원조달과 외국투자를 장려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후 부양책을 마련하여 새로운 투자수단들을 개발하였다.

(4) 기타 금융기관

- Code of Money and Credit의 6장(178조-184조)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설립과 기능을 다루고 있다. 과거 투자금융기관들은 레바논 중앙은행이 매년 발행하는 특별 리스트에 올려져 있었다.

42. 주요산업동향/전체 산업 동향

< 레바논 전체 산업동향 >

레바논 산업 중 건설 및 부동산 개발은 침체국면을 겪고있으나 전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산업이며, 은행부분도 비교적 빨리 내전의 상처를 극복한 산업으로서 금융업은 이미 인근 국가의 발달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은 지난 3-4년간 주변여건의 개선과 민간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내전직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협소한 시장규모, 정부의 미흡한 지원, 주변국가 중 가장 높은 인건비,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되는 시설개체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관광산업의 경우 아랍권 중 가장 자유로운 분위기와 함께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 내전 이전까지만 해도 관광업이 주요 소득의 원천이었으나 남부 레바논에서의 정세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2003년 관광객수가 100만명이 넘어섰으며, 2004년에는 약 128만명이 방문, 앞으로 금융업과 함께 대표적인 서비스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여겨진다.

농업은 국내총생산의 6.28%를 점하고 있으며 레바논 최대의 고용산업이며 와인, 농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어 수출유망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업(제조업 포함)은 항상 다른 산업, 예컨대 관광산업, 금융서비스업 등의 그늘에 가려왔다. 공업이 차지하는 국내총생산 비중은 ESCWA 통계에 의할 경우 23.34% 정도이며 11 만 4,000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이중 제조업은 2001 년 기준 국내총생산 178.6 억불중 9.5%에 해당하는 16.9 억불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CWA 2002 통계, 2005 년 현재 최신자료)

공업(제조업 포함)은 GDP 의 약 20% 및 수출의 94% 차지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은 농공업, 맥주, 과일, 주스, 시멘트, 화장품, 제조기구, 전기제품, 가구, 귀금속, 가죽, 종이, 제약, 플라스틱, 인쇄, 섬유 및 타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공업부문의 2004 년 수출은 총 16 억 4,000 만불로 2003 년의 14 억 4,000 만불보다 14%가 증가하였다. 이는 2004 년에 공업기계류 수입이 2003 년에 비해 29.5%가 증가된 1 억 4,200 만불을 기록하였다는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

레바논은 제조업이 인프라 미비, 노후된 설비, 숙련노동자 부족 등으로 낙후되어 있어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레바논에는 약 22,025개의 제조업체가 영업 중이며 이중 대다수가 소규모 업체로서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보유한 회사가 20,961개사로서 총업체수의 95.2%에 달한다.

대기업은 시멘트, 건축자재 및 식음료, 의류 회사의 몇몇에 불과하며 국내외에서 비교적 알려진 제조업이라야 포도주나 식품가공산업 정도를 손꼽을 수 있을 정도다.

석유회사, 담배회사와 그리고 시멘트회사 정도를 제외하면 제조업회사는 대부분 민간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제조업 규모 및 생산액

[표1] 제조업 규모와 부가가치창출액

종업원수	업체수		총고용인원수		부가가치창출액 (\$백만)
	업체수	비중 (%)	명	비중 (%)	
1 4명	16,223	73.7	43,744	38.3	1706.8
5 9명	4,738	21.5	30,824	27.0	304.1
10 49명	920	4.2	16,995	14.9	380.8
50~99명	77	0.3	5,388	4.7	197.6
100~250명	47	0.2	6,418	5.6	149.0
250명 이상	20	0.1	10,738	9.4	328.2
합 계	22,025	100.0	114,108	100.0	3066.5

자료원: Ministry of Industry, Industrial Report 2000 (2005.3.현재 최신자료)

제조업 총생산액은 30억7천만달러.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한 5%의 기업이 총생산액의 34.4%를 차지하고 있다. 레바논내 로컬제조업은 대부분 내수시장을 겨냥하고 있으며 소비재가 압도적이며 일부 전통적인 수입대체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중공업 형태의 공장은 손꼽을 정도이다. 몇몇 컴퓨터를 포함한 전기 및 전자제품이 조립되고는 있으나 자동차와 같은 정밀산업은 조립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다.

식음료분야는 제조업 총생산액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는 가구, 금속가공, 봉제, 목재가공 및 건축자재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2) 제조업 분야별 현황

[표2] 제조업 분야별 생산액 및 고용노동자수

	총생산액		고용노동자수	
	US\$백만	%	명	%
식음료산업	1,011.3	25.6	18,344	23.3
금속산업	455.0	11.5	9,342	11.9
비금속산업(유리, 도자기 등)	552.4	14.0	10,045	12.8
가구및관련산업	327.9	8.3	7,512	9.6
의류산업	212.0	5.3	6,654	8.4
목재산업(가구제외)	112.9	2.8	3,490	4.4
가족관련산업	118.9	3.0	4,212	5.3
섬유산업	100.9	2.5	2,207	2.8
기 타	1,061.7	26.9	16,834	21.4
합 계	3,953.0	100.0	78,640	100.0

자료원: Ministry of Industry and Petroleum, 『Industrial Report 2000』

① 식음료 제조업

제조업 근로자의 21%가 종사. 로컬 원자재를 사용하여 레바논적인 식음료를 개발, 수출에 성공하고 있는 분야가 많다.

Ksara, Kefraya, Chateau Musar 등 전통적인 포도주업체들은 베카지역의 질 좋은 포도주를 이용, 유럽 등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빵, 과자, 캔음료 등은 외국 유명브랜드의 라이선스 생산이 많은 편이다.

② 의류, 신발 제조업

제조업 근로자의 19.8%종사. 총생산액 기준 1/5를 약간 초과. 로컬 봉제 의류의 원단은 주로 수입산이며 품질은 보통 정도. 중급품은 인건비가 비싸 수출 경쟁력이 없어 고부가가치형 하이패션의류 제조로 전환중인 상태이다.

③ 식물산업

원단 총수요의 3%정도만 로컬 생산,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 인근 시리아산 값싼 직물의 영향으로 그나마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④ 목재가공 및 가구산업

수입목재에 의존하며 가내수공업 형태의 워크샵에서 주로 생산된다.

⑤ 제지 및 인쇄산업

수입펄프를 사용하며 3개회사가 거의 독점하는 형태로 일부 수출도 하고 있다.

인쇄산업은 중동국가 중 가장 발달된 나라 중 하나로서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⑥ 화학산업

의약품 제조부터 플라스틱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매우 영세한 편.

총제조업 생산액의 4.3%에 불과. 중간원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 석유 부산물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가 매우 적은 편이며 수입제품의 재포장, 병입이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 수단이다.

⑦ 비금속 광물산업

시멘트회사를 비롯한 건축자재 업체가 해당되며 로컬원료 사용비율은 극히 낮는데 비해 다 에너지 사용 산업이다.

⑧ 1차금속산업

알루미늄과 철강산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구소련 위성국가제품의 저가 공세에 직면하고 있음. 철강제품은 요르단을 비롯한 인근 아랍국가에 소량 수출되고 있다.

⑨ 금속가공산업

대부분 영세한 워크샵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⑩ 보석가공산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대표적인 지하산업으로서 원자재는 100% 외국산 사용. 여타 중동시장에서 성가를 발휘하고 있는 품목이다.

국내 총생산액 160억 달러 중 제조업이 GDP의 16%를 차지하며 제조업 분야 중 부가가치율은 의류 및 정밀계측기기 분야가 57%로서 1위, 식음료 49%, 의류 51%, 금속가공 55%, 목재가공 46%등임. 평균 부가가치율은 49%이다.

(3) 제조업에 대한 정부정책

대부분의 이웃 국가들과 달리 전통적으로 레바논 정부는 제조업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음. 유틸리티 회사나 담배, 석유정도만 국영기업이 관리할 뿐 나머지는 모두 민간기업에 맡기고 있다. 최근 제조업에 대한 정부기능을 놓고 많은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정책은 로컬생산 코스트를 낮추고 로컬산업을 보호하며 지원기관이 제 기능을 찾도록 하는데 초점이 주어졌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150여 가지에 달하는 제조용 원료에 대한 관세를 2%로 인하('95년도)
- 식료품, 의류, 직물에 대한 관세인상(곡물류 관세는 8%에서 10%로, 기타 식료품은 18%에서 40%로, 그리고 직물류는 30%)
- 연료유, 디젤유 및 전기등 에너지에 대한 할인가격 적용(보조금 지급)
- 로컬업체가 국제 입찰 참가시 외국응찰사의 응찰가격보다 15%까지 높아도 로컬업체 선정.
- 제조업체에 대한 중장기 대출금에 대해서는 은행 기준을 기존 적용완화('96년 5월)
- 직업훈련원 재개

(4) 제조업 평가

내전기간동안의 여건과 비교하면 경영여건은 매우 좋아진 상태다. 전력, 용수 및 통신 등 필수적인 유틸리티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분리되었던 상권 - 예컨대 내전 당시 만해도 무슬림지역과 기독교지역이 분리되어 상호 출입이 봉쇄 되었음 - 이 하나로 통합되었고 과거보다 손쉽게 원료를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거의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탓에 시설개체가 절실하며 숙련노동자 부족, 자본 부족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기계수입이 계속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은행들이 제조업에 대한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있어 자기자금에만 의존해야 하는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5) 신용 및 파이낸싱

시중은행 총여신의 13%만이 제조업으로 유입되며 은행들이 업체의 신용도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다가 영세한 기업에 대한 대출 매력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들은 주로 정보가 축적되어있는 개인 고객에 대한 대출을 중시하며 그 결과 자금조달은 대부분 소유주나 친척들의 개인신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몇몇 은행들은 설비 리스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고 있는 추세여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6) 품질문제

KS 마크와 같은 국가 혹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품질인증 시스템이 없기때문에 로컬 생산품의 품질 저하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LIBNOR이라 하여 품질인증기관이 '87년까지 185종 23개 코드에 대한 품질인증 규격 지침을 갖고 있었으며 현재 LIBNOR은 국내외 자금지원으로 품질인증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3,000 - 5,000여 종인 국제기준에는 미달인 상태이다.

품질관리는 경제무역부산하 소비자보호위(CPO)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7) 향후전망

주변국가와 비교할 때 레바논의 제조업은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다. 주변국 특히 시리아에 비해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가 비싸게 먹히면서도 제품은 이스라엘의 하이테크산업에 한참 뒤쳐진, 전통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레바논 제조업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제조업 주변여건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국제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아직 많은 시간과 자본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불안정과 함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선기미가 보이지 않아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3. 주요산업동향/교통,관광업

- 관광 산업

레바논에서의 관광산업 분야는 지역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기후, 문화, 인접해 있는 산과 바다, 고고학적 유적과 친절한 국민성과 야간의 유흥시설등으로 외국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전망이 밝다.

또한 지난 10년동안 약 US\$ 20억이 호텔업계에 투자되어, 내전의 영향으로 아직도 베이루트를 관광하기에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행객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많은 국제적 체인점들 (Starwood, Holiday Inn, Marriott, Movenpick, Metropolitan, Inter-Continental 등)이 레바논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관광산업은 내전이전에는 레바논 경제의 중추였다. 내전 발발前인 1970 년초에는 연간 240 만명의 관광객이 레바논에 입국하였으며, '74 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였고 고용인원도 40,000 명에 달했다.

'70년대 초까지 만해도 유럽인 여행객들에게 백향목(Cedars), 스키, 바알벡 페스티벌 그리고 카지노로 잘 알려진 레바논은 그야말로 로맨틱한 관광지로 각광을 받았으며, 관광산업은 가장 번창하던 산업중의 하나였다. 특히 '아침에는 스키를, 오후에는 해수욕'을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대변되리 만치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레바논은 당시 동양을 방문하는 유럽인들이 한번쯤 쉬어가는 관광 코스였다. 내전이전의 레바논은 중동지역에서 최고의 관광지였으며 중동 관광 수입의 40%이상을 차지하였다

그후 내전으로 관광객수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다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관광객수는 1990년대에 년평균 27%씩 증가하여 1997년에는 557,000명, 2000년에는 742,000명, 2001년에는 13%가 증가한 837,000명, 2003년에는 1,015,793명으로 비록 내전전 관광객수준의 40%에 불과하나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0년 관광수입은 US\$12억으로 GDP의 7%였다.

레바논은 외국에서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기금을 운영중이다. 관광부는 고고학적 유적지의 유지 관리를 위해 2001년에 세계은행으로부터 US\$ 3,000만을 차입하였다. 2001년 9월11일 테러이후 레바논정부는 총리 재량으로 사용가능한 기금 US\$ 1,000만뿐 아니라 관광진흥을 위해 US\$ 100만을 승인하였다. 정부는 관광산업 부흥을 앞당기기 위해 쇼핑 페스티벌, 바알벡 페스티벌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부활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9.11사태이후 유럽·미주에서 아랍인들에 대한 대우가 까다로워진 탓으로 걸프지역 부유층들이 중동내에서 관광 및 휴가를 즐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2003년 여름이후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하여 2005년 2월 하리리 전총리 암살사건발생 이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5 년 2 월 14 일에 발생한 하리리전총리의 암살 사건으로 관광객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GRSI (Global Refund Shopping Index)를 보면, 2 월이후 중동 및 유럽 관광객의 소비액수가 국적별로 많게는 70%, 적게는 60%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관광객수가 그만큼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에 의하면 1995 년 현재 레바논의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33,000 명이었으나, 앞으로 레바논의 관광객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관광산업 종사 근로자 수는 2010 년까지 70,000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4. 주요산업동향/금융업

• 금융업

레바논의 금융역사는 19세기초 베이루트에서 외환거래소가 처음 생겨나면서부터 었다. 지리적 요충지, 대외 개방적 국민성 그리고 금융비밀(Banking Secrecy)을 철저히 보장해주는 법령(1956년)에 힘입은 데다 특히 `60년대 초반 아랍 오일머니의 대거 유입으로 내전 발발 이전인 `75년까지 중동 최대의 금융센터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수년간에 걸쳐 계속된 전쟁과 파괴로 인해 레바논은 더 이상 중동지역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전쟁의 초기 몇 년간은 다양한 의용군 지원자금의 유입으로 금융조직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은행들은 사업 무대를 해외로 돌리거나, 대차대조표상의 더 많은 몫의 돈을 미국달러화로 보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존해나갔다. 레바논의 금융조직은 내전기간동안은 그럭저럭 잘 버티어 나갔으나, 결국 1985 년 한 레바논 은행과 유럽에 진출했던 몇몇 레바논 자회사들이 도산함으로써 내전의 부담이 표출되었다. 이 사건 이후 중앙은행은 은행의 일체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1990 년 내전이 종식되면서 경제 및 재정 상황이 호전되어 금융체계가 개선되었으며, 레바논 파운드화도 안정을 되찾았다.

내전종식후 복구사업 중 가장 성공한 분야가 금융업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활력을 되찾고 있으며 머지않아 지역금융센터로 재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년평균성장률 10.5%를 기록했으며, 2004년에는 12.8%의 성장율을 보였다.

2004년에 64개의 은행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중 시중은행이 54개사, 특수은행이 10개사이며 전국적으로 820개의 지점을 갖추고 있다.

금융권 종사인구는 약 15,000명이며 총자산(Consolidated Assets)은 약 641억달러(2004년 8월 기준)이다. 자산규모에 의거한 은행순위는 BLOM (Banque du Liban et d'Outre Mer), Banque Audi, Byblos Bank, Banque de la Mediterranee 순이다. (자료원: Executive Dec.04, No.67)

[표] 자산 기준 상위 10대 은행

순위	은행명	자산*	전화번호	팩스번호
1	Banque du Liban et D'outre-Mer (BLOM)	13,245	01-738938	01-738946
2	Bank Audi	10,709	01-994000	01-990555
3	Byblos Bank	9,101	01-898200	01-898209
4	Banque de La Mediterranee	8,051	01-866925	01-866925
5	Fransabank	6,161	01-745978	01-351030
6	Bank of Beirut	5,525	01-869835	01-351265
7	Banque Libano-Francaise	5,428	01-324947	01-200494
8	Credit Libanais	4,065	01-200028	
9	Societe Generale de Banque au Liban	3,856	01-499813	01-502820
10	Bank of Beirut & The Arab Countries (BBAC)	3,233	01-869835	01-351265

*단위: 백만LL (1달러= 1,507.5LL)

*자료원: Facts & Figures 2003, Audi Bank (2005.3.현재 최신자료)

무디스는 2005년 2월 하리리전 총리 암살사건이후 Bank Audi, BLOM Bank, Byblos Bank의 장기외환예금에 대한 등급을 'B2'에서 'B3'로 하향조정하였다.

• 보험업

내전 발발 전 베이루트는 금융과 보험산업의 중심지로 국제적인 많은 회사들이 이 지역에 진출했었다. 내전종료 후 국내수요의 증가로 보험사들은 레바논으로 복귀하여 보험산업의 회복에 기여했으나 인구수에 비해 보험회사가 지나치게 많아 경쟁이 치열하며 규모가 영세하다. 1992년에 보험회사수는 79개 였으나 치열한 경쟁으로 2002년에는 59개로 감소하였다.

보험업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가 느슨한 분야다. 공식적으로는 경제무역부 산하 보험 부서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있지만 내전의 와중에 정부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해져 보험업계 자율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의 질서와 규율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민간단체로는 '71년도에 설립된 ACAL(Association of Lebanese Insures)이 있으며 69개 보험회사가 가입되어있다.

오늘날 약 59개사가 약 3백만 명에 달하는 보험시장을 놓고 보험증권을 발행하므로서 주변 지역 국가 중 소비자의 선택권이 가장 폭 넓게 보장되는 나라이다.

[표] 5대 보험회사의 비생명보험료 총액(단위: US\$)

순위	보험회사명	2001년	2002년	보험증권수
	총 보험회사	322,800,000	342,360,000	893,587
1	Medgulf	39,050,000	46,745,000	48,253
2	Bankers	35,735,000	39,175,000	33,283
3	AXA Middle East	22,945,000	22,310,000	33,454
4	SNA	18,360,000	18,980,000	68,382
5	Libano Suisse	18,150,000	18,830,000	57,688

* 자료원: Al Bayan, March 2003 (2005.3.현재 최신자료)

45. 주요산업동향/농림수산업

• 농 업

농업은 GDP의 6.28%를 차지하며 총 고용인구의 1/5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업은 인구의 도시집중화를 막고 로컬산업의 원료공급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의 내전으로 정책지원 대상에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

개간 가능한 토지는 전국토의 17.6%, 경작지는 전국토의 12.51%이고 기타가 70%이다. 관개시설이 갖추어진 토지면적은 1,200km²로 전국토의 11.5%이다.

경작 가능한 면적은 약 36만ha로서 전국토의 약 1/3을 차지하며 주로 베카지역(35%), 레바논 북부(25%), Mount Lebanon(10%)에 집중되어있다. 경작가능 면적중 약 22만 ha만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중해성 아열대기후이며 산악지형이 많은 특성상 포도, 사과, 열대성 과일이 풍부하며 베카계곡은 감자, 올리브 및 채소류 경작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농가당 경작면적은 절반이상이 2ha 미만이며 관개설비의 혜택을 받고있는 면적은 8만6,000ha(경작가능 면적의 28%)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연간 200mm부터 1,500mm 까지 내리는 강우량에 의존하고 있다.(평균 강우량 700mm~ 1,000mm)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관개시설 확충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12억m³의 수자원 중 80%를 농업부문에서 사용하고 있다.

지리적, 기후적으로 농업부문이 많은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급자족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국내 총소비 농산물의 30%만 국내생산물로 충당할 뿐이다. 그러나 1975년 이전까지만 해도 농산물 순수출국이었다.

농업부문 수입액은 약10억 달러로서 국내 총수입액의 14%를 차지했으며 쌀, 설탕, 차, 커피, 육류, 치즈 등뿐 아니라 감자, 채소류 등도 인근 시리아, 이집트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레바논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쿠웨이트, 이라크 등의 다른 아랍국가들에 과일과 야채를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2003년 8,600만달러에서 2004년에는1억 700만달러로 24%가 증가하였다.

특히 와인 수출액은 1996년부터 2003년사이에 370만불에서 8백만불로 2배가 증가되었다. 연간 650만병을 생산하며 이중 200만병이 수출되고 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프랑스, 영국, 미국, 스웨덴이며, 주로 중동음식전문점이나 레바논 디아스포라들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농산물의 수출이 증대되고 있는 요인은 레바논 투자 개발청(IDAL)이 농업 수출 진흥을 위해 2001년부터 추진중인 Export Plus Program과 이라크로의 수출 재개 및 양호한 기후조건으로 수확량이 증가되고 품질도 향상되었기때문이다.

• 수 산 업

국토의 한 면이 모두 바다에 접하고 있어 해안선 길이가 225km나 되나 세계 식량농업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수자원 생산량은 1,500메트릭톤 정도로 수산업이 피폐된 상태이다.

어선의 노후화, 어획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주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연안어어가 대부분이며, 내전 발발 이전인 `75년경에는 연평균 3,100 메트릭톤(1,000kg)의 어획고에 비하면 절반이하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어업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46. 지적재산권

<지적 재산권>

레바논 경제무역부 산하 지적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전담기관(Intellectual and Industrial Property Office: IIP0)은 빈약한 시설과 근무인력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사례를 찾아내거나 시정할 능력이 뒤떨어지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침해사례를 적발하여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수 년이 걸려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지식소유권을 보장받기 어려워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외국 대사관, 국제법 전문가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외치고 있으나, 레바논 경제무역부에서는 거의 대응하지 않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국가의 연간 총 GDP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공공부채와 정부의 재정적자, 늘어만 가는 국제 수지적자 등 경제 무역문제외에도 난마처럼 얽힌 정치현안이 경제 등 각분야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중장기 경제시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기가 힘겨워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법적인 송사로 번질 경우에만 마지못해 형식적인 리포트를 제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한다. 컴퓨터, 오디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는 물론 TV 프로그램 에서조차도 지적재산권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IIPA(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는 2004년 ‘Special 301보고서’에서 레바논정부가 계속적으로 국제저작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레바논을 301감시대상국 명단 3단계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계속 남겨둘 것을 권장했다

IIPA보고서에 의하면 레바논내에서 저작권 침해로 Business software providers들이 입고있는 피해규모는 2004년 1,5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레바논의 지적재산권 침해율은 2002년에는 전년 대비 5% 포인트가 개선된 74%를 기록 하였으며 2004년 2월부터 마련중인 레바논 정부의 법안이 성안되어 시행될 경우 이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적재산권 및 산업재산권(IIPR) 관련 법적 근거
 - `24년 1월 17일에 제정된 Decree No.2385: 상표권, 저작권, 산업디자인권을 규정.
 - `46년 1월 26일, 칙령(Decree)에서 법제화(registration)된 후 `83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
 - 지적재산권은 레바논 형사법(제 701조 및 제721조)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음.
 - 국제적으로 레바논은 지적소유권 및 산업재산권에 관한 베른협약, 파리협약 및 마드리드 협약에 가입되어 있음.
 - 독일회사의 산업재산권은 `55년 3월 8일 체결한 양국간 협약에 의해 보호됨.
 - `60년 1월 25일 경제무역성 장관은 칙령 93/57호를 통해 외국 상표의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음

레바논 경제무역부 산하 지적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전담기관(Intellectual and Industrial Property Office: IIP0)은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 보호 및 감독기능을 갖고 있으며, 상표권(trademark) 및 의장권(patent right)을 보호받기 원하는 외국기업은 상표권과 의장권을 IIP0에 등록하고 공식간행물에 게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레바논은 영·미 법체계와 달리 프랑스 법체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IIP0는 신청서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으며 등록했다고 해도 처음 5년간은 권리를 보장해 주지도 않는다.

2002년 4월23일에 Yassin Jaber 당시 경제무역부장관은 국제저작권에 관한 제2차 지역 회의에서 ‘레바논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법 체계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음으로써 내·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며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2004년 2월부터 레바논정부는 정부차원의 반저작권침해법 초안 마련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 관련 불법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저지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Microsoft와 Intel 및 IBM이 회원으로 활동하고있는 국제적인 로비 그룹인 BSA(the Business Software Alliance)는 레바논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1) 상표권 (Trademark)

레바논 법에 의하면, 상표권은 처음 사용한 자가 확실히 우선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 즉, 이론상으로는 상표권을 등록한 자보다 최초 사용자를 우선시한다. 그러나 상표권은 IIP0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권을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상표권 사용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레바논은 제조, 상업, 서비스마크를 인정하고 있으며 도덕·문화적인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상표를 인정한다.

상표권 등록시 ICGS(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분류체계에 의한다. IIP0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아랍어로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색상과 사이즈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 샘플 4개
- 에이전트가 있을 경우 에이전트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위임장
- 타 국가에서 이미 상표권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등록증 사본
- 가로 세로 최대 10x10cm 크기의 상표가 찍힌 샘플

레바논 법률회사를 통해 실시하는 상표권 등록 및 번역비는 건당 US\$700 ~ US\$1,000선이며 상표권이 등록되면 15년간 유효하고, 연장을 원하는 경우 갱신이 가능하다. 처음 등록시 30년간 유효한 상표권, 45년간 유효한 상표권 또는 60년간 유효한 상표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IIP0에 신고할 경우 상표권 양도도 가능하다.

(2) 의장권 (Industrial Design, Registered Design)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IIP0에 등록하면 되며 상표권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를 받는다.

(3) 특허권 (Patent Right)

현지인이나 외국인 공히 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주재하는 나라의 레바논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시 수신인은 IIP0로 기재하여야하며 아랍어로 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호기간 및 기타 세부내용은 상표권의 경우와 같다.

- 에이전트에 대한 위임장: 에이전트가 있을 경우
- 특허내용: 외국어로 기재해도 되나 아랍어 번역이 권고됨.
- 발명품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이나 청사진 등을 첨부

IIP0는 접수후 공식 간행물을 통해 공고하며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등록하는 것만으로 이의 보호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즉,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적 송사를 통해 이를 보호받는다.

47. 소비자보호

<소비자 보호>

2005년 5월부터 소비자보호법이 발효됨에 따라 악덕상인들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소비자보호법 초안은 경제통상부장관 Bassel Fleihan이 만들었으며, 이 법의 성안을 위해 지난 4년간 Consumer Lebanon등 소비자단체가 적극 참여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레바논 경제통상부는 새로운 법에 따라 2005년 5월 11일부터 공식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사항을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경제통상부는 hotline(전화번호 국번 없이 '1739')을 개설하고 소비자 불만사항을 기계가 아닌 담당직원이 직접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hotline 사용 요금은 일반 전화요금과 동일하나, 앞으로 무료화 할 방침이다.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이며 현재 3명의 직원이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를 전담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많은 불만사항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과장된 광고와 유통기한이 만기된 가공식품, 변질된 식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경제통상부는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불만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법 발효에 따라 경제통상부는 훈련된 모니터 120명을 임명하여 사기사건을 중재하고 부정직한 상인들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또, 8월에는 농업과 공학, 화학, 법 및 경제학 등 각 분야의 전공자로서 소비자보호법과 표준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 중 조사관(Inspector) 48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법 집행을 추후 관리할 전문가 12명을 추가로 임명할 계획이다.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징역형과 더불어 400만~7,500만 레바논파운드(1달러=1,500 레바논파운드)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상습 범법자는 10일~10년간의 징역형과 함께 더욱 더 많은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일단 소비자가 사기를 당하게 되면 경제통상부에서 중재인인 'al wasit'이라 불리는 사람에게 사건을 가져가 판매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Wasit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불러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중재를 한다. 만약 이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최종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경제통상부 산하의 특별법정에서 불만사항을 정밀 검토하게 된다. 이 특별법원은 1명의 판사와 상공회의소 회원 1명과 소비자협회 회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단체는 시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악덕상인이라도 징벌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앞으로 대중매체를 이용한 캠페인을 통해 변화시켜 새로 입안된 소비자보호법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제통상부는 소비자가 그들의 권리를 알고 악덕상인에 의한 사기의 종류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인지하도록 소비자보호법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48. 수입관리제도

<수입관리제도>

자유무역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관세/비관세장벽이 거의 없으며 WTO 가입에 대비하여 국내 무역법규를 WTO 요구 수준에 맞춰가고 있다.

유로-지중해 파트너십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협약 체결로 EU와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랍연맹 회원국으로서 아랍국가들과 쌍무 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일부 동유럽국가, 터키 및 EU회원국과도 쌍무협정을 맺고 있다. 전후 가장 특기할 만한 쌍무협정은 시리아와 맺은 형제관계 협정으로서 동 협정에 의거 양국간 무역은 준국내거래로 간주하여 상품 및 인적교류가 자유롭다.

수입과 마찬가지로 수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없는 편이며 다만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면허제도(Export License)를 채택하고 있다.

▶ 수출면허가 필요한 품목

① 대외무역성 승인품목

밀, 밀 부산물, 올리브유, 콘크리트, 부탄가스, 하이드로카본, 액화가스통

② 공업성 승인품목

원피(가공 안된), 타르, 실크(가공 안된), 종이, 카드보드, 누에고치

③ 농업성 승인품목

씨감자, 계란, 솔씨(Pine Seeds)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레바논은 로컬업체들의 수출시 어떠한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으며 수출촉진을 위한 제도가 없다.

49. 관세제도

레바논은 2001년 5월 24일 발효한 신관세법에 따라 통관에 따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종전 주한 대사관의 인증, 상공회의소 인증절차가 폐지되었다.

관세청이 수입품에 대해 ‘언더밸류’로 간주할 경우 일방적으로 적용한 벌금부과도 자체 위원회가 아닌 민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수입업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품목분류체계는 HS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관세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개발한 통관과정 자동화 프로그램인ASYCUDA(Automatic System for Customs Data) 시스템을 설치, 운영중이다.

레바논 정부의 무역정책은 관세율 인하를 통해 무역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자본재에 대해서는 2%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전자제품의 경우 평균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치품에 대해서는 최고 100%까지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신규 산업체에 기계류, 부품류 그리고 레바논 내에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축 자재품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준다.

레바논-시리아 양국은 `99년 1월 1일부터 관세율을 매년 25%씩 낮춰, 2002년부터는 무관세 교역을 하고 있다.

관세징수액이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제도보다는 세관의 절차가 복잡하고 부패도가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50. 통관절차

<통관절차>

(1) 수출절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출 절차 외에 정부의 특별한 간섭은 없는 편이다.

경제·통상부, 산업부 및 농업부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 예컨대 밀, 올리브유, 원피, 견사, 누에고치, 씨감자, 솔씨 등 20여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승인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품목의 경우 수출에 대한 규제가 없다.

수출절차도 비교적 간단하여 외국 수입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외화 입금 혹은 L/C를 수취하며 수출자는 수출물품을 확보, 통관 및 선적, 운송의 과정을 거치면 수출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외환거래 및 보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구태여 수출 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매각할 필요가 없다.

(2) 수입절차

경제통상부로부터 무역업허가를 받은 수입자는 외국의 수출자와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High Customs Council 혹은 관련부처의 수입승인을 받아 통상 수입승인은 신청하는 데로 발급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스라엘 보이코트 대상 품목이거나 석유나 석유부산물처럼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 그리고 농산물 등은 예외임-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운송서류가 내도 하면 대금을 결제한 후 수입통관으로 수입절차가 마무리된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외환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통상 거래은행에 개설된 수입자의 외화 계좌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혹은 거래은행으로부터 Credit Line을 받아 한도 내에서 수입을 할 수 있는데 통상 후자의 경우가 일반화되어있다. Credit Line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이 신용도와 담보력을 평가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인보이스 가격에 대해 현지화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으며 인지세는 원산지증명서에 12.5달러, 선적서류에 3.1달러이다. 관세와 인지세 외에 베이루트항구 개발청은 약간의 통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산정은 BDV(Brussels Definition of Value)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란산 카펫, 중고자동차, 중고서적에 대해서만 최소 관세액을 정하고 있으며 중고차량의 경우 차종과 차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당 LL500만(\$3,267)씩을 부과하고 있다.

승인(면허)대상 품목은 수입면허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수입을 조절하고 있는데 고등관세위원회(High Customs Council)나 관련부처에 위임되어 있다.

수입금지 품목은 마약류, 무기, 폭발류, 5년 이상된 중고차량, 공중도덕을 해치는 물건, 공중보건을 해치는 물건과 일부 농산물 등이다.

농산물의 경우 감자, 양파, 마늘처럼 계절 면허가 필요한 품목과 올리브유, 솔씨처럼 연중 면허가 필요한 품목, 그리고 토마토처럼 수입이 완전히 금지된 품목으로 나뉘어진다.

신용장 개설 혹은 수입 심사시 아랍보이코트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있기는 하나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 타결시 아랍보이코트 조항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이나 식료품 수입시는 반드시 라벨규정을 지키도록 되어있는데 제품의 제조일 및 유효기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며 준수치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되며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사품이나 이미 보호중인 라벨과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된다.

담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독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담배조차도 밀수에 의해 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법령 31호에 의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제도가 있으며 세관당국 혹은 이해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조사 및 적용이 가능하긴 하나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국제간의 계약은 극히 자유로운 편이며 수입자들은 C&F, CIF, FOB중 한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계약하는데 대금지불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는 편이나 신용장 베이스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있다.

적당량의 샘플이나 홍보용 물건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나 이를 초과할 경우 은행 보증을 요구하거나 관세 부과 대상이다.

통관시 선적서류와 인보이스 원본 (총 6부 소요) 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원산지 증명서, 패킹리스트 등은 여타 국의 예와 동일하다.

한편, 언더밸류 혹은 오버밸류를 방지하기위해 필요한 수입품 가격 산정시 로컬 업체들을 자문위원으로 선정, 그들로부터 인보이스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관세부과를 둘러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의적인 Undervalue 판정사례는 줄어들었고 국내 수출업체들은 수출시 상업송장의 상공회의소 확인 및 주한 레바논 대사관 공증절차도 없애는 한편 통관에 따른 불편 해소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51. 유통구조

유통단계는 품목에 따라 각각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소비재의 경우 전문 유통업자, 슈퍼마켓 용품 공급업체 (슈퍼체인점 등) 주문을 받아, 이들 고객의 주문량을 모두 합쳐 수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개 슈퍼마켓 공급업체는 예컨대 세제류, 식기류 등 전문 취급품목이 4-5가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외국제조업체들의 에이전트를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슈퍼마켓 공급업체는 별도의 창고(Warehouse)를 갖고 있으며 소매영업은 하지 않고 도매상을 위한 소규모 전시매장만을 갖추고 있다.

내구성 소비재의 경우, 예컨대 가전제품의 경우 에이전트가 도·소매를 겸하는 것이 상례인바 지역별로 대리점 (Distributors)을 갖추고 있다. 에이전트는 대개 대리점에 6개월-12개월 할부로 물건을 넘기기 때문에 대리점은 이를 활용하여 할부판매하거나 현찰 판매시에는 에이전트의 판매가격보다 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의 경우 에이전트가 딜러십을 형성, 지역별 투자자와 자본을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유통경로는 에이전트-딜러망-소비자로 단순하다.

그러나 전문브랜드 제품의 경우, 라코스테 의류의 예를 들면 에이전트십을 보유한 수입상이 소매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망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투자자의 지분을 끌어들이거나 직접 투자하여 1호점, 2호점 분점 형태로 경영하고 있다.

백화점의 경우 직영은 드문 편이며 대부분 임대방식으로 경영하나 슈퍼체인의 경우는 대부분 직영 방식이다. 한국과 달리 백화점에는 채소, 과일이나 식료품 판매코너가 없으며 음식점은 갖추고 있다.

현지 마케팅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담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마케팅이 없으며 세일즈 출장 또는 전시회 참가가 요망된다. 시장규모가 작고 같은 업종의 바이어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바이어들과 거래를 지속할 수는 없는 시장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에이전십 방식의 거래가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간의 테스트기간을 거쳐 가장 신뢰할 만한 바이어와 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A/S가 필요하거나 브랜드 홍보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에이전십 선정이 필수적이며 에이전트 선정시에도 연간 판매 목표를 수량화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수입상의 판매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아무리 수출업체의 제품 경쟁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대량으로 수입, 쌓아 놓고 판매하는 수입상은 좀처럼 찾기 어려운 시장이다. 특히 첫 오더 규모가 만족할 만큼 큰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레바논이 410만명에 불과한 협소한 시장규모 탓도 있지만 치열한 경쟁구조로 인해 수입상들이 위험도가 높은 재고부담을 떠안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전시회가 유효한 마케팅 수단의 하나이다.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마케팅을 위해서는 전시회 참가가 매우 적절한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시회 참가 6개월 전에 현지 출장을 통해 에이전트를 선정하고 에이전트와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여 전문전시회에 참가하는 방법과 아예 전시회 참가를 시작으로 바이어 물색에 나서는 경우로 대별할 경우 전자가 다소 바람직한 방법이다.

바이어 발굴보다 중요한 것은 바이어 관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힘들여 바이어를 발굴해놓고도 관리에 소홀하여 거래에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특히, 세일즈 출장시 구두든 문서 편이든 일단 약속한 것은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계속 관심을 환기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52. 국제입찰제도

<국제입찰제도>

정부 및 공공부문 프로젝트, 구매의 대부분은 로컬 혹은 국제입찰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며 입찰과정은 비교적 공정한 편이나 국방부 등 일부 입찰기관은 절차상의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공공입찰은 특정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에이전시에 연계된 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재건복구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CDR (the Council for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 총리 직속 재건복구위원회)과 IDAL (the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of Lebanon : 투자청)이 있다.

CDR의 경우 프로젝트 매니저그룹 (세계 최대의 회계, 세무, 법률, 경영자문 법인인 KPMG와 네덜란드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등 포함)이 실무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러한 프로젝트 매니저그룹은 CDR회장에게 직보체제를 갖추고 Sector Implementation Units가 제출한 보고서를 감독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 프로젝트에 민간기업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BOT(Build- Operate- Transfer)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BOT프로젝트의 대부분은 로컬회사뿐 아니라 외국기업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BOT 프로젝트는 대부분 IDAL이 주관하고 있다.

국제입찰은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와 입찰과정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2002년초 입찰처 회장, 부회장이 한국에 우호적인 민간인 출신으로 개편되어 동 기구와의 업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입찰절차 (IDAL의 사례)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Vol.1부터 Vol.4까지로 되어있는 입찰서류를 구입해야 하는데 비싼 것은 입찰서류가 2만 달러가 넘는 것도 있다.

일종의 자격 심사라 할 P.Q.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 응찰자는 입찰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응찰회사의 재무, 경영, 기술적인 능력과 기 프로젝트 수행경력등을 담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응찰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한 조로 작성, 2개의 봉투에 넣어 입찰당국에 제출하는데 첫 번째 봉투에는 P.Q 신청서를, 두 번째 봉투에는 응찰서류를 넣어서 IDAL로 DHL편으로 발송하는데 봉투 겉면에 반드시 Tender Documents for Build, Operate and Transfer of '프로젝트명' 과 Do not open without authority"를 표기해야 한다.

① 첫번째 봉투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 기본서류
- 응찰자 성명, 주소
- 입찰보증금 (대개 응찰금액의 1.5% 3%)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서
- 응찰프로포잘
- 서명자에 대한 PA (Power of Attorney)

② 두 번째 봉투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응찰자 성명, 주소
- 입찰서류
- 계약조건 및 첨부서류

입찰보증금(지급보증서)은 낙찰되거나 응찰 후 120일 이내(탈락시) 중 빠른 편을 택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응찰서류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기간만료일 이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 낙찰 후 이행보증금은 대개 10%선으로서 입찰기관마다 상이하며 은행의 지급 보증서로 대신한다.

- P.Q.제도 (CDR의 사례)

P.Q. 절차의 주목적은 프로젝트에 입찰 초청될 가장 적절한 컨설턴트사나 건설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입찰업체의 수를 제한하고 그들이 함께 P.Q.통과된 컨설턴트사나 건설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단독 또는 합작사업체들 (모두 컨설턴트사와 건설회사임)이 P.Q.에 초청된다.

CDR은 2종의 P.Q.절차를 두고 있다.

1) 공사의 특별범위를 위한 일반 P.Q.제 :

공사의 전문성, 자원, 경험, 영역에 따라 분류됨. 현재 CDR은 3개의 일반 P.Q.심사를 수행중이다.

- ① 도로 공사 (현지 건설회사)
- ② 건축 (현지 건설회사)
- ③ 용역 (현지 컨설턴트)

2) 특별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 P.Q.제:

이는 국내 및 외국 컨설턴트사와 건설업체를 특별한 프로젝트에 관련, 사전 결정된 범위에서 그들의 역량, 능력 및 경험을 평가한 후 선정할 때 적용.

CDR은 외국 컨설턴트 및 건설회사를 위해 P.Q.절차를 정형화할 계획이다.

P.Q.신청공고는 레바논과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외국에서 紙上 공고되며, 보통 신청공고는 AL-NAHR, L'ORIENT LE JOURNAL, HAYAT, FINANCIAL TIME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그리고 LE MONDE지에 그 신문이 사용하는 언어로 공고된다.

P.Q.양식은 CDR 양식에 따라야 하며 지정날짜 (보통 한 달 후에서 두 달 후 사이가 됨)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P.Q.신청자에게는 보통 다음사항에 대한 세부정보가 요구된다.

- ① 회사에 관한 일반정보
- ② 수행한 공사의 종류와 업체가 다루는 분야
- ③ 재무정보 (은행의 소견 및 연간회계)
- ④ 직원내역 및 조직도
- ⑤ 건설공장 및 기타시설
- ⑥ 관련분야 경험

종종 건설 기능공들과 공사방법의 質을 알아보기 위해 사무실 및 공사현장에 대한 시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정보도 직원에 관한 좀더 세부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영업상의(재무정보를 포함) 일반 세부사항, 다시 말해 다양한 공사영역에서의 감독작업과 보조금 운용의 사전 경험 및 능력에 관한 정보가 요구된다.

신청서 제출 마감날 P.Q.신청서를 검토하기위해 평가위원회가 CDR위원장에 의해 지명된다. 이 위원회는 CDR, 관련부처, 때로는 재원조달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합의된 절차(참고인 의뢰 및 현장. 사무소 시찰도 포함될 수 있음)에 따라 신청서를 분석하고 평가보고서를 발간. 이 보고서는 먼저 CDR위원장의 재가를 위해 제출되고, 이사회에 제출된 다음, 필요한 경우 재원조달기관에 제출된다.

보고서가 재가를 받으면 P.Q.신청자들에게 평가결과가 통보되며 P.Q.통과된 업체들만 입찰에 초청된다.

CDR은 보통 재원조달기관의 요구에 따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젝트 및 계약과 관련되는 건자재와 보급품을 직접 구입하지 않는다. 이는 공사계약에 지명된 회사들이 모든 자재와 보급품의 조달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53. 외환관리제도

외환거래는 비교적 자유화되어 있고 외환은 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화예금 구좌 보유가 자유롭고 개인구좌비밀 보호가 철저하여 외국 자금유입으로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다.

중앙은행은 현지화 환율 안정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고있다. (US\$1=1507.50LL)

은행의 총수신고중 달러비중이 65% 이상이며 수입 대금 결제시에도 정부가 별다른 외환통제를 가하고 있지 않다.

레바논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폐중 달러화(Dollarization)비중은 70%로 매우 높으며 시중 어디에서나 달러 지불이 가능하다.

54. 시장특성/시장규모 및 특성

<시장규모>

레바논의 시장규모는 약 160억달러로서 이중 약 68억달러를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어 1인당 수입액이 약 2,000달러에 달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800불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나 1인당 수입액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수입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수입 대체산업이 미미하여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규제없이 수입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유럽산 및 고급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또한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고급스러워 보이거나 유럽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시장특성>

- 중산층의 폭이 넓고 부유층과 저소득층으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사치성 고급브랜드가 잘 팔리는가 하면 중국산 저가가 시장을 주도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산 중급대 제품은 시장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 지역적으로는 베이루트와 베이루트 근교(Great Beirut) 주민들의 소득이 레바논 산맥 넘어 베카지역 주민들보다 높은 편이다.
-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도가 이슬람교도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 우위의 정부를 꾸려왔다는 점, 가구 당 자녀수가 적어 부의 분산도가 다산위주의 이슬람교도보다 적다는 점, 기독교계가 보다 미국 및 서방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들로부터의 송금이 많다는 점 등이 몇몇 이유로 제시될 수 있다.
- 내전의 혼란 중에 초법적인 상거래가 많아 그 가운데 재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더욱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해지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다.
- 레바논내 전국12개 난민캠프에 산재한 약 36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50만 명 이상에 달하는 불법 시리아 취업근로자들이 가계소득의 하층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 충동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세일기간(연 2회, 2월과 7-8월)때 구입하는 알뜰 주부들이 많다. 내전의 영향으로 신용카드 사용 인구는 많지 않으나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현금보다는 외상, 할부구매를 선호하는 편으로서 단순 잡화품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할부판매가 보편화 되어있다.
- 생활용품의 경우 통상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수요가 피크에 도달하며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특성상 이들 관광객을 위한 제품 및 콘도미니엄 용품도 6-8월에 가장 많이 판매된다.
- 초대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초대시 선물용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 기독교 및 이슬람 등을 통털어 18개 종파가 혼재하고 있으며 이슬람교와 기독교 세력권간에 지역별 품목별로 종파별로 상권이 상이한 점이 특징이다. 내전이전 레바논 최대의 상권은 무슬림중심의 Hamra라고 불리우는 West Beirut 상업지구였다. 내전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인 Centre Ville(Downtown)은 정부주도의 민간회사인 Solidere에 의해 재건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점차 예전의 기능을 되찾고 있다.
- 시내 주요 상권으로는 아쉬라피에, 코니쉬 알 마즈라아, 베르당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베이루트 근교 주요상권으로는 카슬릭, 쥘니에를 들 수 있다.

55. 상거래시유의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문화적 금기사항>

이슬람교도가 절반을 넘는 나라이지만 종교율법이 엄격하지 않고 남녀 가릴 것이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특별히 유의해야 할 문화적 금기사항은 없다.

일부 이슬람교도를 제외하고는 양장차림이 일반화 되어있으며 여름철에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남·여 성차별이 없으며 기도 시간때문에 상담이 중단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아랍보이콧이 발효중이므로 이스라엘 입국 후 stamp가 여권에 찍힌 경우에는 레바논 입국을 거부당하며, 반이스라엘 정서가 강하므로 친이스라엘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수입관행>

전세계 유명브랜드가 시판되고 있으며 고급브랜드 선호도가 매우 높다. 에이전트의 지정이 법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2002년 2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독점 에이전트법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성안되어 의회로 이관되었으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다.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이 없고 독점을 허용하지 않아 한 업체가 잘 된다면 너도나도 참여하여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고 덤핑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LCL 카고 기준 부산-베이루트간 선임은 20FT 컨테이너 US\$ 3,500, 40FT 컨테이너 US\$ 4,800정도로 유럽의 이태리 등에 비해 운송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부피가 크나 저가인 품목은 레바논 시장에 적합하지 않다.

인보이스(Invoice)는 3부가 필요하며 그간 원본의 경우 주재 지역 상공회의소 확인(certify) 및 주한 레바논 대사관의 공증(legalized)을 받아야 했다. 2001년 5월 24일 발효한 신관세법에 따라 통관에 따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종전 주한 대사관의 인증, 상공회의소 인증절차가 폐지되었다.

인보이스에는 다음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We certify that the present invoice is authentic that it is the only one issued by us for the goods mentioned therein, that it shows their exact value without any deduction and that their origin is exclusively Korean."

이스라엘 보이콧 조항이 실효적으로는 유명무실화 되어있으나 문구상으로는 매우 강력한 효력을 미치므로, 반드시 이스라엘 국적선이나 또는 이스라엘 항구를 거치지 않는 선박을 이용해야 하며, 아랍보이콧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보이스에도 명시하고, 실제로 동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법적으로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교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선적서류는 SHORT FORM/BLANK BACK B/L은 수용이 되지 않는다. 컴퓨터 통관시스템인 NAJM과 ASYCUDA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통관절차가 복잡하며 인보이스 가격, 중량 표시 등이 정확해야 한다. 만일 고정거래선의 반복주문에 의한 경우 수출가격이 종전에 비해 크게 낮아졌을 경우 세관원이 언더밸류를 의심하게 될 소지가 많으므로 인보이스 발행 시 원화가격을 병기하여 덤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도 있다.

<거래시 유의사항>

아랍문화권에 속하고는 있으나 동시에 유럽문화의 영향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개성이 뚜렷하여 패션지향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따라서 이슬람 문화에 기초하여 중동에 잘 나가는 제품만이 레바논에 잘 팔릴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유럽형과 중동형 제품 모두 통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대체로 아라비아 상인들이 상술에 능한 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상인기질이 가장 앞 선 나라가 레바논 상인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페니키아상인의 옛터전인 레바논은 상업, 서비스분야가 국민총생산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상업 의존도가 높으며 세계 각지에 흩어져있는 레바논 상인들과의 연계성이 높아 상거래정보가 빠른 편이며 시장규모에 비해 참여하고 있는 상인숫자가 지나치게 많아 극히 일부의 독과점 품목을 제외하고는 경쟁이 대단히 치열한 편이다.

레바논 시장에 판매하면서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물량을 고집한다던가 가격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상담을 미리 포기해버리는 조급증은 금물이다. 많은 레바논 수입상의 공통된 한국업체에 대한 불만이 대량주문 요구이다. 레바논 시장의 규모를 감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 개척 여하에 따라 시리아, 이라크 등 인근지 중개무역의 잇점을 십분 활용하여 대량 주문을 받을 수도 있다.

흔히들 레바논 상권을 보고 중동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일컫고 있다. 다시 말해 레바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제품은 중동 어디에서나 통한다는 말을 시사한다.

<비즈니스 에티켓>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가 각각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매우 개방적이고 서구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서양식 에티켓을 지키는 수준이면 적당하다. 예컨대 상대방이 집으로 초대했을 경우 간단한 토산품이나 꽃을 들고 가는 경우가 많고 유럽문화를 모방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예고 없이 상대방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는 실례에 속하며 반드시 사전에 약속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커피나 음료는 가급적 사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무실 밖에서 상대방의 초청을 받은 자리에서는 가급적 비즈니스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

<상담시 유의사항>

레바논 비즈니스맨들은 상담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무턱대고 덤빌 경우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들 우려가 높다. 시급한 현안이거나 반드시 계약을 성사시켜야 할 건일수록 오히려 느긋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인 안부라던가 국내외 정치상황 등을 주제로 장시간 대화를 나누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본격적인 상담에 돌입한다.

상담시 가급적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말을 하도록 하고 주로 경청하는 입장에 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상대방의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면 된다. 상대방에 따라 가격 협상을 즐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단가 할인에 대해 오히려 진의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성향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첫 거래 시 대부분 시험주문에 그치므로 상대방이 대량주문을 할 것처럼 현혹시키더라도 최소 주문량을 염두에 두고 가격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제시한 가격에서 10%이상의 할인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상대방이 가격 할인을 고집할 경우 가격 협상에 응하기보다는 서비스 수량을 추가로 제공하던가 판촉용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 제의할 필요가 있다. C&F 기준으로 가격을 제시하되 상대방이 원할 경우를 대비하여 FOB가격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일단 합의된 거래조건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준수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산여건도 파악하지 않고 주문을 받았다가 납기를 지킬 수 없다든지 환율변동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레바논은 시장이 좁아 경쟁사간에도 긴밀한 정보교환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수입상에게 보다 솔직한 대응이 필요하다. 가격이나 거래선에 관한 사소한 거짓말도 쉽게 들통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56.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환경

<투자매력도>

레바논은 부동산 및 일부 금융부문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로컬 원자재 의무 사용(Localization)강요라든지 과실송금 규제, 수출의무 비율 지정 등 규제 내지 차별적인 조항이 없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해서 회사 설립에 제한을 가하지도 않는다.

단 토지소유에는 제한이 있어 구입은 가능하나 면적에 제한이 있다. 외국인의 재산 취득은 2001년 4월 3일 개정된 법 제 296호에 따른다. 이 개정법은 재산권 취득에 있어 아랍인과 외국 국적 소유자사이에 차별을 폐지하였다. 부동산 등록세를 내국인 6%, 외국인 16%에서 내·외국인 모두 5%로 낮췄다.

이 법은 허가 없이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규모를 3,000㎡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이 3,000㎡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정부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들은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레바논 전국토의 3%를 소유할 수 있으나 전국토의 3% 이상, 베이루트시의 10% 이상 초과하여 소유할 수는 없다.

레바논은 중동국가 중에서 교육수준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고급, 숙련 노동자도 풍부하고 대학 졸업자는 보통 영어, 불어, 아랍어 3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한다.

금융, 서비스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은행 비밀 보장이 잘 되고 금융시스템이 발달되어 시리아 무역상들 다수가 레바논에서 L/C 개설을 하고 있다.

누증되고 있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위해 2002년 2월부터 신설한 부가가치세로 세율이 인상되는 추세에 있고, 행정지연(관료주의), 공무원 부패가 여전한 상황인데다 인프라 시설(전기, 물 공급, 인터넷 등)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조업 투자시 간접비용이 많이 든다.

시리아 등 주변 강대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투자에 필요한 '안전도 (Stability)'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소비 인구가 약 400만 명에 불과하여 현지 시장을 겨냥한 제조업 투자 대상지역으로는 그리 적합치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외국인 투자도 제조업보다는 부동산, 관광·서비스 및 유통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을 뿐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투자업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외국인 투자유치가 중요함을 인식, 잠재적인 해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투자절차를 간소화, One-Stop Service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수시장 규모, 정치적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레바논은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정책개발, 승인 및 사후관리 책임은 대부분 투자청(IDAL)에 일임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청을 통하여 대부분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레바논은 외국인 투자한도, 투자대상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등 내·외국인 투자를 차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기업 설립조항은 상법에 규정한 5가지 기업형태에 포함되어있으며 외국인 지사설치에 대해서는 상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외국인의 투자보장을 위한 조치로 '전쟁·내란·몰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NIIG(National Institute for Investment Guarantee)가 설립되었으며 또한 '외화송금 및 전쟁 리스크'로부터 보호해주는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에 가입되어 건당 최고 5,000만달러까지 보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무엇보다도 열악한 인프라기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한송전 및 단전이 잦은 편이며 도로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이중 80%이상이 왕복 2차선인데다 도로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면 및 포장 상태 열악한 편이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 불안정을 고려해야 한다. 내전 재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지만 각 정파,종파간 대립구조가 해소되지 않아 정정이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며 밖으로는 시리아의 내전 간섭, 이스라엘과의 국경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어 정치적 위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경영환경측면을 들 수 있다. 주변국가에 비해 고급, 숙련노동자가 많은 편이긴 하나 일인당 국민소득이 약4,800달러로서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현지 기업들은 시리아를 비롯한 이집트, 아프리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으나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많아 외국인 회사가 이들을 채용하는 데는 다소 위험이 따른다.

네 번째로는 생산여건을 들 수 있다.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중간재 및 기계류 수입은 4%의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기업 법인세도 10년간 면제,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관세유예 등의 제조업 우대조치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요소가격은 원칙적으로 경쟁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료주의, 행정 편의주의, 통관 지연 및 급행료 등의 부패적 관행이 상존하고 있어서 간접 비용이 적지 않다. 더욱이 부지(토지)가격과 생산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수준이 인접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주변산업이 발달되지 않아 투자자의 부담이 큰 것이 문제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담요공장을 건설할 때 염색공정은 외주에 의존할 수 있으나 레바논의 경우 염색산업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가 염색공장까지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것과 같은 식이다.

마지막으로 판매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사도 국내업체와 동일한 법적 대우를 받으며 제품 판매 시 외국인 투자법인에게 가하는 특별한 규제나 제한이 없으나 수입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인구 400만 명의 작은 로컬 시장을 놓고 외국산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57. 투자유치정책

< 투자유치정책>

레바논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레바논은 투자법 360호(2001.12월)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레바논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은 IDAL(투자청)을 접촉, 투자절차 및 투자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IDAL (투자청)

- TEL: 961-1-983306
- FAX: 961-1-983302~3
- HOMEPAGE: www.idal.com.lb
- President: MR. SAMIH BARBIR
- MR. JIHAD JARQUT (DIRECTOR)
- 동 기관은 투자유치가 중요함을 인식, 해외투자자들에게 레바논이 갖추고 있는 투자상의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가급적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투자 절차를 간소화, One-Stop Service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

내수시장 규모, 정치적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레바논은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정책 개발, 승인, 사후관리 책임은 대부분 투자청(IDAL)에 일임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청을 통하여 대부분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8. 외국인투자제한

< 외국인투자 제한>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한도, 투자대상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등 내·외국인 투자를 차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조항은 상법에 규정한 5가지 기업 형태에 포함되어 있으며 외국인 지사설치에 대해서는 상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투자청(IDAL)이 장관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투자업체 설립부터 공장부지 선정, 공장건설 등 투자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외국인의 투자 보장을 위한 조치로 '전쟁·내란·몰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NIIG (National Institute for Investment Guarantee)가 설립되었으며 '외화송금·전쟁리스크'로부터 보호해주는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에 가입되어 최고 5,000만달러/건까지 보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59. 투자진출절차

< 투자진출 절차>

레바논은 제조업이 미약하고 인구를 비롯한 시장이 협소하므로, 레바논에 투자를 단행할 경우에는 레바논내 제조를 목적으로한 투자진출보다는 레바논은 진출거점으로하여 중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한 상업 및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현지투자가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기업의 대레바논 투자는 2003년 부산신발센타에서 레바논 기업인과의 합작투자로 Offshore Company를 설립하고, 동 회사의 사무소를 레바논내에 두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나, 2005년 5월 현재 동 합작투자 프로젝트는 해소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이외의 우리나라 기업의 레바논에의 투자는 전무하다.

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규정은 외국투자자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같이 적용된다. 레바논 상법상 기업은 5가지 형태가 있으나, 주로 Partnership과 Joint Stock 또는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나뉘어진다.

1) Societe Anonyme Libanaise - S.A.L. (주식회사)

(Joint Stock or Limited Liability Shareholding Co.)

- 유한책임주식회사. 주주들이 그들의 자본투자액을 넘는 부채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 회사. 최소 투자자본액은 3천만 LL이며 최소 주주인원은 5명. 회사의 정관은 공증을 받아 상업등기(Registry of Commerce)를 해야 함.
- SAL은 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 가능
- SAL은 총회에서 선출된 3~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 단, 설립 첫 임원의 임기는 최대 5년)하여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레바논인이어야 함.
- 보험회사, 은행, 기타 금융 기관은 SAL 형태만 가능
- 회사의 목적이 공공서비스(전기공급, 수자원 공급, 전화 등), 또는 부동산회사일 경우, 자본금의 최소 1/3이상이 레바논인이 소유하는 기명주식(nominal share) 이어야 함.

2) Societe a Resposabilite Limitee – S.A.R.L.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

- 설립멤버는 유한책임사원으로 불리며. 자본금은 주식형태보다는 지분(part)으로 나뉘어지는 유한책임회사이므로 주식발행권은 없음. 최소자본금은 5백만 LL이며 회사 자본금에 대한 사원의 소유권은 상업등기소(registry of Commerce)에 등기되는 사원권 증서에 규정됨.
- 유한회사는 보험, 저축, 프로젝트, 정규수송, 항공운송 및 제3자에 대한 은행·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국적이나 회사의 소재지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외국 파트너도 유한회사에 참여 가능.

3) Partnership 및 Sole Traders

- 모두 상업등기소에 등록해야 하는데 일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인 경우 2인 이상의 모든 사원(Partner)이 회사의 부채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최소자본금 요구가 없으며, 증자, 파트너의 책임증가, 회사 해산 등 주요 의제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됨. 그러나 이익에 대한 세금은 면제됨.
- 외국인 참여에 대한 제한 없음.
- Limited Partnership
 - 2개 부류의 파트너로 구성되며 외국인의 참여에 관한 제한이 없음.
 - ① Acting Partner: 일반 파트너십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무한책임을 짐.
 - ② Limited Partner: 자본금의 지분율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나 회사운영에 참여할 수 없음.
- Stock Limited Partnership
 - ① Limited Partnership과 유사
 - ② Acting Partner와 Limited Partner의 위상이 같고, 파트너의 권한과 의무는 소유 주식에 따름. 극히 드문 형태

4) Holding Co.

- '83년 6월 24일 Holding Co.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인 DL45를 제정. DL45는 Holding Co.의 법적 형태와 활동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91년 9월 7일 법률 85호가 개정되었고 세금부분에 관해서는 '95년 2월 7일 개정되었음.

- Holding Co.는 레바논의 Shareholding Co.형태로만 설립가능하며, 활동 범위는 다음 내용으로 한정됨.
 - ① 레바논 및 외국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
 - ② 그들의 채권이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동산 및 부동산 취득
 - ③ 그들이 채권 또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에 대해 대부 및 보증의 제공(은행 대부를 늘릴 수 있으며, 사채를 자본금+준비금의 5배까지 발행 가능)
 - ④ 특허권, 발명권, 상표권 기타 보호되는 권리의 취득 및 본 권리를 레바논 국내외의 법인에 대여
- 지주회사는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① 수권자본금을 지정할 수 있으며 회계장부를 외국화폐로 기록할 수 있음.
 - ② 레바논 임원은 2명이면 충분함.
 - ③ 레바논 밖에서도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가능
 - ④ 레바논 내에 등기된 사무실 위치
 - ⑤ 회기 종료 후 5개월 내에 주주총회 개최
 - ⑥ 회계감사관(레바논 국적이며 레바논에 거주해야 함)을 최소 1명을 지명해야 함. 3년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정회계 감사관을 지명하는 데 어떠한 의무조항도 없음.

5) Offshore Co.

- `83년 6월 24일 Offshore Co.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인 DL46을 제정.
DL46은 Offshore Co.의 법적 형태와 활동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91년 9월 7일 법률 85호로 개정
- Offshore Co.는 레바논의 Shareholding Co.형태로만 설립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음.
 - ① 레바논 밖에서 수행된 사업이나 거래와 관련된, 또는 레바논외 지역이나 자유무역지대 안에서의 상품 및 생산물과 관련된 협상 및 계약에의 참여
 - ② 레바논 역외 은행, 재무 및 대리행위
 - ③ 레바논 역외 이용을 목적으로 한 조사행위 및 정보제공 행위
 - ④ 수입된 상품보관을 위한 자유무역지대 시설의 이용행위
- Offshore Co.는 레바논 영토안에서의 제조, 은행, 보험, 공업 또는 기타 상행위에의 관여가 금지.
- 등기: 베이루트 소재 Court of First Instance에 특별 등기

60.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지사개설

1. 현지법인 설립

- o 외국인의 레바논내 사업 진출방법은 현지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OFFSHORE CO. (제3국 영업만 허용)의 4가지 형태가 있음.

o 투자허용기준 및 업무범위

무역, 제조업, 금융업 분야에의 진출과 지사설립이 가능하며, 현지등록시에는 영업의 형태를 명확히 해야함. 등록은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지 1달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등록하지 않고 등록이 지연될 경우 수수료 100,000 파운드(약 67불)을 포함한 벌과금 등을 부과할 수 있음.

영업활동 개시 이전에 개인은 레바논정부public security와 노동부를 통해 체류허가를 득하여야 함.

o 투자절차 및 구비서류

-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현지 자회사 설립을 통한 투자는 레바논 투자법 LAW NO. 360호(2001. 8. 16) 및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내국 법인으로 취급됨.
- 레바논의 상법상의 등록(REGISTER OF COMMERCE)은 개인, 회사, HOLDING COMPANY, OFFSHORE COMPANY의 등록과 소유권(PROPRIETORSHIP)의 등록으로 구분됨.
- 법무부 산하의(REGISTER OF COMMERCE)에 등록을 해야 하며, 지역별로 별도의 등록 기관이 별도로 소재하고 있음.
(예; 베이루트 지역 등록처 전화번호: 961-1-427793).
- 신청인은 소정의 신고서 2매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서류로 회사정관을 요약하여 (회사정관 요약에 위한 일정한 양식은 없음),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 필수 기재사항: 회사소유주, 상호, 회사형태, 주사무소 및 지사의 위치, 영업목적, 에이전트 소재지, 주소, 자본금, 설립연도 및 영업기간 등
- 등록후 3개월후 사회보장기금 납부 증명을 법무부 산하 REGISTER OF COMMERCE에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득함

o 등록 비용

내역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 지주회사, OFFSHORE CO.
인지대	자본금U\$166,667 이하: U\$500 자본금U\$166,667 이상: 자본금의3%	자본금의 3%
PUBLIC NOTARY	자본금의 1% + 페이지당 5.65불 + 수수료 60불	
변호사 협회	자본금의 1% + 34불	
지방자치 상호기금: MAGISTRATE MUTUAL FUND	인지대의 50%	인지대의 50% + 334불
사업자 등록		667불 기본 요율
기타 등록제비용	약 100불	약 167불
예치 증명	무료 또는 17불 이하	
은행 게런티	평균 게런티 금액의 1.5 - 2%	
기타 비용	약 1,000불 소요	

* 레바논 국적인 사람은 직접 회사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나, 회사는 통상 법에 따라 변호사를 등재해야 하므로 변호사가 수속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

o JOINT STOCK COMPANIES(SAL) : 자본금 20,000불이상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주주를 요건으로 함. 이사회는 최소 3명 이상 12명으로 구성되며 외국인이 회장일 경우 노동허가를 요함.

* 외국의 담배회사의 경우 현지 마케팅을 위해 법인설립을 한 경우는 없으며 통상 representative office 형태를 취하고 있음.

o 세금관련 사항

현지법인과 지사의 경우, 영업소득세 15%, 부가가치세 10% 등 각종 세금 납부의무가 있으며,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음.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원의 소득수준을 토대로 고용주와 고용원의 분담비율에 따라 납부하여 함.

o 기업 활동관련 법적 의무사항

영업에 따른 영업소득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현지인 고용시 고용주세 납부가 주된 의무. 기타 의무사항은 주재국 법률에 따르며 외국기업이라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의무사항은 없음.

o 기타 ; 모회사로의 자금 송금

모회사로의 자금송금에는 제한이 없음. 레바논은 개인구좌 비밀보호가 철저하며, 개인의 외환송금이 자유롭고 제한이 없음.
회사자산의 경우도 이자, 배당의 송금에 제한이 없음.

2. 지사 (branch) 설립

o 지사설치 절차 및 구비서류

외국회사가 시장관리를 위해 등록할 수 있는 형태는 지사설립과 연락 사무소(대표부) 설립의 2가지로 대별할 수 있음.

지사의 경우는 제조, 무역, 금융 등 관련 모든 법적 행동이 가능하며, 영업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고, 경제통상부(ministry of Trade)에 등록을 요함.

o 등록 필요서류

경제통상부 TRADE DEPARTMENT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1) 신청서: 지사장 또는 에이전트가 서명한 후 지사장 또는 에이전트가 직접 제출하거나 혹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제출 가능
- 2) 외국회사 등록 증명서: 진출 모기업(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내 모기업)이 해당 국가 내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국내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국가의 레바논 대사관(주한 레바논 대사관)의 영사 확인 및 레바논 외무부 공증이 된 서류
 - 상기 2번항 서류를 아랍어로 번역후 번역 공증 필요
- 3) 모기업(한국 회사)의 이사회 결의서류
 - 지사설치 결의를 증명하는 이사회 회의록 등 증빙을 요구하나, 통상은 모기업의 지사장 임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주한 레바논 대사관의 영사 확인 필요
 - 상기 서류를 아랍어로 번역하여 번역 공증 필요

4) 법적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할 경우, 혹은 레바논내에 소재하는 모기업이라도 법적 대리인을 통해 수속을 진행할 경우, 대리인이 법적으로 대리권을 지님을 입증하는 공증 서류

o 소요기간: 7일 (경제통상부 무역국의 등록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o 신청서가 구비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등록수수료를 재무부에 제출하고 영수증(blue copy)을 받아 이를 경제통상부에 제출

o 신설 기업은 레바논 관보에 기업 신설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므로, 관보 게재비를 지불(라인당 5,000LL=약U\$3.33)해야하며 경제통상부는 관보에 게재하고 공고 사본을 10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제공함.

o 등록 비용: U\$1,200.00

o 사업자 등록 (TRADE REGISTER)

경제통상부의 관보 공고 이후, TRADE REGISTER와 경제통상부에 관보 공고 실물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음으로써,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3일 이후 법인설립이 완료됨.

- 등록비 : U\$600불

o 소득세 : 순이익의 15% 세금 납부

o 투자보장 협정 체결

레바논은 25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한국과는 아직 협정체결이 없음.

o 사유재산 보호

레바논은 헌법에 따라 사유재산이 보호되며 국유화는 인정되지 않음.

외국인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도 레바논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에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레바논의 지적재산권등의 보호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함.

국립투자보장회사 (NIGC)는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o 세금 관련 사항

현지법인과 지사와 경우, 영업소득세 15%, 부가가치세 10% 등 각종 세금 납부의무가 있음.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원의 소득수준을 토대로 고용주와 고용원의 분담비율에 따라 납부하여 함.

○ 기업 활동관련 법적 의무사항

영업에 따른 영업소득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현지인 고용시 고용주세 납부가 주된 의무. 기타 의무사항은 주재국 법률에 따르며 외국기업이라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의무사항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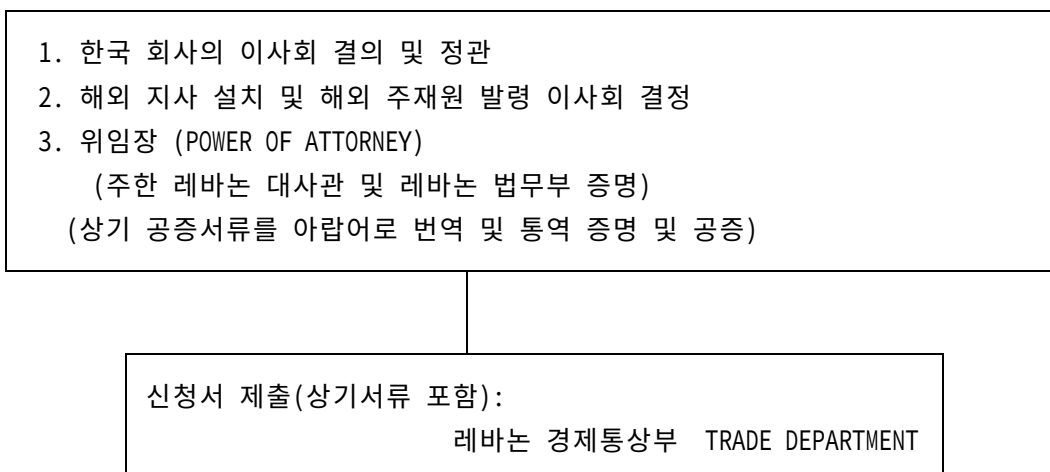
○ 영업 및 광고판촉 활동 가능여부 및 업무범위

지사는 영업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영업 및 광고 판촉 등 모든 활동이 가능하며 영업에 대한 제한이 없음.

3.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 외국의 회사가 레바논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본사와의 업무연락, 시장조사, 홍보 등 비영업적 활동에 국한된 활동만을 수행할 경우,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여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제통상부에 등록하여야 함.
- 단, 동 연락사무소는 영업행위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영업에 따른 세금 납부의 의무는 없음.
- 대기업의 해외주재사무소의 경우 현지법인을 제외하고는 연락사무소로 등록하므로써 레바논의 제세금납부 문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현지에 별도 에이전트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이므로, 모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단순 연락사무소 형태로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음.

[도표] 연락 사무소 설치 절차



신청서 검토 승인 (7일 소요)	
재무부 등록비 지불	
관보 게재, 공지	

○ 소요비용 : 총 US\$2,000가량 소요

FLAT FEE FOR REGISTRATION 등록비; US\$1,200.00

관보 게재비; US\$ 200.00

MUTUAL FUND OF MAGISTRATE 지방법원 등록비; US\$600.00 등

통상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회사등록 및 체류허가 갱신 등 업무는 변호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최저 200불에서 1,000불 등임.

레바논은 법과대학 졸업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법률사무소와 같이 흔하며 각종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세금 관련 사항

현지법인과 지사와 경우, 영업소득세 15%, 부가가치세 10% 등 각종 세금 납부의무가 있으며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음.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원의 소득수준을 토대로 고용주와 고용원의 분담비율에 따라 납부하여 함.

○ 기업 활동관련 법적 의무사항

영업에 따른 영업소득세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현지인 고용시 고용주세 납부가 주된 의무. 기타 의무사항은 주재국 법률에 따르며 외국기업이라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의무사항은 없음.

4. 타 외국회사의 합작투자시 (법인 및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타 외국회사와의 합작투자시 요령은 상기 1번과 2번의 상기 언급한 요령과 동일하나 통상 현지 공장설립의 경우가 아니면 법인설립보다는 연락사무소 형태가 용이하다.

5. 비자 관련 사항

입국시 주한 레바논 대사관으로부터 혹은 공항 이민국 창구에서 3개월 단기비자 취득이 가능하며, 가족의 경우 레바논내에서 노동허가를 득한 근무자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레바논 general Securitydp 제출함으로써 추후 1년 유효기간의 비자로 갱신이 가능함.

o 입출국시 필요사항

레바논 내에서는 입출국시 입출국 카드 기재외에는 별도 필요사항은 없음.

입국후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목적을 신고하므로써 처음에 발부받은 통상 2개월 유효기간의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을 2개월 연장받을 수 있음. 이 기간중 체류허가(이까마)를 획득하고 노동허가를 받아야 함.

레바논 장기체류시 (법인 및 해외사무소 동일) 현지 노동허가를 우선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1년 유효기간의 체류허가를 매년 갱신받을 수 있음.

o 노동허가 (Work permit)

-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 유효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함.
- 모 회사의 대표부 임명장(통상 한국기업의 지사 발령장)을 주한 레바논 대사관에서 영사확인받고, 아랍어 번역본을 레바논 외무부에서 공증 (CERTIFIED) 받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외지사설치 근거서류 사본, 위임장 사본, 레바논 주택은행의 예치 보증금(US\$1,000불) 증서 등을 구비 제출해야 함
- 노동허가 취득 최소 소요기간 : 9일
- 노동허가 수수료 : US\$1,000(LL1,500,000)

o 체류허가 (이까마) 취득 절차

- 여권 유효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여권 사본 3매
- 노동허가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모회사의 대표부 설치 증빙서류
- 체류허가 취득 최소 소요기간 : 7일
- 소요비용 : US\$1,200.00 (LL 1,800,000)

61. 공장설립

레바논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상공부, 환경부, 주정부, 도시계획국의 4개 기관의 허가를 최소한 받아야 하며 14개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상 허가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약 1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레바논 정부는 IDAL(투자개발청)에서 원스탑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 심사 후 15일 이내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투자 및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장 설립시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다.

원자재 수입시는 2%의 관세만을 적용하고 수익을 재투자하거나 수입원자재를 완제품으로 재수출할 경우 감세 및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공장설립 신청시 자본금 증명서, 예치금 (지역 카테고리에 따라 30만-50만LL), 사업계획서, 주정부 허가서, 업종 및 생산제품, 산업폐수 처리계획서, 공장 임차 또는 소유계약서, 종업원 및 업무분장, 원자재 리스트 등 관련서류가 구비가 되어야 한다

< 관련기관 >

- 상공부: (01) 427985~6, 260589, 583999/888
- 환경부: (01) 344554, 865995
- IDAL(투자개발청) : (01)344676, 344403, 983302~3
- 도시계획국(TOWN PLANNING DIRECTORATE): (01) 301813
- 상공회의소: (01) 353390~3, 744161~2
- 레바논 전경련(LEBANESE INDUSTRIALISTS ASSOCIATION) : (01) 350280~2
- COMMECIAL REGISTRATION OF BEIRUT: (01) 353390~3

산업은 공해정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카테고리 1 : 연간 1,000kg이상 공해 발생산업
- 카테고리 2 : 연간 100-1,000 kg 공해 발생산업
- 카테고리 3 : 연간 100kg이하 공해 발생산업
- 카테고리 4-5 : 공해정도가 매우 미미한 산업

공업지역도 공해정도에 따라 5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 지역 A : 공해가 적은 환경친화산업이 지역으로 카테고리 3-5지역
- 지역 B : 공해가 있는 지역 (카테고리 2)
- 지역 C : 공해 정도가 심각한 지역(카테고리 1)

레바논에는 총 59개 공업지역이 있고 기존 44개, 신규 15개가 있다. 주요지역은 베이루트, 남부에는 시돈, 나바티에, 티르, 북부에는 트리폴리, 체카, 자흘레, 베카계곡 지역 등이다.

레바논 노동력의 14%만이 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시리아, 이집트 등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레바논에서 일하고 있다.

< 지역별 공장지가 >

- 시돈 - 나바티에 - 티르 : \$10-50/ m²
- 체카 - 베다위 : \$30-50/m²
- 할바 : \$5-10/m²
- 자흘레 - 베이루트 마스나 로드 : \$30-150/m²
- 다우라 - 부르쥬하므드 : \$200-1,000/m²
- 바트룬 : \$10-70 /m²

62. 산업단지/산업단지 현황

전국에 걸쳐 10개의 산업공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전후 각 지역별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24개소의 신규 산업공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전발발 이전부터 조성된 산업공단의 입주율은 매우 낮은 편이나 베이루트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산업공단에는 비교적 입주율이 높은 편이다.

산업공단에 대한 행정적 지원업무는 IDAL(투자청)에서 전담하고 있다. IDAL은 공단 입주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인프라 미비와 미흡한 인센티브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3가지 카테고리를 정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주요 산업공단 현황)

- Tallet-Nahr Ibrahim
 - 위 치 : 베이루트 북쪽 32km, 베이루트-트리폴리간 고속도로로부터 1km 내륙방면
 - 조성 및 입주가능 면적: 총 36ha(헥타르)중 28ha
- Chekka
 - 위 치 : 베이루트 북쪽 60km, 베이루트-트리폴리간 고속도로변
 - 조성 및 입주가능 면적: 총 227ha중 207ha
 - 공단특징 : 북부레바논 제2의 산업공단
- Mazraat Yachouaa
 - 위 치 : 베이루트 북쪽 12km, 안틀리아스-빅파이야 중심도로로부터 500m 안쪽
 - 조성 및 입주가능 면적: 총 39ha중 30ha
 - 공단특징 :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함으로서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소기업 공장설립에 적합

- Aley
 - 위 치 : 베이루트 동쪽 12km, 알리-샤툼 산업도로변
 - 조성 및 입주가능 면적: 총 67ha중 62ha
 - 공단특징
 - ① 베이루트-자홀레간 고속도로 건설시 베이루트 위성도시에 편입될 전망.
 - ② 수공업 및 경공업 입주 유리
- Fanar
 - 위 치 : 베이루트 동쪽 5km, 즈다이드-아인사아드 메인도로변
 - 조성 및 입주가능 면적: 총 263ha중 142ha
 - 공단특징
 - ① 동 지역은 실질적으로 Greater Beirut 지역에 속함.
 - ② 노동집약적 경공업 입주유리
- Mkalles
 - 위 치 : 베이루트 동쪽 4km, 베이루트-베이트메리 메인 도로변
 - 조성 및 입주가능 면적: 총 130ha중 90ha
 - 공단특징
 - ① 동 지역은 실질적으로 Greater Beirut 지역에 속함.
 - ② 가구업종에 적합

(산업공단 입주시 인센티브)

- 상공부 장관이 주재하고 환경부, 도시계획위원회 및 IDAL이 참가하는 위원회에서 공단입주 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한 행정 절차를 신청후 30일내 심사(One stop service)하고, 결정후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 제조용 원료 및 중간재, 공장 건설용 기자재(기계, 설비 및 부품) 수입시 2% 관세만 부과한다.
-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공단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생산 개시일부터 10년간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를 면제한다.
 - 1980년 이후 투자업체
 - 주재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생산 시
 - 정부가 지정한 산업공단 입주업체
 - 최소 자본금이 5억 LL(약33만 달러)이상
 - 소득세를 공제한 총이익이 고정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이외에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관세가 유보된다.

63. 자유무역지대

< 자유무역지대>

산업용 자유무역지대는 아니며 일종의 보세창고역할을 하는 자유무역지대이다.

레바논에는 베이루트항과 트리폴리항에 2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운영중이다.

북부레바논의 Selaata 와 Qleiaat에 새로운 자유무역지대가 민간자본으로 B.O.T.나 B.O.O.(build/operate/own)방식으로 설립, 운영될 예정으로 1999년 이래 계속 협의중에 있다. DGCA(Directorate General of Civil Aviation)은 베이루트국제공항에 서비스항상과 하이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해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할 최종 계획을 확정하였다.

베이루트항에 위치하고 있는 free zone 은 법령 99-8-26 에 따라 설립되었다. 동 지역은 보세구역으로 관세법 219 조에 따른 허가하지 않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이 무관세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free zone 에서는 수입품을 변형하고 포장하는데 대한 어떤 관세도 지불하지 않고 재수출할 수 있다.

보세구역에서 15일 이내 체류할 경우 항만세 등 제반비용은 20ft 컨테이너의 경우 25불이며, 40ft는 35불 수준이다. 체류일이 15일 이상 30일 이내일 경우 각각 75불, 100불이다.

보세구역은 public ware house 및 private ware house로 나누어져 있으며 베이루트항의 free zone 의 총면적은 125,880m²이며 2005년까지 188,820m²로 확장할 계획이다.

64. 조세제도

< 조세제도>

레바논은 2002년 2월부터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VAT)가 도입되어 전면 시행중으로 모든 거래에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쌀, 야채 등 기초생필품에만 적용이 유보되며 모든 제품의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다가, 대부분의 경우 판매상이 기존의 가격에 부가가치세만큼 가격을 추가하여 인상시켰으므로 소비자에게는 이것이 물가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레바논정부의 재정수입은 부가가치세 세입이 최고액수를 차지하고 이통통신부문으로부터의 수입, 그리고 관세수입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어 부가가치세는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한 때 부가가치세율을 현행의 10%에서 16%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전반적인 국내외 정치현안들이 경제를 제약하고 있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그러나, 레바논은 아직도 조세징수체제가 미비하여 탈세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정부재정수입 적자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법인소득세의 경우 하기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업, 상업 및 비상업활동의 소득에 대한 과세
- 임금 및 연금에 대한 과세
- 유동자본으로부터 획득한 소득에 대한 과세
- 일반조합과 관련된 부분

`98년부터 적용한 세제는 다음과 같다.

- 5% 판매세 부과(신설) : 모든 호텔, 식당 및 위락시설 매출
- 수입관세 2% 추가 : 석유제품, 외국화폐, 금, 항공기, 대형선박 및 담배를 제외한 모든 수입상품을 대상으로 함
- 로컬 및 수입 시멘트 부가세 233% 인상 (LL6,000/톤에서 LL20,000/톤으로 인상)
- 외국인 취업자의 취업허가 수수료 100% 인상
- 부동산 등록세 1% 인상 (외국인: 9.8% 에서 10.8%로, 레바논국적인: 6.7% 에서 7.7%로 인상)

1) 투자세

레바논 정부는 자본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영업이익을 자본으로 재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4년간 소득세의 50%를 공제해주며, 해당 기업의 투자 대상지역이 개발지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소득세의 75%를 면제해준다.

2) 영업세

가. Holding Co.에 대한 특별세-Decree Law 45 of 1983

- ① ‘83년 6월 24일 레바논은 Holding Co.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인 DL45를 제정, Holding Co.의 법적 형태와 활동범위를 규정. 또한 Holding Co.로부터의 이익은 DL144의 소득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Holding Co.의 지급 배당금에 대해서는 Property Capital Incomes ' tax를 면제해주고 기타 이자소득세 등 각종 제세금만을 부과.
- ② Decree Law 45 of 1983의 제6조는 Holding Co.가 소유한 자본금 및 준비금 총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 한도액은 500만LL로 한다고 규정.

[표1] 자본금 및 준비금 총액과 부과세율

자본금 및 준비금 총액	부과세율
최초 LL 5,000만이하	6%
LL 5,000만이상 - LL 8,000만 이하	4%
LL 8,000만 이상	2%

* 참고: 2005년 5월 현재 US\$ 1= LL 1507.5

- ③ Holding Co.는 매각채권을 회사가 2년 미만 동안 소유할 경우 자본이득세 6%, 합병회사로부터 거둬들인 영업수수료(이 수수료들이 정부법령에서 규정한 한도를 넘지않는다는 가정하에)에 대해 5%, 면허권, 특허권, 기타 보호되는 권리를 얻음으로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10%, 레바논에서 영업하는 회사로부터의 부대 이자 상환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대부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5%의 세금을 각각 부과.

나. 해외지사(Offshore Co.)에 대한 특별세- Decree Law 46 of 1983

- ① '83년 6월 24일 레바논은 Offshore Co.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인Decree Law 46 of 1983을 제정. Decree Law 46 of 1983은 Offshore Co.의 법적 형태와 활동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Offshore Co.를 그들의 실제 이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로부터 면제시키고 일률적인 년 세금을 부과.

② 세 금

- a) Offshore Co.는 그들의 수익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 대신 수익 총액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연간 총100만 레바논 파운드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 세금은 회사가 몇 월부터 영업을 개시했는지를 불문하고 최초 사업 개시년도부터 적용.
- b) 또한Offshore Co.에 대해서는 0.3%의 인지세와 5%의 배당세도 면제.
- c) Offshore Co.의 레바논내 고정자산을 매각,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DL144 소득세법의 제4조에 규정된 대로 6%의 세율을 부과.
- d) Offshore Co.에 의해 고용된 외국인 경영자들의 봉급은 그 중 30%가 대표수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항목으로부터 제외됨. 급여에 대해서는 2%-10%까지의 정기급여 세율을 적용.

3) 소득세(Decree Law 144 dated 12 June 1959 및 이의 개정안)

가. 법인 소득세

(1) 대상범위

- ① Decree Law 144 dated 12 June 1959 는 레바논 소득세법의 근간을 이루며 이후 이의 개정안이 ㄹ추가되면서 현재의 소득세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DL 144의 제4조는 회사의 형태, 목적, 국적 또는 영업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에 대해 이 법에 의한 소득세를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레바논 회사 및 외국 회사(레바논에 소재 여부를 불문하고 그들의 자회사 및 지사 까지)가 포함되며 제 4조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법인에 적용.
- a) 부동산 또는 사업상의 매매 대리법인
 - b) 상업건물 및 공업용 건물의 임대법인
 - c) 광산 수입으로 이익을 보는 법인
 - d) 모든 종류의 중개. 대리업에 관계된 법인
- ② 제4조는 어떠한 세법에도 규정되지않는 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모든 법인은 DL 144 제 1장의 적용을 받는다는 포괄규정을 두고 있다.
- ③ DL144 제 4조의 예외조항으로Decree Law 144 dated 12 June 1959, Decree Law 45 dated 1983, Decree Law 46 of 1983에 면세조항이 있음.
- ④ DL144는 2종의 면세규정(영구면세 및 10년간 면세)을 두고 있음.

영구면세는 다음 회사 및 기관에 대해 적용

- 교육기관
- 병원, 고아원, 무료구호소
- 학술기관(Mental Institutions)
- 농업분야의 벤처 기업
- 농산물 소비조합

10년간 면세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체에 적용.

- 1980년 이후 레바논에 설립
- 정부개발계획지구에 설립
- 1980년 이전에 레바논에 생산되지 않던 신상품 생산
- 생산 목적 자산(부동산, 공장, 설비)을 5억 레바논 파운드 이상 소유

- ⑤ 10년간 면세는 생산이 개시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이익이 투자된 자산의 감가상각 이전 가치와 일치할 때까지 한정됨. DI 조항에 의한 면세는 재무부 장관과 상공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공포된 정부 칙령에 의해서만 적용.
- ⑥ DL45와 DL46이 적용되는 Holding 및 Offshore Co.는 각각 DL144 소득세법에 의한 세금 적용이 면제됨.

(2) 과세 소득

- ① 레바논의 세법은 과세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 Worldwide Approach보다는 Territorial Approach를 보편적으로 사용. 실제로 DL144의 제5조는 레바논 내에서 획득한 순이익은 과세 대상이 됨을 규정.
- ② 순이익은 총과세 대상 수익에서 총비용과 경비를 제한 회사의 순과세 대상 수입으로 구성되며, 비용 및 경비로 분류되는 항목은 DL144의 7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
 - 매출원가
 - 서비스 원가
 - 건물 임대료, 또는 건물이 회사 소유일 경우 그 상당액
 - 지급이자
 - 임금, 연금 및 해직수당
 - 기타 고용보험 같은 통상 지출 항목
 - DL144에 규정된 이외의 과세
 - 모든 감가상각비
 - Mandatory Reserves
 - 법이 허용하는 자선 단체 기부금
 - 대손금
 - 법에 명시된 광고비
 - 부동산개발로 얻은 수익에 대한 지방세
- ③ 제7조는 또한 다음의 비용 및 경비도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
 - 자본이자
 - 레바논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본국 부과세금
 - 레바논 역외소재 기관, 지사, 대리점 및 사무실의 손실
 - 고용주나 그의 파트너의 사적인 비용
 - 비경상적인 세금 또는 사적인 벌금

(3) 소득세율

- ① Joint Stock co., Limited Liability Co., 그리고 Partnerships Limited by shares에 대한 세율은 소득액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순과세대상소득의 10%를 적용하며 기타 회사 및 사업체들은 다음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음.

[표2] 법인 소득세율

소득범위	적용세율
최초 LL 750만 이하	3%
LL 750만 이상 - LL 1,875만 이하	5%
LL 1,875만 이상- LL 3,750만 이하	7%
LL 3,750만 이상	10%

* 참고: 2005년 5월 현재 US\$ 1= LL 1507.5

- ② 부동산 개발세율 : 상기세율의 50%. 토지, 빌딩 및 아파트 등 주거지 개발. 매각 이익에 대해 과세.
- ③ 정부 프로젝트를 맡은 건설회사는 실질 총수입액의 10%를 이익으로 간주, 세금 부과
- ④ 레바논에 사업장이 없는 회사의 레바논내에서의 수익은 순과세 대상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적용 받음. 순과세 대상소득은 최초 수익의 10%,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했을 때 그 수익의 50% 부과.
- ⑤ 외국 회사의 본사가 지사, 자회사 등의 경비를 부담한 경우, 정당하고 공정하게 부담하였다는 인증서를 본사의 회계감사가 레바논 세무당국에 제출할 경우 본사가 대신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5%의 과세가 이루어 짐.

(4) 기타 세율

- ① 자산, 플랜트 및 장비의 처분 이득에 대해서는 6% 과세되며 유동자본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5% 과세.
만약 회사가 자본이득이 실현된 2년 동안 사원을 위한 영구주택 건설을 위해 자본 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투자할 경우 재투자 분에 대한 세금은 반환될 수 있음.
- ② 배당금은 5% 과세. 외국회사에 의한 수익은 전부 분배된 것으로 보아 세금 공제 10%의 소득세 공제와 현금 및 신용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의 mandatory reserve가 끝난 후 5% 과세.
- ③ 0.3%의 인지세는 주식자본, 법인채권, 상업어음 및 계약에 관련된 자료 등 각종 서류상의 가액에 대해 과세됨.

(5) 손실의 이월

손실이 발생한 경우 3년간 이월하여 상계될 수 있음.

(6) 납세대상기간 및 납세일

- ① 비록 회사가 소득세 청의허가를 얻어 자신들만의 회계연도를 사용하더라도 과세 대상기간은 그레고리력에 의함.

- ② 회사의 납세신고는 소득 발생년도의 익년 5월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기타 납세자들의 납세신고는 소득 발생년도의 익년 3월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함.

나. 개인 소득세

현지인 및 교포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봉급, 임금 및 이익은 부양 가족 면세 공제 후, 2%-10%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는다.

[표3] 개인근로소득공제 종류 및 공제 금액

(단위: 레바논파운드 LL)

종 류	공제 금액
본인 공제	750만 LL
배우자 공제	250만 LL
자녀 공제 (5명까지)	50만 LL

* 참고: US\$ 1= LL 1507.5

[표4] 개인소득세 누진세율

(단위: 레바논파운드 LL,%)

총임금범위	적용세율
600만 이하	2%
600만 이상 - 1,500만	4%
1,500만 이상 - 2,500만	6%
2,500만 이상 - 7,500만	8%
7,500만 이상	10%

* 참고: US\$ 1= LL 1507.5

**자료원 : 레바논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각종 추가 보완 법률 종합

65. 사회간접자본

<전 력>

지난 ‘75년 - ‘90년간 15년에 걸친 내전으로 발전, 송·배전설비가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 이스라엘의 수 차례에 걸친 발전/송·배전 설비에 대한 폭격도 있어서 이 때 파괴된 시설에 대한 복구도 아직 완료되지 못하는 등 레바논의 전력사정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90년대 초반 일일 6시간의 제한 송전사태까지 악화되었고 현재도 제한송전이 계속되고 있어 대부분의 건물에는 발전기 구비가 필수적이다.

'93년 이탈리아의 Ansaldo Energy가 미화6,600만불 상당의 Zouk(600MW 생산규모) 및 Jieh (340MW 생산규모) 수력발전소 재건사업을, 우리나라의 현대건설이 미화8,000만 달러 상당의 송전시설 복구사업을, 프랑스의 Bouygues사가 미화4,000만불의 배전시설 복구 사업을 추진하여 Upstream 분야는 거의 마무리되었으나, Downstream 분야는 '97년 말이 되어서야 대부분 복구되었다.

[표1] 원료에 따른 전력생산비

전력원	생산비(%)
화석연료	97.2
수력발전	2.8
핵 발전	0.0
기 타	0.0
합 계	100.0

*자료원: The World Fact 2004, 미CIA 자료.

[표2] 전기요금

사용자	월전력소비량 (kWh/월)	전기요금	
		LL/kWh	\$ cents/kWh
가정용 및 상업용(저전압)	0-100kWh	35	2.3
	100-300kWh	55	3.6
	300-400kWh	80	5.3
	400-500kWh	120	8.0
	500kWh 이상	200	13.2
공공기관·무료의료시설 종교기관·극장·자선기관 ·호텔·가로등 (저전압)	Flat	140	9.3
소규모산업용(저전압)	Flat	115	7.6
농업용(중전압)	Flat	115	7.6
산업용(고전압)	Flat	115 - 140	7.6 - 9.3

* 자료원: 레바논 전력청 (www.edl.gov.lb/AboutEDL.htm#5), 2005년 4월 현재.

레바논에는 7개의 화력발전소와 3개의 수력발전소가 있으나, 내전동안 손상된 발전소 설비 및 송·배전설비의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력요금 체계 미비 및 수금과 盜電 등으로 인해 레바논 전력청(Electricity Du Liban:EDL)은 재정상 만성적자를 겪고 있다.

EDL의 추정 전력생산량은 2003년에 88억 9,300만kWh로 증가하였으나, 총수요량에는 미달하여 인근 시리아로부터 연간 12억 8,100만kWh를 수입하여 총 101억 7,400만kWh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송전시 기술적인 문제로 15%가 소실되어 실제 송전된 전력량은 약 86억 4,800만kWh이었다. 여기에 도전으로 인한 손실분이 있어 수용가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총 63억 2,000만kWh에 대해서만 청구서를 발송하였다. 한편, 전력요금으로 수금된 것은 이중 88%인 55억 6,200만kWh에 해당되는 금액이 징수되었다. 즉, 전력청이 공급한 전력 101억 7,400만kWh가운데 55%인 55억 6,200만kWh에 대해서만 징수된 것이다.

레바논 전력청은 연간 4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재정적자 요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통 신>

정부에서는 그간 유선전화 네트워크 복구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동안, 무선통신 분야는 2개의 민간GSM 네트워크에 운영권을 위임하였는데 이들 민간 이동통신업체가 예산을 훨씬 넘어선 성공을 거둬 통신 문제는 크게 개선되었다.

1) 전후 통신 복구공사

- 내전이 종료되고 난 뒤인 `92년도 평가에 의하면 통신분야의 피해액이 약 5억 1,700만 달러에 달했다.
- `90년부터 레바논 체신청(MPT)과 CDR은 통신망복구에 착수하면서 아예 디지털 네트워크화를 추진하였다.
- CDR은 미화 8-9억불의 예산을 들여 `92년부터 10년간 기존 유선 전화라인의 복구, 라인 증설 및 무선전화 네트워크 도입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간 중 150만 라인을 갖출 예정이다. 한편, 유선전화 보급률은 인구 100명당 30대를 목표로 정했다.
- 1999년 기준으로 일반전화 가입자는 약700,000회선으로 확인된 바 있다.

2) 교환기 복구공사

- 교환기 복구공사는 원거리 교환기를 제외한 메인 교환기 설치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알카텔, 에릭슨 및 지멘스가 시공한 디지털 교환기 공사로 총 98만 회선이 신설되었다.

3) PSTN 프로젝트

- 교환기 복구 프로젝트에 이어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프로젝트도 Alcatel, Siemens, Ericsson사에게 발주되어 60만 회선이 넘는 전화선, 그것도 대부분이 광케이블 방식으로 설치되어 91만 5,000회선이 설치되었다.

4) 휴대용 무선전화(GSM)네트워크

- '94년 6월 B.O.T 방식으로 Cellis(프랑스 텔레콤과 현지업체간의 합작법인)와 Libancell(텔레콤 핀란드와 현지업체간의 합작법인)와 계약을 체결한 이래 각각 13만 회선과 12만 회선 등 총 25만회선의 가입자를 확보하였으며 최대 27만 회선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 1999년 현재 휴대전화 가입자는 580,000회선이다.
- 레바논 정부는Cellis 및 Libancell로부터 회수한 무선전화네트워크 운영권을 국제입찰을 통해 2004년 Alfa와 MTC Touch 2개사에 부여한 바 있으며, 양사는 4년동안 무선통신 운영권을 운영예정으로 있다. (한편, Cellis와 Libancell의 투자회사인 프랑스 및 핀란드 통신사는 레바논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원에 이익을 제기한 상태이다.)

5) 인터넷 네트워크

- 레바논의 인터넷망도 규모는 작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분야이다.
- ISPs (Internet Service Providers)는 2000년 현재22개가 있다.
- 인터넷 이용자는 2002년 현재 400,000명이다.
- 2000년부터 추진해온 초고속통신망의 도입은 정치적 현안문제 등으로 아직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교통>

곳곳이 패이고 뜯겨져 나간 도로사정은 레바논 내전이 남겨놓은 최대의 골칫거리로 손꼽히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말미암아 차량 및 유지보수비로 줄잡아 해마다 1억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93년도 세계은행 조사에 의하면 기존도로의 40%가 시급한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주변국가중 최대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기록하는 원인이자 전체 재건복구계획의 순조로운 진척을 가로막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1) 도로망

- 레바논은 도로의 질(Quality)적인 측면에는 문제가 많지만 도로울 만큼은 매우 높고 비교적 잘 발달된 편으로서 km^2 당 0.63km의 도로울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방도로를 제외한 도로 총연장은 7,200km를 상회한다. 그러나 이중 80% 이상이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이다.

- ① 국제도로: 530km
- ② 1차도로: 1,650km
- ③ 2차도로: 1,340km
- ④ 로컬도로: 2,810km

- 레바논의 도로체계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각 지역을 연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고속도로는 남북을 연결하는 해안도로(남부 티르--북부 아카)와 베이루트-다마스커스 도로, 베카계곡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중심 축이다.

2) 교통상황

- 도로사정이 열악하다 보니 교통체증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서 특히 해안도로와 베이루트-다마스커스 도로가 교통체증이 가장 심하다.
- 더욱이 전후 자동차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로증가율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바, 일례로 자동차 수의 경우 `74년 26만 5,000대였던 것이 현재 135만대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증가율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
- 차량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대책으로 `97년 7월부터 베이루트 전역에 약 200 대의 버스가 전후 처음으로 투입되었으나 산악지역을 연결하는 좁은 도로를 다닐 수 없어 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 정부는 베이루트 시내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2,000만달러를 우선 배정, 신호체계 수립 및 도로표지판 공사에 투입토록 하였다.

3) 철도: 내전으로 파괴, 복구되지 않아 현재 운행 중단 상태임.

<매스컴>

내전 종료 후 종파별로 난립한 방송국, 신문사, 라디오 방송국을 크게 정비하였으며, UNDP통계에 의하면 레바논은 중동에서 인구 천명당 라디오/TV 방송국숫자는 1위, 신문은 UAE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다.

1) 라디오 및 TV

- 국영 LEBANESE BROADCASTING STATION이 아랍어(국내방송), 불어, 영어, 서반어, 포르투갈어, 아랍어(해외방송) 방송을 하고 있다.
- 7개의 TV방송국과 10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운영중이다.

2) 신 문

중동지역에서 가장 많은 30개 일간지와 100개 이상의 주간지, 월간지가 발간된다.

<교 육>

레바논은 역사적으로 중세부터 구라파 선진제국과 교류를 갖고,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중동지역의 학술·문화 중심지였다. 15세이상 인구의 문자 해독율은 평균 87.4%로서, 성별로는 남성이 93.1%, 여성이 82.2%이다.

학교 수는 약 2,719개이며 이 가운데 공립학교가 45.71%, 사립학교가 36.23%, 비영리법인 운영학교가 10.07%를 차지하고 있다 (레바논 재정부 1998-1999자료. 2005. 현재 최신자료).

교사는 약 39,000명이며, 학생은 800,000명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친 이란 HIZBOLLAH가 전국적으로 126개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레바논의 교육시스템은 프랑스식 영향을 받아 다음과 같은 학제를 이루고 있다.

- 초등교육 : 5년(의무교육)
- 중등교육 : INTERMEDIATE COURSE 4년, SECONDARY COURSE 2년
- 고등교육 : 대학교(4년), 사관학교(3년)
- 주요 대학 : AUB(AMERICAN UNIV. of BEIRUT), LAU, BEIRUT ARAB UNIV., UNIVERSITE LIBANAISE, UNIVERSITE SAINT JOSEPH ,UNIVERSITE SAINT-ESPRIT DE KASLIK 등

66. 노동여건

1. 고용절차

근로자의 경우는 개별 면접에 의해 채용여부를 결정하며 매년 공개채용제도는 없다. 전문 직업소개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현지인 고용시 정부의 고용허가 및 신고가 필요 없으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노동법(Code of Labor, Law of 23 Sept.1946)의 규정내에서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고용관계가 성립하며, 법적으로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수습기간중 급여는 첫 달은 통상임금의 1/3, 두 번째 달은 절반을, 마지막 달은 2/3을 지불해야 한다

2. 고용계약

고용관계는 `64년 9월 23일 제정된 노동관계법에 의하며, 동 법은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정해지지 않은 서면 및 구두상의 계약들에 적용된다. 비록 사설직업소개소가 있기는 하나 고용관계는 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계약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법 규정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고용주측과 피고용인측이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이 관여하는 주요 영역은 미성년자, 장애인, 여성 그리고 이민자의 보호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

원칙적으로 피고용인은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주에 대한 복종, 고용주의 재산보호, 사내 직위 서열의 존중, 직무상 비밀의 누설 금지, 고용주에 대한 항명 금지, 미성년자 및 여성의 보호, 노동법은 8-13세의 아동, 13-16세의 청소년 및 여성의 고용이 금지되는 산업 부문들을 규정하고 있다.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아동과 여성의 야간 근무는 절대 불허된다.

3. 휴가제도

주간 36시간의 지속적인 휴식시간을 근로자에게 보장해주어야 하며, 보통 그러한 휴식 시간은 일요일이 된다.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연간 15일의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그 기간 중 급여는 평소와 같은 유급휴가로 한다.

직업병이 아닐 경우 진단서를 근거로 병가를 줄 수 있으며, 휴가일수는 피고용자의 직장내 근무연한에 따라 결정된다. 임산부는 45일의 유급휴가 혜택을 받으며, 피고용인의 배우자 또는 친척중 1명이 사망할 경우엔 2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표1] 근무연한별 휴가일수]

근무연한	유급휴가(100%급여)	유급휴가(50%급여)
2- 4년	1개월	1개월 반
4- 6년	1개월 반	1개월 반
6-10년	2개월	2개월 반
10년 이상	2개월 반	2개월 반

4. 사회보장제도

레바논은 질병 및 출산, 가족수당, 그리고 실업보험 목적의 3개 경우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계획이 있으며 피고용인은 사회보장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회보장세의 납세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며 사회보장세는 (월급 + 시간외수당 + 상여금 + 특별급여) x 납세율로 산출한다.

질병과 출산 및 가족수당의 경우에 지급되는 사회보장금의 최대 금액은 공식적인 최저임금 (OMWR: '97년도 기준 약 194달러) 의 3배이다. 외국인인 고용보험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장세의 납부의무자가 된다.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레바논 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그들의 고용주가 레바논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용인들에게 해당회사의 본국인 모국에서 사회보장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해당 피고용자에 대한 사회보장세는 완전히 면제된다.

[표2] 사회보장기금 납세율

종 류	고용주측 부담률	피고용인 부담률
질병 및 조산	7.0%	2%
가족수당	6.0%	0%
실업보험	8.5%	0%

자료원 : 레바논 사회보장세법 개정내용

5. 급여기준

레바논 노동법에 의하면 주 48시간 근무하는 기준으로 급여를 지불하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식당, 카페같은 몇몇 경우에는 연장될 수도 있으며, 중노동이거나 비위생적인 노동환경일 경우에는 단축될 수 있다. 근로자들은 매일 최소 9시간의 계속 휴식시간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으며, 남자는 6시간, 여자는 5시간의 근로시간 중 최소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고용주로부터 보장 받는다.

6. 초과근무수당

주 48시간으로 책정된 기본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 고용주가 지불하는 초과근무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지불되며 통상 정규근무시간의 1.5배에 해당되는 보수를 지불한다.

7. 해고절차, 조건

해고시에는 노동법 제 50조의 적용을 받는다. 임시고용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해고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경과해서 고용행위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 피고용자는 indefinite employment 권리를 가진다.

계약기간을 미리 정하지않고 맺은 계약서에 의거하여 고용관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서면으로 계약 종단을 통보할 수 있다. 이때 사전 통고기간은 근로 연한에 따라 다른데, 3년 미만 근무 시는 1개월, 6년까지는 2개월, 12년까지는 3개월이며 12년 이상을 근무했을 경우에는 4개월의 사전 통고기간을 주게 되어있다.

고용주가 해고를 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한 바 대로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피고용자는 노동중재위(labor council)에 제소할 수 있다. 제소후 3개월 내에 제소건이 종료되어야 하며, 통상 중재와 양 당사간 우호적인 타협으로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중재위에서는 피고용자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건강 등을 고려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해고수당을 지불토록 판결한다.

해고수당은 해고당시 급여의 12개월 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3개월분 급여보다는 많아야 한다. 정상적인 정년은 64세이며, 민간부문이 퇴직계획을 채택할 때까지는 실직수당으로서의 포괄급여가 인정된다.

8. 노조활동보장

노조활동은 약한 편이며 General Confederation of Lebanese Workers가 노동계를 대표하고 있다. Mr. Elias Abu Risk가 이끄는 노총은 산발적으로 시위를 주도하고 있으나 크게 사회문제화 될 정도는 아니다.

Confederation of Sectoral Unions이 따로 노총과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며 Unions 에는 산업별 노조중 Union of Employees and Workers of Beirut Port와 Federation of Unions of Autonomous Agencies가 참여하고 있다.

단체협상은 은행과 같은 금융산업분야에서 흔하며, 레바논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가로 가입되어 있다.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2001년보다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 경영자와 노동자와의 관계도 문제가 많으며 파업은 해고에 반대하여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9. 임금 이외의 비용

임금 이외에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는, 사회보장세 고용주측 부담금(사회보장제도 참조)과 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보험제도 참조)이 있으며 통상 상여금은 지불하지 않고 있다.

10. 외국인의 거주허가 및 취업허가

레바논에서 사업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은 거주허가권과 취업허가권을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자유계약 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취업허가권은 노동부에서, 거주허가권은 National Security에서 발급하며 수수료는 정부 예산법에 정해져 있다. 통상적으로 각 허가권은 숙련공들과 자격증 소지인들에게 잘 주어진다. 허가권은 특정회사의 특정업무에 대해 주어진다. 따라서 노동부의 사전허가 없이 업무나 회사의 기본적인 성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허가권은 2년간 유효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갱신할 수 있다. 갱신은 기존 허가권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무효처리 된다.

직업상의 이유로 레바논에 상주하거나 고용자의 자격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은 취업허가권을 얻기 위해 다음 서류들과 함께 노동부에 자신의 고용주를 통하여 사전 승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서류: 참고자료-Investor ' s Guide, 1997년판, ECE (Etudes et Consultations Economy SARL) 발행. 2005년 현재 최신자료.

① 가정부(maids):

- 여권이나 관계당국의 신원확인 증명서 사본
- 고용주의 신분증 사본
- 고용주에 대한 약식보고서
- 입원비, 재해비, 사망시 고국으로의 시신송환과 상속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증서(이 증서는 인가 받은 보험회사에서 실시중인 보험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

② 일반근로자(labourers):

- 여권이나 관계당국의 신원확인 증명서 사본
- 고용주의 신분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상업등기부, 영업허가증) 사본
- 해당 근로자가 취업할 회사내 레바논 및 외국인 근로자 명단 (사회보장기금 NSSF: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이 발행
- NSSF에서 발행한 발급일자가 최근 1년이내인 사회보장기금 납부증명서
- 고용주에 대한 약식보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취업허가나 그 갱신에 대한 규정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외국인은 위의 제출서류와 함께 다음 서류도 동봉해야 한다.

- 양측이 서명하고 공증인이 공인한 근로계약서(업무의 성질, 기간, 소재지, 월 급여를 명시해야 하며 월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개인신상과 레바논으로의 입국일을 나타내는 여권 사본
- 임시 거주허가증(the General Direction of the National Security에서 발급), 또는 年 거주허가증 사본
- 여권사진 2매
- 전염병이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진단서. 특히 이집트인인 경우 주혈흡충병 (住血吸蟲病) 테스트 필요.

취업허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레바논 입국시 입국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갱신할 경우에는 이전 허가증의 효력 만기시에만 수수료를 내게 된다.

③ 고용주(employer):

- 상대 레바논 파트너의 이름, 활동 목적 및 자산 상태 (레바논인의 지분이 51%

이상이어야 함)가 자세히 명시되고 한 명 이상의 상대 레바논 파트너가 함께 서명한 제휴계약서

- 각 파트너의 법인등록증 공증 사본
- 합법적인 입국과 취업허가를 증명하는 서류
- 여권사진 2매
- 상업등기소나 지정당국에서 발행한 발급일자가 6개월 이내인 회사등기부 사본
- 각 외국파트너에 대한 2억 LL이상의 은행보증 증명서
- 취업허가증을 갱신할 때에는 사내 종업원의 수를 나타내는 증명서와 사회보장 기금 납부증명서를 NSSF에 제출해야 한다.

11. 임금수준과 생산성

레바논의 평균 급여수준은 주변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비서직종의 경우 월 250달러 1,100달러, 메니저급이 월1,500달러 2,000달러, 은행 메니저급은 최고 2,500달러 그리고 이사급의 경우 월 3,500달러 5,000달러에 달한다.

18만 명 달하는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는 물론 민간기업도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으로서 매년 최저임금수준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었다.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LL300,000(199달러)이나, 공기업 근로자 최저임금은 LL250,000(166달러)로 이원화 되어있어 노총(GLC)은 최저임금 기준을 단일화하면서 대폭 인상토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67. 사회보장제도

<현지인 사회보장>

레바논의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로는 NSSF(the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라고 불리는 사회보장기금이 있다.

동 사회보장기금에는 근로조건이나 직장의 성격에 관계없이 채용 후 15일 이내 NSSF 가입(고용주는 회사설립 후 1개월 내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레바논에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라 할지라도 실업보험을 제외한 질병 및 조산보험, 가족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가족은 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취업근로자들의 경우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해당기업의 소재국가가 아닌 해외에서 근무한다는 계약에 따라 해외(레바논)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 외국인 취업근로자의 고용주인 외국기업이 해당 국가내에서 피고용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여 외국인 피고용자들이 해당 국가에서 사회보장혜택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레바논 관계기관에 제출할 경우 사회보장세는 완전히 면제된다.

사회보장세는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각각 급여의 일정비율을 분담하게 되는데, 이때 산정하는 급여기준은 초과근로수당, 보너스를 포함한 총수령액 기준이다.

[표] 사회보장기금 납세율

종 류	고용주측 부담율	본인 부담율
질병 및 조산	월급여의 7% (최대한도: LL105,000)	월급여의 2%
가족수당	월급여의 6% (최대한도: LL105,000)	0%
퇴직수당	월급여의 8.5% (최대한도: 없음)	0%
합 계	월급여의 21.5%	월급여의 2%

자료원 : Social Security Law, Decree No. 13955 of 26 Sept. 1963 및 이후 개정내용

단, 질병 및 조산수당, 가족수당의 경우 정부 발표 최저임금액('99년도 기준 30만 파운드)의 최대 3배까지만 산정기준이 된다.

질병 및 조산수당의 경우 입원비의 90%, 진료 및 처방약품 구입비의 80%까지 기금에서 지원하며, 가족수당의 경우 부인에 대해 월 최저임금의 20% 한도를, 자녀에 대해서는 최대 5명까지 1명당 11%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퇴직수당의 경우, 법정 정년인 64세에 퇴직하였거나 근속년수가 20년 이상일 경우 '퇴직월 통상급여 x 근속년수'를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현지 사회보장기금(NSSF)에 가입한 외국인은 동 기금 가입에 따라 레바논의 사회보장기금이 규정한 질병 및 조산수당, 가족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가족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모국에서 유사한 사회보장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현지 사회보장기금 가입을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통상 사회보장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동 사회보장기금제도 외에는 별도의 사회보장제도가 없다.

외교관이나 공공기관 직원외에도, 상사주재원은 통상 본국에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별도의 혜택도 없다.

68. 현지 생활여건

< 현지 생필품 구입>

- 생필품은 슈퍼체인인 Spinneys, BHV-Monoprix, Hyper 슈퍼마켓, 세인트 엘리 슈퍼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각 구역별로 운영중인 Coop(농협체인점)에서도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다. 생필품에 대해서도 수입관세율이 10% 40% 정도로 높아 가격은 비싼 편이나, 종류는 다양하다.
- Spinneys의 개점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이며 연중무휴제이나, Coop는 일요일 휴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 한국사람이 아직 많지 않아 한국으로부터의 음식물 혹은 음식물 재료는 수입되지 않고 있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재료는 고추, 마늘 등에 한정되고 그외 이렇다할 한국식품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음식재료가 없다. 배추도 계절에 따라 출하되고 있으나, 수입산 배추는 Kg당 9,000 파운드 (US\$6.00)수준이고 레바논산 배추는 포기당 2,000파운드 정도로 비싼 편이다. 배추가 늘 출하되지 않으므로 계절에 관계없이 김치를 먹고 싶다면 김치냉장고가 있으면 편리하다. 그 밖에 고추장, 된장 등 양념류는 물론이고 라면, 국수 등 한국 음식은 구할 수 없다.
- 일본 및 동남아산 라면이나, 일본산 두부 등은 수입되고 있다. 동남아산 간장과 fish sauce, 찹쌀 등은 구할 수 있다. (Hamra의 Smith Super) 일본식품도 일부 구할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
- 쇠고기는 물론이고 돼지고기도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격도 kg당 쇠고기는 US\$8, 돼지고기는 US\$5 선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나 품질은 그다지 좋지 않다.

< 공공요금>

- 전기료는 매 1-2개월마다, 수도료는 1년마다 납부하며 국제전화료는 매월, 국내 전화는 매3개월마다 납입액을 전화(1515)나 인터넷(www.ogero.gov.lb)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확인한 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고지서는 사전에 발부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제때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전 독촉이나 경고 없이 어느 순간 바로 전기 및 수도 공급이 차단되며, 이를 복구하는데 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 레바논에서 주로 사용되는 가정용연료는 부탄가스 혹은 프로판가스를 사용하며,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없다. 가정용 주방의 가스렌지는 LPG통(canister)을 개별적으로 주문해서 사용한다.

< 텔레비전 채널 >

현지 TV 방영방식은 PAL식이며 비디오는 VHS 방식이다. 현지에서 통상 사용하는 케이블은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케이블 TV 수신서비스 신청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 TV 1대당 매월 U\$10이 소요되며 CNN, BBC, 현지방송, 아랍방송 등 인근국 채널을 볼 수 있다.

< 인터넷 >

전화모뎀을 이용할 수도 있고 케이블TV업자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전화선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www.ogero.gov.lb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며 접속속도는 56kbps를 넘지 않고 있다.

케이블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은 일부 ISP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서비스요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매월 \$45정도이며 겨울철 우기가 되면 번개가 칠 때 낙뢰로 컴퓨터가 터지는 사고가 우려되어 서비스업체에서 인터넷 라인을 차단하므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그외의 경우 주 7일 24시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다. 접속속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전화선 이용시와 별 차이가 없다.

< 우편제도 >

- 한국과 레바논간 항공우편은 7-15일이 소요되며, 항공소포의 경우 무게 40파운드, 길이 24인치 단위로 접수하며, 긴급시 국제특사우편 (DHL, EMS, Skynet 등) 이용이 가능하다.
- 레바논은 내전이후 도로가 아직 완전하게 복구되지 않은데다, 번지 수 등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치를 얘기할 때, 특정 유명 건물이나 기념물을 중심으로 “near Tabalis Hawa chicken(아쉬라피에의 타발리스 지역에 있는 하외치킨점 근처 ” 라는 식으로 주소를 표기하고 있다.
- 따라서,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체국 사서함을 이용해야 하며, 레바논 정부는 Libanpost를 체신업무 기관으로 지정하여 우편물 배송업무를 외주발주 하고 있다.
- 긴급 배달이나 정확한 배달이 요청되는 경우 speedpost와 같은 사설 우편물 배달 서비스회사를 이용할 수 있다.

< 교통수단 >

- 공용버스가 소수구간 운행되고 있으나 일반택시, 합승택시가 주 대중교통수단이다.

- 택시 이용시 승차전 일정구간을 운행하는 합승택시 "Service" 인지, 손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일반택시 "Taxi" 인지 사전에 먼저 확인하고 탑승해야 함. 합승택시와 일반택시는 외형상 구분이 없고 승객과 운전사간에 합의에 따라 구분되며 일반택시는 합승 택시 요금의 약 3-5배 비싸므로 주의해야 한다.
- 항공 : 스위스항공, BRITISH AIR, Air France 및 LH항공 등 25개 항공사가 취항중이다.

< 자동차 >

- Left-Handle, 우측주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 대부분이 산악지형인데다 교통정체가 심해 Manual Transmission보다는 Automatic Transmission이 운전편리하다.
- 일반적으로 신규 구입차의 RESALE VALUE가 크지 않으며 국산차의 경우 3년 사용 후 구입가의 30-40%정도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 자동차 번호판은 현지인 개인차량은 흰색, 영업차량은 붉은색, 관용차는 검은색, 외교단 및 영사단은 옅은 노란색, 렌터카는 옅은 연두색으로 구분된다.

< 운전면허증 >

- 레바논은 1949년의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 회원국으로 타 회원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국제 운전면허증 포함), 사진3매, 여권을 지참해 오면, 운전면허시험 없이 1주일정도면 레바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현지 운전면허시험 개요:
기본 운전기술, 교통규칙에 관한 구두시험으로 판정, MANUAL차로 시험.

< 자동차보험 >

차량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며, 차량도난 차량사고에 대비한 종합 손해보험 가입이 바람직하다. 연간 종합보험료는 차량 매입가격의 약 8-10%에 달한다.

< 유류보급방법 >

주유소 시설은 현대화되어 있으며, 유연과 무연 유류가 공히 사용되며 유류값은 약 0.70불/L이다.

< 운전시 유의사항 >

- 베이루트의 경우 도로의 노폭이 좁고 노면이 고르지 못하며, 러시아워 구분없이 항상 교통량이 많아 교통체증에 시달리게 된다. 정부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등록 차량이 최대 30% 수준까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노후 차량의 경우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지 않거나, 방향지시등, 전후방 램프가 깨져서 작동되지 않고, 차량 앞뒤의 범퍼가 없는 차량도 심심치 않게 운행되는 걸 목격할 수 있다.
- 젊은 연령대의 운전자들은 기본적으로 교통법규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드 운전자들도 내전기간중의 악습으로 교통법규는 대부분 무시되는 상태이나 일부 외국인과 외국에서 생활하다 온 운전자들이 운전수칙을 준수하고 있어 혼돈이 야기된다. 차선무시, 난폭운전, 도로 한가운데서 정차, 골목길에서 마구 튀어나오는 차량, 역방향 운전 등 교통 규칙을 무시한 운전이 다반사이고, 좁은 도로에서 도로를 막고 이중 주차를 해두고 개인의 볼일을 보는 등 비상식적인 운전관행이 만연한데다, 신호등, 횡단보도표시 등이 없으므로 평소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 상호 우선관계, 도로별 속도제한, 안전벨트, 주차위반 등 교통법규는 규정으로만 존재하고 교통사고시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실정이다.

< 식사습관>

레바논의 중식시간은 통상 오후 3시-3시30분이며, 격식을 갖춘 저녁식사는 오후 9시경에 시작해서 자정을 훨씬 넘겨까지 계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식사시간(중식 12시, 저녁 7시)과 상이하여 상황에 따라 현지인과의 식사 약속시 적절한 중간시간대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 레저 여건>

- 거주지역마다 스포츠 센터가 운영중이나 대부분 멤버십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헬스, 수영, 테니스, 사우나 등이 가능. 4인 가족기준 연간회비는 약1,500달러 수준에 달한다.
- 레바논내에 유일한 골프장으로서 공항근처에 18홀짜리 잔디골프장이 한 곳 있다. 외국인의 경우 정회원 가입은 불가능하며, 이용권한을 주는 연간 멤버십만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멤버십은 기본이 4인 가족기준 약 2,800달러 정도이며 기타 부대 서비스를 추가시 비용이 추가된다. 캐디 사용료는 A급이 15달러(18홀 기준), B급이 10달러선이나 보통 그 이상을 기대한다. 멤버 가입시 별도 그린피는 받지 않는다. 비회원일 경우 그린 사용료가 주말을 기준으로 18홀은50달러, 9홀은 35달러를 받고 있다.

- 전국적으로 스키장이 4개소 있으며, 강설량에 따라 12월 말부터 이듬 해 4월 초까지 이용할 수 있다. 베이루트로부터 1시간 3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당일코스로서도 적당하나 근처 샬레에서 숙박도 가능하다. 리프트 사용료는 평균 15달러, 장비 임대료는 10달러선이며 숙박료는 80~100달러/1박 정도이다.
- 실내스케이트장 1개소가 베이루트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있다.
- 지중해 연안에 바닷가를 이용한 Beach가 있어 6월부터 9월까지 해수욕장이나 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사용료는 저렴한 편이나 레바논이 전국적으로 하수처리 시설이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수욕장은 일반 공공해수욕장은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고, 가급적 시내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으로서 자체 수질 정화처리시설을 갖추고 탈의장 시설을 갖춘 유료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베이루트 시내에 사우나, 마사지가 가능한 클럽이 5-6개 정도 영업중이다.
-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있으나 10여 개 정도의 놀이기구를 갖춘 비교적 소규모 시설에 불과하다. 여름철에는 초등학교생들을 위한 종합 놀이공원이 운영되며 월평균 사용료가 일인당 200-250달러 수준이다.
- 개방적이며 밤문화가 비교적 발달되어 베이루트 외곽 쥬니에(Junieh)를 중심으로 슈퍼 나이트클럽이 즐비하다. CIS 및 동구권 국가에서 유입된 여성들이 춤을 추며 레바논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 여성들은 경찰당국의 인원 및 동향 점검의 대상이므로 클럽외부로 나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 레바논은 기독교문화가 공존하고 있어 알콜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편이다. 일반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주류를 구입할 수 있으며 곳곳에 스탠드바, 펍레스토랑이 영업중이다. 쥬니에 외곽지역에는 중동 최대의 카지노(Casino Du Liban)도 있다.

<문화행사>

매년 2월부터 3월에 Al-Bustan Festival(오페라, 발레, 합창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을 시작으로 7-8월에는 Baalbeck Festival, Beiteddine Festival, Byblos Festival, Tyre Festival이 있고 년중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www.destinationlebanon.com에서 볼 수 있다.

69. 이주정착가이드/이주.정착가이드

< 주택임차>

- 18개 종파가 같은 종교집단끼리 모여 사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종교집단 거주지역 중에서 비교적 안전이 확보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임차하는 것이 좋다.
- 임차료는 통상 매 3-6개월 단위로 지불하며 가구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가구, 집기류의 마모상태를 정밀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 전기와 수도공급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정부에서 공급하는 물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건물소유의 식수원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 화재 도난시 주택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대략 1,000불 수준이다.

< 자녀 학교 입학>

- 초등학교 자녀의 경우 American Community School을 비롯하여 3, 4개소의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다. 학교마다 별도의 입학시험을 치르고 있으나 저학년의 경우 학교장 면담을 통해 동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통상 9월 중순-10월 초에 학기가 시작되며 사립학교의 교육수준이 공립학교보다 우수하며 각 종파별로 사립학교가 있고 통학은 대부분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 구좌개설>

달러화 및 현지화 구좌를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으며 이자는 거의 없다.
최초 구좌 개설 시 ID카드 제시 및 미화 1,000달러를 예치토록 하고 있다.

< 비품구입>

- 비품이 포함된 semi- furnished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으며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220volt, 50Hz로 50/60Hz 겸용 전자제품이 필수적이다.
- Unfurnished 아파트를 계약할 경우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한국보다 비싼편. 가구의 경우에도 수입가구는 한국산보다 훨씬 비싸고 현지산 가구류는 취향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구전문 전시회 등을 활용하여 구매하는 것도 좋다.
- 비품을 구입할 때는 메이커, 대리점마다 가격이 다소 상이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장 조사를 거쳐 세일기간 (2월, 8월)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 현지 생필품 구입>

- 생필품은 슈퍼체인인 Spinneys, BHV-Monoprix, Hyper 슈퍼마켓, 세인트 엘리 슈퍼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각 구역별로 운영중인 Coop(농협체인점)에서도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다. 생필품에 대해서도 수입관세율이 10% 40% 정도로 높아 가격은 비싼 편이나 종류는 다양하다. Spinneys의 개점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며 연중무휴제이나, Coop는 일요일 휴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 고추, 마늘 등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한국식품이 없다. 배추의 경우 수입산이 Kg당 약 9,000파운드 수준이고 레바논산은 포기당 2,000파운드로 비싼 편이다. 또한 1년내내 생산 판매되지 않아 김치냉장고가 있으면 편리하다.
- 그밖에 고추장, 된장 등 양념류는 물론이고 라면 (동남아산 라면은 있음), 국수 등 한국음식은 구할 수 없다.
- 동남아산 간장과 fish sauce, 찹쌀 등은 구할 수 있다. (Hamra의 Smith Super)
- 일본식품도 일부 구할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
-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비교적 풍부하며 kg당 전자는 5달러, 후자는 8달러 선이다.

< 레저 여건>

- 거주지역마다 스포츠 센타가 운영중이나 멤버십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헬스, 수영, 테니스, 사우나 등이 가능. 4인 가족기준 연간회비는 약1,500달러 수준.
- 공항근처에 18홀짜리 잔디골프장이 한 곳 있으며 연간 멤버십 사용료는 4인 가족기준 약 2,800달러 정도, 캐디 사용료는 A급이 14달러(18홀 기준), B급이 10달러선. 멤버 가입시 별도 그린피는 받지 않는다. 비회원일 경우 그린사용료는 18홀은50달러, 9홀은 35달러를 받고 있다.
- 한편, 전국적으로 스키장이 4개소 있으며 1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이용할 수 있다. 베이루트로부터 1시간 3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당일 코스로서도 적당하나 근처 샬레에서 숙박도 가능하다. 리프트 사용료는 평균 15달러, 장비 임대료는 10달러선이며 숙박료는 80 100달러/1박 정도이다.
- 6월부터 9월까지 해수욕장이나 옥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저렴한 편이나 하수처리 시설이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수욕장은 가급적 시내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으로서 탈의장 시설을 갖춘 유료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베이루트시내에 사우나, 마사지가 가능한 클럽이 5-6개정도 영업중이다.

-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있으나 10여 개 정도의 놀이기구를 갖춘 비교적 소규모 시설에 불과하며 여름철에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종합 놀이공원이 운영되며 월평균 사용료가 일인당 200-250달러 수준이다.
- 개방적이며 밤문화가 비교적 발달되어 베이루트 외곽 주니에(Junieh)를 중심으로 슈퍼 나이트클럽이 즐비하며 러시아에서 유입된 여성들이 춤을 추며 레바논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구멍가게에서도 주류를 구입할 수 있으며 곳곳에 스탠드바, 펍레스토랑이 영업중이다. 주니에 외곽지역에는 중동 최대의 카지노(Casino Du Liban)도 있다.

< 치안상태>

- 치안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주간 외출과 야간 외출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단, 남부 Security Zone 및 이스라엘 접경지역, 헤즈볼라들의 주거지역인 베이루트 남부교외의 Haret Horeik 및 Bour El Barajneh지역, 헤즈볼라 본부가 위치한 동부 베카의 Rayak 인근 Nabi Chit 지역, 마약 재배지로 추정되는 북부 베카 Baalbek인근 Boudai, Deir El Ahmar 지역, 팔레스타인 캠프가 소재한 Sabra & Chatila(베이루트), Mar Elia Elia(베이루트), Beddawi(트리폴리), Mieh Wa Mieh(시돈), El Bass(Tyre)지역 및 남부 베카 Karaun호수 이남지역 등은 여행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군사기지, 팔레스타인난민촌(전국에 15개 소재), TYRE 이남의 SECURITY ZONE 인근지역에서의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 소매치기, 도난사건은 많지 않으나 최근 무장강도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치안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지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차량 강도 및 도난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을 태우지 말아야 하며 주차시 잠금장치를 확인해야 한다.
- 차량으로 외출시 항상 신분증(ID 카드 및 면허증, 차량등록증)을 휴대하며 교통사고를 대비하여 비상 연락처(보험사 및 자동차 정비 센터)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 공공요금>

- 전기료는 매 1-2개월마다, 수도료는 1년마다 납부하며 국제전화료는 매월, 국내전화는 매3개월마다 납입액을 전화(1515)나 인터넷(www.ogero.gov.lb)을 통해 직접 확인한 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는 사전에 발부되지 않는다.
- 레바논에는 도시가스시설이 없으며 주방의 가스렌지는 LPG통을 주문해서 사용한다.

< 텔레비전 방송 수신 및 DVD Player>

현지 TV 방영방식은 PAL방식이며 비디오는 VHS 방식이다. 현지에서 통상 사용하는 케이블방송은 대부분 비합법적으로 운영되며 신청시 TV 1대당 매달10불이 시청료로 청구되며 CNN,BBC, 현지방송, 아랍방송 등 인근국 채널을 볼 수 있다.

DVD하드웨어의 레바논 지역코드는 2이고, 한국 지역코드는 3이다. 따라서 DVD Player는 code free제품을 권한다.

< 전화신청>

- 전화번호 신청(전화번호는 식별하기 좋은 번호인지 여부에 따라)시 70-500불 수준이다.
- Directly 국제전화를 원할 경우 500불을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500불의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국제전화를 걸 때는 '100'을 이용, 교환원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요금은 분당 1,500LL이며,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20% 할인율이 적용된다.
- 기본요금은 2004년 현재1개월에 20,000원이다.
- 국내전화요금은 분당 약 50LL이며, 일반전화를 핸드폰에 연결시는 분당 약 200LL이다.

< 우편제도>

- 한국과 레바논간 항공우편은 7-15일이 소요되며, 항공소포의 경우 무게 40파운드, 길이 24인치 단위로 접수하며 긴급시 DHL 이용이 가능하다.
- 주재국내에는 사서함을 이용해야 하며, 내전이후 우편물 배달제도가 아직 완전히 복원되지 않고 있다. 필요시 사설 배달회사를 이용해야한다.

< 교통수단 >

- 공용버스가 소수 구간 운행되고 있으나 일반택시, 합승택시가 주 대중 교통수단이다.
- 택시 이용시 승차전 일정구간을 운행하는 합승택시인지, 손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일반택시인지 확인 요함. 합승택시와 일반택시는 외형상 구분이 없고 승객과 운전사간에 합의에 따라 구분되며 일반택시는 합승 택시 요금의 약 3-5배 비싸므로 주의해야 한다.

- 항공 : 스위스항공, BRITISH AIR, Air France 및 LH항공 등 25개 항공사가 취항중이다.

< 자동차 >

- Left-Handle, 국토 대부분이 산악지형이며 교통정체가 심해 Manual보다는 Automatic이 운전 편리하다.
- 일반적으로 신규 구입차의 RESALE VALUE가 높지 않으며 국산차의 경우 3년 사용 후 구입가의 30-40%정도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 자동차 번호판은 현지인 개인차량은 흰색, 영업차량은 적색, 관용차는 흑색, 외교단 및 영사단은 옅은 노란색, 렌터카는 옅은 연두색으로 구분된다.

< 운전면허증 >

- 레바논은 1949년의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 회원국으로 타 회원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사진3매, 여권을 지참해 오면 운전면허시험 없이 1주일내 레바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현지 운전면허시험 개요:
기본 운전기술, 교통규칙에 관한 구두시험으로 판정, MANUAL차로 시험.

< 자동차보험 >

차량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며, 차량도난 차량사고에 대비한 종합 손해보험 가입이 바람직하다. 연간 종합보험료는 차량 매입가격의 약 8-10%에 달한다.

< 유류보급방법 >

주유소 시설은 현대화되어 있으며, 유연과 무연 유류가 공히 사용되며 유류값은 약 0.70불/L이다.

< 운전시 유의사항 >

- 베이루트의 경우 도로의 노폭이 좁고 노면이 고르지 못하며, 러시아워 구분없이 항상 교통량이 많아 교통체증에 시달리게 됨. 난폭운전, 역방향 운전 등 교통 규칙을 무시한 운전이 다반사이고 신호등, 횡단보도표시 등이 없으므로 평소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 상호 우선관계, 도로별 속도제한, 안전벨트, 주차위반 등은 규정으로만 존재하고 교통사고시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실정이다.

<의료 수준, 의료보험제도>

유럽의 영향으로 의료진은 중동 지역에서는 우수한 편이며 서비스면에서 사설병원이 훨씬 우수하다.

감기나 외상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시중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전문의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외래진료의 경우 초진기준 병원에 따라 약 50달러의 상담·진찰료를 받고 있으며 입원비는 평균 100달러/1일 이상으로 비싼 편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는 없으며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할 경우 4인 가족 기준 연간 보험료는 약품 구입을 제외한 치료, 입원비만 보험회사가 부담할 경우 1,500달러 수준이다.

70. 자녀 교육여건

<인터내셔널 스쿨>

▶ AMERICAN COMMUNITY SCHOOL

- JAL EL BAHR, AIN MREISSE, BEIRUT
- TEL: 01-374303, 367214
- FAX: 961-1-366050
- 특징: 아메리칸스쿨로서 영어로 강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망라되어 있으며 재학생중 70-80%가 레바논 현지인으로 외국인은 20-30%에 불과하다. 일년에 두 차례에 걸쳐 학비를 납부하며 연간 학비는 중학교까지 일인당 약 7,800달러, 고등학교 과정은 9000-10,000달러에 달하며 기부금은 1,000달러임. 편입시 별도의 시험을 치워서 선발하며 9월 초순에 신학년이 시작하여 이듬해 6월 하순에 학기가 마친다. 학사관리가 엄격한 편이다.

▶ INTERNATIONAL COLLEGE

- BLISS ST., BEIRUT, LEBANON
- TEL: 01-342006, 343215
- FAX: 961-1-362500
- 특징: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망라되어있는 인터내셔널 스쿨로서 레바논 바칼로리아 시스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레바논 학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연간 학비는 약 4,300달러 선이다.

▶ SAGESSE HIGH SCHOOL

- AIN SAADE, METN
- TEL: 01-872145~8
- FAX: 961-1-872149
- E-MAIL: sagesse@sagesse.com
- 특징: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망라된 인터내셔널 스쿨로서 기독교 마로나이트 재단이 운영함. 약 20개국에 달할 정도로 외국인 자녀가 많이 등록하고 있으며 매년 10월초 신학년이 시작되어 6월 말에 학기가 종료된다. 기부금은 1,000달러, 연간학비는 4,500달러 선임. 영어와 불어로 강의하며 언어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불어와 영어로 강의하는 에반젤리칼 스쿨이 다수 있으나 학사관리면이나 지명도 측면에서 위 3개 학교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수준이다.

71. 진출기업

`94년 현대건설이 송전시설 복구공사(U\$8,000만), 극동건설이 상수도시설 복구 공사 (U\$ 1,200만)를 수주하여 공사완료 후 철수한 바 있다.

레바논 내전기간중 치안불안으로 기진출해 있던 기업들이 모두 철수한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주요 사유로는, 레바논의 내전기간중 과거 중동의 중계무역 및 물류 등 교역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이 두바이로 많이 이전되었으며, 레바논의 자체시장이 협소한데다, 레바논이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과의 거래 기업 혹은 이스라엘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사람의 입국이 거부되는 등 이스라엘 관련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 때문이기도 하다.

현지 지·상사는 그간 전무하였으나, 2005년 5월 현재 LG전자가 지사를 설치 추진중에 있으며(공식적인 설립허가가 미 완료된 상태), 한국담배공사의 후신인 KT&G에서 간접적으로 인력을 파견, 현지사무소를 운영중에 있다.

- LG전자 : LG Electronics Beirut Branch
Habib Center, 5th floor.,
Sin El-Fil, Saloumeh Highway,
Beirut, Lebanon
Tel : 961-1-487540
Fax : 961-1-487579

- Alokozay Ltd : Alokozay Ltd. Representative in Lebanon
Aresco Tower, 7th floor.,
Hamra, Beirut, Lebanon
Tel : 961-1-487540
Fax : 961-1-487579

그 외, 교민중 무역 및 컨설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가 1개사가 있다.

- 회사명: M,E,C & TRADE CO.
전화: (961-1) 869903, 800025
팩스: (961-1)807942
이메일: sunglee@sodetel.net.lb
주소: PO BOX 113-6174 HAMRA, BEIRUT, LEBANON
대표: 이 성 사장

72. 주요경제지표

[표] 주요 경제지표

지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명목GDP(US\$백만)	16,400	16,200	17,000	18,000	17,300
1인당 GDP(US\$)	4,685	4,500	4,722	5,000	4,675
실질 성장률(%)	-0.6	0.8	1.5	2.5	4.0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0	0.5	4.0	2.5	1.5
인구(만명)	350	350	360	360	370
실업률(%) [㉠]	n/a [㉡]	n/a [㉡]	18.0	n/a [㉡]	n/a [㉡]
수출(US\$백만,FOB)	714.3	889.3	1,045.5	1,524.0	1,747.0
수입(US\$백만,FOB)	5,750.1	6,735.2	5,953.6	6,620.9	8,680.3
외환보유고 (US\$백만) [㉢]	5,943.7	5,013.8	7,243.8	12,519.4	11,734.6
공공부채 (Gross: 십억LL) [㉣]	37,989	42,644	47,291	50,323	54,048 [㉤]
총외채(US\$십억)	12.3	15.0	19.7	20.7	23.9
연평균환율(LL/US\$)	1,507.5	1,507.5	1,507.5	1507.5	1,507.5

● 자료원: Country Report January 2005, 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주: ㉠ World Bank 추계

실업률은 조사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Saint Joseph University의 National Survey에 의한 실업률은 `99년 8.5%, 2001년 11.5%를 기록했으나, 레바논 노동부는 `99년 25%에 달한 것으로 발표했으며, 2001년 Bank Audi는 23%로 발표하였다.

실업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인구센서스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데다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젊은 층 인력이 해외로 대거 유출됨에 따라 실업률 조사 기준 등에서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는 때문이다.

㉡ 금 (gold) 제외

㉢ n/a: not available

㉣ 레바논 재정부 (www.finance.gov.lb/main/govfin/overview.htm)

㉤ 2004년 12월 기준

73. 대외거래 지표

[표] 대외 거래 지표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국제수지 (US\$백만)	-300	-1,169	1,564	3,386	169
무역수지 (US\$백만)	-5,514	-6,402	-5,401	-5,647	-7,650
수출 (US\$백만, fob)	714	889	1,046	1,524	1,747
수입 (US\$백만, cif)	6,228	7,291	6,447	7,171	9,397
외환보유고 (US\$백만) ㉠	5,944	5,014	7,244	12,519	11,734

* 자료원: Country Report January 2005, 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주: ㉠ 금(gold) 제외

74.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

[표1] 레바논 국가별 수입

(단위: US\$ 백만, %)

순위	수입원산국	2003년	2004년	2005.1-4월	(증감율)
	총 계	7,168	9,396	2,981	9.5
1	이탈리아	674	930	269	-2.2
2	프랑스	583	730	226	3.0
3	독일	579	729	187	-2.0

4	중국	531	717	211	6.7
5	미국	431	553	159	-3.0
6	러시아	322	542	164	4.3
7	사우디아라비아	219	413	146	30.4
8	스위스	216	395	120	34.3
9	영국	315	385	100	-14.6
10	일본	269	349	97	-4.6
21	대한민국	79	102	28	-6.0

*자료원: 레바논 관세청 통계국. 2005년 6월 현재

[표2] 레바논 국가별 수출

(단위: US\$ 백만, %)

순위	수출대상국	2003년	2004년	2005.1-4월	(증감율)
	총 계	1,524	1,747	569	-5.9
1	이라크	122	255	53	-50.5
2	스위스	379	187	20	-82.4
3	시리아	150	145	69	72.1
4	UAE	104	135	42	1.2
5	터키	63	127	48	11.5
6	사우디아라비아	104	112	38	13.7
7	쿠웨이트	51	67	27	47.0
8	요르단	48	62	24	56.4
9	미국	66	48	17	22.2
10	이집트	27	39	16	61.9
18	대한민국	8	11	4	-14.1

*자료원: 레바논 관세청 통계국. 2005년 6월 현재

75.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

[표1] 레바논 수출입

(단위: US\$ 백만,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1-4월	(증감율)
수 입	6,445	7,168	9,396	2,981	9.5
수 출	1,045	1,524	1,747	569	-5.9

* 자료원: 레바논 관세청 통계국. 2005년 6월 현재

[표2] 레바논 품목별 수입: HS1단위 기준

(단위: US\$ 백만)

순 위	주요수입품	HS	2003년	2004년	2005.1-4월
	총 계		7,168	9,396	2,981
1	광산물생산물	05	1,190	2,068	608
2	기계류 및 전기기기	16	872	1,109	343
3	차량 및 수송기기 관련품	17	696	843	212
4	화학공업 및 연관공업의 생산품	06	715	828	275
5	비(卑)금속과 그 제품	15	470	596	207
6	조제식료품 및 알콜, 식초, 담배류	04	476	526	159
7	진주 · 귀금속 및 모조신변장식용품	14	302	526	291
8	방직용 섬유 및 제품	11	433	507	162
9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01	418	452	138
10	식물성 생산품	02	383	440	136
11	기 타		1,213	1,501	450

* 자료원: 레바논 관세청 통계국. 2005년 6월 현재

[표3] 레바논 10대 수입 상품: HS4단위 기준

(단위: US\$ 백만)

순위	품 목 명	HS Code	2,003년	2004년	2005.1-4월
1	원유	27.10	1,031	1,871	542
2	자동차	87.03	425	602	143
3	의약품	30.04	360	400	139
4	금	71.08	163	331	90
6	철강 Bar & Rods	72.14	125	155	47
5	소(젖소 및 육우)	01.02	129	138	36
7	시가 및 쥘련류	24.02	111	120	36
8	다이아몬드	71.02	75	112	184
9	자동차 부품	87.08	73	96	28
10	컴퓨터	84.71	75	94	31

* 자료원: 레바논 관세청 통계국. 2005년 6월 현재

[표4] 레바논 품목별 수출: HS1단위 기준

(단위: US\$ 백만)

순위	주요수출품	HS Code	2003년	2004년	2005.1-4월
	총 계		1,523	1,747	569
1	진주·귀금속 및 모조신변장식용품	14	464	287	52
2	기계류 및 전기기기	16	179	273	90
4	비(卑)금속과 그 제품	15	115	227	100
5	화학공업 및 연관공업의 생산품	06	114	149	41
3	조제식료품 및 알콜, 식초, 담배류	04	149	148	57
9	광산물생산품	05	64	107	51
6	목재 또는 펄프 및 그 제품	10	89	100	31
8	식물성 생산품	02	64	82	20
7	방직용 섬유 및 제품	11	64	78	26
10	잡제품	20	45	55	16
11	기타		176	241	85

*자료원: 레바논 관세청 통계국. 2005년 6월 현재

76.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한-레바논 교역통계

[표1] 한국의 대레바논 수출

(단위: US\$ 천, %)

			2004년		2005년 1-5월	
순위	MTI code	품 목 명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총 계	88,855	24.5	31,850	-11.1
1	741	자동차	23,141	139.2	9,976	27.6
2	821	영상기기	7,277	32.1	1,763	-32.9
3	214	합성수지	5,913	29.2	2,148	-21.1
4	823	냉장고	4,744	-3.8	1,694	-6.7
5	434	인조장섬유직물	4,340	1.4	1,132	-43.7
6	824	가정용회전기기	4,254	3.0	1,078	-53.3
7	436	편직물	3,074	-15.6	695	-30.9
8	613	철강판	3,052	48.7	667	-38.2
9	320	고무제품	2,915	9.7	1,023	-18.3
10	310	플라스틱 제품	2,571	8.8	1,205	23.4
11	813	컴퓨터	2,496	228.4	2,087	155.8

12	742	자동차부품	2,033	-9.0	738	-19.3
13	725	건설광산기계	1,745	31.6	671	7.6
14	835	건전지및축전지	1,631	-6.0	688	-12.6
15	812	무선통신기기	1,510	-40.8	472	-52.8
16	814	전자응용기기	1,066	113.9	256	-8.0
17	449	기타섬유제품	1,043	-6.5	7	-99.0
18	252	종이제품	897	-20.9	178	-57.1
19	439	기타직물	884	-20.9	500	51.3
20	711	원동기및펌프	740	494.4	482	268.8

* 자료원: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2005년 6월 현재

[표2] 한국의 대레바논 수입

(단위: US\$ 천, %)

			2004년		2005년 1-5월	
순 위	MTI code	품 목 명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총 계	10,234	85.9	5,524	14.1
1	621	알루미늄	7,074	87.5	4,744	59.3
2	622	동제품	2,971	80.3	591	-66.4
3	129	기타비금속광물	78	8,976.2	48	104.7
4	842	정지기기	33	-	-	-
5	725	건설광산기계	28	-	-	-
6	821	영상기기	19	-45.7	-	-
7	941	안경	12	-	-	-
8	813	컴퓨터	7	364.0	4	-
9	625	연제품	5	45.3	-	-
10	015	기호식품	3	-	-	-
11	811	유선통신기기	2	-	-	-
12	911	서적	1	-	-	-
13	814	전자응용기기	1	-69.9	-	-
14	826	조명기기	1	-	-	-
15	310	플라스틱제품	0	23.3	101	111,961.1
16	990	기타잡제품	0	-	-	-

* 자료원: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2005년 6월 현재

77. 대외투자 진출 통계

레바논 투자청 (IDAL)등 정부에서 공식 집계한 레바논의 대외투자진출 통계를 확인할 수 없다.

해외투자시 건별로 심사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레바논은 이중국적이 허용되고 자체인구의 4배인 약 1,100만명(추정)이 브라질, 멕시코등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 해외 이민 및 투자진출이 매우 활발할 것으로 추정된다.

78. 외국인 투자유치통계

-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걸프지역 국가에서 직접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나 레바논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를 공식 집계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다.

79.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 통계

- 우리나라와의 투자 교류 통계

레바논은 적은 인구와 협소한 시장, 발달이 부진한 제조업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진출이 전무한 실정이다.

레바논은 1975년~90년 간 내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사 및 사무소도 모두 철수한 실정이며, 이후 현지 치안에 대한 불확신과 인근 이스라엘 시장과의 접근에 불편함으로 인해 기업의 진출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2005년 5월 현재 양국간 실질 투자교류는 전무한 실정이다.

80. 물가금융 지표

[표] 물가금융지표

지 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율(%)		-1.0	0.5	4.0	2.5	1.5
외채(\$십억)		12.3	15.0	19.7	20.7	23.8
연평균 시중은행이자 율(%) (LL) ㉑	대출금리	18.15	16.9	11.32	16.10	10.26 ₁
	예금금리	10.68	10.8	7.79	9.83	6.61 ₁
연평균 환율(\$:LL)		1,507.5	1,507.5	1,507.5	1507.5	1507.5
외환보유고(\$백만)		5,943.7	5,013.8	7,243.8	12,519.4	11,569.4
주가지수 ㉒		60.0	44.5	45.9	47.6	73.96 ₂

* 자료원: Country Report January 2005, 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주: ㉑: Central Bank of Lebanon

₁: 2005년 2월 현재

㉒: 아우디지수(1996년 1월 22일=100)

₂: 2005년 5월 5일 현재

The Lebanon Weekly Monitor, Bank Audi.

81. 노동 통계

<경제활동인구>

1997년 Central Administration of Statistics의 조사에 의하면 총 인구 400만 가운데 외국인이 7.6%를 차지하며, 경제활동인구(외국인노동자 포함, 계절노동자 제외)는 인구의 34%인 약 136만명으로 추산된다.

• 실업률

실업률은 조사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출자가운데 실업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aint Joseph University의 National Survey에 의한 실업률은 1999년 8.5%, 2001년 11.5%를 기록했으나 레바논 노동부는 2001년 실업률이 15%-20%에 달한 것으로 발표했으며, 청년실업률은 이보다 높은 3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Bank Audi는 2001년의 실업률을 23%로 발표하였다.

이처럼 실업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인구센서스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데다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젊은 층 인력이 해외로 대거 유출됨에 따라 실업률 조사 기준 등에서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는 때문이다.

[표1] 실업률

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실업률(%)	8.5	-	-	-	-	12

자료원: World Bank (2004.12. 현재 최신자료)

World Bank 자료에 의하면 레바논내 총 경제활동인구는 `97년 기준 1,362,000명이며 이중 116,000명이 실업으로 실업률은 8.5%, 2002년에는 실업률이1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바논회사인 IIRC(International Information Research Consultants)의 조사에 의하면 노동인구 110만명 가운데 80%가 민간기업에, 20%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50,000명이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실업문제는 매년 20,000명 가량의 해외 이주자때문에 일부 해결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업종별 노동력 분포

[표2] 업종별 노동력 분포비

	구 성 비(%)
농 업	9.0
공 업	15.1
건 설 업	11.6
상 업	23.3
서 비 스 업	40.7
합 계	100.0

*자료원: Business Handbook 2003 (2005.6. 현재 최신자료)

- 임금 수준

레바논의 평균 급여수준은 통계가 없지만 시리아, 요르단 등 인근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비서는 경력에 따라 월 250~1,000불수준, 매니저급은 1,000~2,000불, 은행매니저는 1,000~2,500불, 이사급은 3,500~5,000불 수준이다. 평균급여인상율은 연도별 통계가 없으나 1993년~96년 간 평균급여는 181%가 증가하였다.

- 평균근로시간

노동법상 주당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농업과 식품서비스산업은 예외)

- 미숙련노동자 부족

아랍 노동자(주로 시리아인, 팔레스타인난민, 이집트인), 아시아 노동자(필리핀인, 쓰리랑 카인), 인도인, 파키스탄인,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건설현장, 농업, 제조업 및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믿을 만한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